

事 件 簿

北海道広島会衆

יהוה

- エホバはものみの塔協会を棄くか。
- 神の子は解放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るか。



- 明らかになったものみの塔協会の偽善と腐敗。
- 組織崇拜の構造を暴く。
- キリストの精神を踏みにじる統治体。

홋카이도 히로시마회중 사건부

1987년 초판 발행.

사건부

80년대 중반에 홋카이도·히로시마 회중에서 일어난 대량 제명 사건을 극명하게 그리고 있다. 사법 위원회, 일본 지부 그리고 세계 본부의 대응 등 일반적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실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서론

헤이본사의 대백과사전에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죽기까지 충실을 지킨<위대한 증인>예수와 같이, 신자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주 : 최근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광신적이고 폐쇄적인 종교 단체로서 소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되어 왔다.

그 평가를 배반하지 않고 많은 여호와의 증인은 정직하게 행동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방식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을 지도하며,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간부 클래스안에는,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조직 전체의 체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이번 우리가 직면한 사건에 의해서, 처음으로 밝혀졌다.

상부의 심한 부패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고 위선과 조직 숭배라는 위치타워협회 체질의 열악함에는 우리도 충격을 받았다.

당초에, 우리는 통치체(여호와의 증인의 최고 지도 기관)가 진실을 알면, 부패한 체질을 개선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 정도의 자정 작용은 위치타워협회에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은 모두 빗나가서 모든 기대가 좌절되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진실하게 적대하는 것이었다.

위치타워협회의 완고함은, 스테반이 질책했던 일세기 종교 지도자의 태도에 필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살해한 그들을 향해 스테반은 이렇게 말했다.

「완고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항상 성령에 대항합니다.」(사도7:51)

이미, 위치타워협회에는 진실을 들을 수 있는 마음도 귀도 없다. 그 목은 강철, 마음은 돌과 같았다.

향후의 움직임을 보지 않으면 최종적인 판단은 내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바리새적인 체질을 고쳐 조직 지배를 멈출 생각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대로 진행되어 가면, 이윽고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신 다음의 말씀이, 위치타워협회에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들을 그대로 두십시오.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질 것입니다.」(마태15:14)

바리새인 같은 체질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그대로도 좋을지 모르지만, 많은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알고 나서, 위선인가 진리인가, 참 숭배인가 조직 숭배인가 자신의 믿음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현재, 위치타워협회는 오로지 진실을 덮어 가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마 향후는, 더욱 더

내부 통제를 강하게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호와와 증인에게 진실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책이 그 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층 더 우리는, 본서의 발행이 「하늘 법정에 대한 히로시마 회중의 제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워치타워협회는 스스로를 여호와와 증인이라고 칭하면서, 위선과 조직 숭배를 실시해 하느님의 이름을 계속 더럽히고 있다. 성원에게 매우 무거운 멍에를 부과하고, 여호와와 신성에 계속 적대하고 있다. 만약 하느님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앞으로도 방치해 두신다면, 그 존재와 신성이 거론되게 될 것이다.

과연 정말로 하느님은 여호와인가. 여호와와 하늘과 땅의 주권자로, 결코 조롱당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지 명목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고, 아무런 실체가 없는 신인가. 여호와께서는 통치체, 워치타워협회가 하라는 정도 밖에 안 되는 신인가.

우리는 이 사건부를 하늘법정에 대한 제소로서 발행하면서,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 가능하다면 워치타워협회나 사건의 당사자들의 반론이나 이의를 듣고 싶다고 생각하여, 그 취지를 전해 보았지만, 워치타워협회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또, 오구마 히로유키 씨는, 후지와라, 세노, 사사야마 씨등의 당사자를 대표해서 이 원고의 수취를 거부했다.

1장 히로시마 회중의 걸음

워치타워협회는 각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을 회중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는 약 52,000의 회중이 있으며, 활동적인 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800이상의 회중에서, 약 26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히로시마 회중은, 1978년 9월, 삿포로·토요히라 회중으로부터 분회 해서, 전도인 15명으로 이루어진 회중에서 출발했다. 카나자와 형제, 자매는 히로시마 회중 설립을 위해, 아키타현 노우다이 회중으로부터 워치타워협회의 임명을 받아서 왔다.

그 당시 히로시마 회중의 상황은 결코 좋지만은 않았다. 전도는 비교적 열심이었지만, 내부의 영적 상태(정신 상태)는 황폐 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끔 꾸며진 웃는 얼굴, 뒤에서는 불평, 불만, 험담, 욕, **준화등이 횡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원들의 영성이 심각함을 말해주는 전형적인 예를 1가지 올리자. 어떤 세 명의 자매들 사이에서 중상하는 문제가 생겼다. 당사자끼리의 대화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회중에게 갖고 오게 되었다. 거기서 대화의 장소가 만들어 졌지만, 그 모임 중에서 두 명의 자매가 일어나서, 하마터면 **잡아 사랑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한 장면이 있었다. 「절대로 여호와 앞입니다. 장소를 분별하세요.」라고 하는 카나자와 형제의 한마디로, 일단 그 자리는 들어갔던 것이다가.

이러한 실태에 놀란 카나자와 형제가 타회중의 형제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차라리 그 정도는 좋은 편이라고, 삿포로의 대부분의 회중이 그런 것이라고 위로받아 아연하게로 했다고 한다. 카나자와 형제가 히로시마에 오기 전에 있던 지방에서는, 아무리 심해도 그러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상식이 다르다고 느꼈다고 한다.

회중에서 생기는 인간관계의 트러블을 들을 때마다, 카나자와 형제는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윽고 시기를 확정하고 나서, 집회에서 「앞으로 이러한 험담, 욕, 험담을 방치 하는 것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날에서 그런 것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히 취급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험담이나 서로 욕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계속 강조했다.

그런데도 곧바로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강한 결의를 가지고 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회중의 영성은 많이 개선되었고 인원수도 서서히 증가해 갔다.

히로시마 회중이 취한 이 방침은, 워치타워협회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다. 동 협회는, 인류 사회 안에서 볼 수 있는 부패하고 악한 정신을 세상의 영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피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평화와 안전」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나타내고, 인생에 대해 세상의 견해를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아니라 세상의 벗입니다. 세상의 영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인 “육체의 일”을 하게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p. 125)

적의, 분쟁, 질투(역자각주-일본어 출판물은 이미 이시기에 신세계역을 근거로 성구를 인용하였으므로 본문에도 “적의, 분쟁, 질투”라고 되어 있다. 위에서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다.)등의 세상의 영은,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각주-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에 해당.)이라고 할 만큼 중대한 죄로 간주하고 있다. 그 때문에 지도의 위치에 해당하는 감독자(장로)에게는, 회중으로부터 그 종이 나쁜 정신을 내쫓아, 성원을 보호한다고 하는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샤프로에 한정하지 않고 대부분의 회중에서, 이런 종류의 문제는 방치 되어 있다. 위치타워협회는 오로지 성원을 늘리는 것에 열심이어서, 내부의 영적 상태에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 그러면 지도자층은 실태를 모르는 것이냐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사실은 간부 클래스의 감독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루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치타워협회는 위의 진실의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는 영적낙원이 성취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의 위선적인 일면은 이 부분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4년 후의 1984년 3월, 지부 위원 파시·이즈 러브 형제가 훗카이도를 방문했다. 각국의 지부에는 통상 4~7명으로 이루어진 지부 위원회가 있으며, 그 나라의 모든 회중을 감독하고 있다. 지부 위원은 가끔 각지를 방문해 형제들과 회합을 가져, 필요한 조직으로부터의 지시를 전한다. 그 때는 장로나 파이오니아의 자격이 다루어져 정말로 자격을 갖추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점이 강조되었다.

파이오니아에 대해, 「우리의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됨」이라는 책 114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정규 파이오니아 임명을 받기 위한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연중 야외 봉사 배당 시간인 1,000시간에 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요구조건이다. … 언제나 자신이 임명되어 있는 회중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봉사해야 한다. …… 도덕 상태가 좋고 본이 되는 전도인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역자 각주- 1999년부터 이 파이오니아 요구 시간은 매달 70시간, 즉 1년에 총 840시간으로 조정 되었다.)

여호와와의 증인 사회에서는 봉사자의 입장에서 전도인, 정규 파이오니아, 특별 파이오니아, 선교인이 있으며, 파이오니아 이상은 장로나 감독자와 같이 하나의 스테이더스 심볼이 되어 있다. 「파이오니아에게 비인에 비알고」라고 하는 풍조가 있을 정도로, 파이오니아 봉사를 재촉하는 유형무형이 압력은 강하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럿 파이오니아가 되어 있다고 한 것이라도 있다. 조직도 표면과는 달라서, 실제로는 자격 운운보다는 파이오니아 숫자가 많은 것이 좋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각 회중 간에는 파이오니아 수를 경쟁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 조직도 그것을 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결정할 때는 일단, 「회중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활동하는 것, 도덕 상태가 좋고 본이 되는 전도인 이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자격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즈 러브 형제의 방문에서는 특히 그 면이 지적되어 파이오니아로서 적합한 행실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강조되었으므로, 이 방문의 바로 후, 히로시마 회중에서는 파이오니아 모임을 열었다.

「진정한 의미로 파이오니아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지시가 조직으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각각 조정을 재어 주세요. 히로시마 회중으로서는 당분간 그것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파이오니아는 거기에 동의 해, 조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중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A자매였다. 그녀는 감정의 기복이 격렬하고,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극단적이었다. 경쟁심이나 질투심, 독점욕이 강하여 인간관계의 트러블이 많은 타입이었다. 그 때문에 회중과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다.

A자매는 몇 번이나 「개선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완수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 중 1984년 9월 무렵이 되자, 카나자와 형제에게, 「사사야마 형제에게 가지만 좋은거야. 형제, 정말로 그렇게 해서도 좋은거야」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지부에 보낸 호소의 자료는 이 시기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이었다.

A자매 상태는 전혀 좋아지지 않고, 끝내 회중은 그녀의 파이오니아 자격을 문제 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일단 파이오니아를 중단 시키게 되었다.

정확히 그 당시 A자매의 사건과 병행해, 중고생 전도인들의 문제가 드러났다. 전도나 집회에 참석하고는 있어도, 마음은 이성, 연예인, 스포츠 선수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 밝혀졌던 것이다. 안에는, 책상 위에는 예능 잡지와 카세트 테이프, 교과서나 성서는 인출안이라고 하는 전도인도 있었다. 한층 더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잇따라, 회중으로서는 그러한 문제를 방치해 둘 수는 없게 되었다. 부모가 아이들의 실정을 잘 모른다고 하는 일도 큰 문제였다.

워치타워협회는, 데이트는 단순한 오락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혼 생활에 수반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전제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회중은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도움을 받아들여 조정했지만, K자매의 따님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실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윽고 1985년 봄 무렵이 되자, 외부 사람으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성서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학교에서 두목 그룹으로 불리는 것 같은 학생들과 교제하고 있다든가, 근처에서도 불량의 대기 장소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 곳에 출입하고 있다, 라고 하는 종류의 것이었다. 아무리 아이라고는 해도, 전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이상, 적합하지 않은 행실이 보고될 경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또 부모인 K자매의 파이오니아 자격과도 관련된 것이므로,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다. (가장 다음에, 「조사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상처를 입히므로 조사하는 것은 좋지 않았다」라고 말한 감독도 있어 아연하게 하게 했지만…)

거기서 K자매 부모와 자녀를 돕기 위한 모임을 열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보고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나쁜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모인 전원의 앞에서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일주일간 후에 시원스럽게 뒤집어져 버렸다.

이 일련의 문제로 K자매는 파이오니아 자격을 잃게 되었다.

이 시기, 워치타워협회는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 속히 이루리라.」고 하는 성구를 인용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파수대지에는 그 점에 관한 기사가 많이 실리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85년 7월 1일호 「평화로운 사람들은 정말로 필요합니다!-Peaceable People Are Truly Needed!」라는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되어 있다.

「True and lasting peace can be in our lives only if God's spirit causes its growth in our hearts.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양성해지지 않은 한, 우리의 생활에 영속 하는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다. ...평화를 빼앗는 것을 습관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몰아내고 있는 악의가 있는 정신은,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회중의 조화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망이 「자기 자신 중에서 싸운다」 것을 허락하고 있으므로,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쟁심이 체내에 머무는 것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화를 치고 붙이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p. 12, 14, 15)

사건이 시작되기 직전, 히로시마 회중은 「강대한 나라」를 목표로 해서, 회중 안에서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의 정신을 내쫓으며, 좀 더 생산적인 업에 임하려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성원은 이 방침에 협력하여, 회중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흐름에 아무래도 조화를 이룰 수 없었던 것이 A, K의 두 자매였다.

두 명은 우리들의 요구를 통하려고, 히츠지가 오카 회중 사사야마 형제에게 뛰어 들었다. 이
은고, 그들에게 일본 지부, 본부, 통치체가 더해져, 큰 사건으로 발전해 간다. 그러나 조직
의 체질 등의 본질적인 요인을 별개로 본다면, 이렇게 큰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도 사실은
시시한 곳에 있었던 것이다.

2장 사건의 시작

(1) 지부로부터의 속달

1985년 6월 15일 토요일 저녁, 사건의 시작을 고하는 일본 지부로부터의 속달이 도착했다.
받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편지였다.

펜실베이니아주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SC:SD1985년 6월 14일

훗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카나자와 츠카사 형제

친애하는 형제

협회는 지금, 삿포로시 히츠지가 오카 회중의 장로 사사야마 요시이치 형제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동 형제는 최근, 출장 강연에서 히로시마 회중에서 교재
하면서, 회중내의 분위기가 꽤 긴장되어 있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동시에 회중 내에서 악령
의 영향 혹은 일해에 임해서 자주 소문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회중의 향후에 대해 많이 걱
정하고 있다는 취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에 근거해, 히로시마 회중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경험 있는 장로들의 도움이 필요하
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순회 감독인 후지와라 타케히사 형제, 세노 타카시남 형제, 및 사사야마 요시이치
형제의 세 명의 형제 서에 히로시마 회중의 원조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연락을
받으실 때, 회중의 실정을 정직하게 알려 만약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면, 하느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문제의 해결을 꾀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지와라 형
제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려, 요구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관계자도 이 모임에 출석할 수 있도
록(듯이) 연락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상기대로 알려, 여호와와의 축복을 기원하겠습니
다.

당신의 형제

Watch Tower B&T Society
OF PENNSYLVANIA

이 편지의 사본: 제79 순회구 후지와라 타케히사 형제

실은 이 때 사사야마 형제가 지부에 보낸 것은 단순한 보고만이 아니었다. 그는 히로시마 회중에 대한 A, K 두 명의 자매의 호소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벌써 반년 이상도 전부터, 자매들과 함께 그 준비를 시작하고 있던 것 같다. 그것이 지부의 내밀한 지시에 의하는 것이었는지 어떠했는지는 모른다. 다만 회중을 걱정한다고 하는 주지의 보고보다는, 그 호소가 주된 것인 것은 확실한 것이다.

이 편지는, 문면을 읽는 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조직이 하나의 회중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주지의 매우 당연한 내용이지만, 문제는 그 배후에 숨겨지고 있는 것이다. 회중 내에 긴장한 분위기를 볼 수 있다든가 악령의 영향 운운이라고 하는 애매한 일이 이유로서 거론되어 그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공식상의 이유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 편지는 사실상, 처분을 위한 제일 스텝의 시작이었다.

더해 문면에는 적어도 3개의 거짓이 있었다.

1.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단정하고 있었다.
2. 도움이 필요.
도움과는 거리가 먼, 재판의 시작이었다.
3. 이 편지의 사본 후지와라 타케히사 형제
후지와라 형제에게 보내지고 있던 것은 사본은 아니었다.

형제들은 편지가 도착하기 몇 일전부터, 일본 지부가 어떠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징후가 몇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부의 움직임은 형제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사사야마 형제가 보고를 보냈다고 생각되는 날로부터 속달이 달을 때까지, 불과 5일 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치 보고를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은 민첩함에서 만났다.

(2) 회중의 대응

이 당시, 히로시마 회중의 상황은 보고된 내용과는 꽤 차이가 났다. 형제들은 회중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많은 성원도 그 쪽바늘을 기뻐하고 있었다. 회중은 활발한 상태에 있어, 왕국 회관의 건설로 향해 법인 등록의 준비, 토지의 구매, 건설의 구체안의 검토등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중의 진전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A자매였다. 자매는 비협력적인 계속 태도를 취해 마침내 히츠지가 오카 회중의 집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것은 지부로부터 속달이 달는 4일전 6월 11일의 일로이다.

이러한 경우, 조직의 결정에서는 회중의 주재 감독에게 연락이 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양쪽 모두의 회중 감독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받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에 반해, 히츠지가 오카 회중으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거기서 의심스럽게 생각한 형제들은 사사야마 형제에게 사정을 묻기로 했다. 형제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A자매는 파이오니아 자격을 잃었던 것에 대해 상담하러 왔다.
그것으로 동요하고 있으므로, 조금의 기간 히츠지가 오카 회중과 사귀도록 권했다.
히로시마 회중을 걱정하고 있다.
카나자와 형제는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이 설명만으로는, 히로시마 회중에게 연락해 오지 않았던 이유를 잘 몰랐기 때문에 6월 13일, 다시 사사야마 형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결과, 한층 더 다음 일을 알 수 있었다.

사사야마 형제는 A자매의 증언을 거의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든가, 혹은 굳이 그

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일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사야마 형제의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다.

6월 14일, 한사람의 연구생으로부터, 「A자매가 히로시마 회중을 지부에 호소하자고 선전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갔다. 사사야마 형제의 불가해한 언동과도 사리가 만나므로, 이 점을 직접, 물어 보기로 했다.

「형제, 실은 A자매가 히로시마 회중을 호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인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황한 모습)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 아시는 바입니까」

「...히로시마 회중을 호소한다든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는 히로시마 회중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회중중에서 악령의 이야기가 빈번하게 된다고, 또 장로에게 악령이 나온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지만. 형제는 A자매로부터의 정보만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호소를 채택한다고 하면 회중의 실정을 조사해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

아무래도 벌써 지부에 호소를 보내 버린 것 같다.

사사야마 형제는 법적인 일에는 남의 두배 자세하게, 무슨 일에도 신중한 사람이다. 보통이면, 그가 어떤 확인도 하지 않고 보고를 보내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아마 이번은 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있을것이다. 왜일까. 지부의 승인이 있던 것임에 틀림없다. 일본 지부가 사사야마 형제의 배후에 있는 것은, 이미 확실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형제들은, 지부로부터의 편지를 다 읽은 순간, 「이것은 배교로 정리할 생각일 것이다」라고 직감 했던 것이다. 일은 모두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진정한 동기나 목적은 숨겨지고 있다. 표면상, 원조라고 하는 명목을 내걸고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는 있지만, 본심은 어둠 안에 있다. 종교의 역사로부터 말해 권위자가 이런 스타일을 채용할 때는, 배교, 이단으로 처분하는 정평이 나 있다. 기독교 세계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져 온 패턴이다.

지부에는 임명, 감독, 결정등의 권한이 주어지고 있으므로, 그럴 기분이 들면 배교의 기준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어쨌든, 검찰관과 재판관이 함께 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이니까, 어떤 판결이라도 통과하게 된다. 판결 내용은 비밀 사항이 되어 있으므로, 조직내의 성원을 속이는 것은 간단하다. 어떻게 봐도 히로시마 회중에게 승산은 없었다.

「어떻게든 하려면, 우선 지부를 넘는 문제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통치체에 반입할 수가 있으면, 혹은 가능성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형제들은 생각했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기초가 된 것은, 5월 19일, 일본을 방문한 통치체의 성원 A·D·슈로다 형제의 강연이었다. 그 때 그는, 이사야32:1을 인용하여, 「왕 예수는 의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 통치를 진행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감독자들은 공정하게 특별한 주위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성구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

“보라! 한 왕이 의를 위하여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은 공의를 위하여 방백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공정하게 특별한 주위를 기울이지 않는 감독자들은 방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된다. 또 의를 드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은 「파수대」 지이므로, 그 의로운 표준에 반대하는 것은 왕 예수와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서 혐의를 거듭한 결과, 형제들은 진실과 공정, 거기에 파수대지에 실리고 있는 의로운 표준을 근본 방침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통치체라면 하느님의 공의에 따라서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이라고 형제들은 기대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우선 일본 지부에서 나오는 태도를 보기로 해, 다음 3통의 편지를 연속해서 지부에 보냈다. 진실과 공정을 옹호 하는 마음이 있을지 어떨지를 확인하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부의 체질을 볼 때, 후지와라 형제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편지를 보내면 반항으로 간주할 것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형제들은 굳이 지부에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1985년 6월 15일 히로시마 회중

친애하는 형제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중, 형제들에게 걱정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6월 14 일자의 편지를 받았습시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뜻밖의 기분과 놀라움을 가져 문면을 읽었습니다.

확실히 히로시마 회중으로 어떠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도 눈치라고 생각합니다만, 회중에서는 두 명의 자매에 관해서 파이오니아 봉사를 중단 하는 건을 다루었습니다. 두 명의 자매는 모두 자기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정말 동의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도움도 시도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정규 파이오니아 봉사 중지에 관한 통지」를 실시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중내의 상당한 사람들에게 밝혀져, 동요를 일으킨 문제입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정보를 알릴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그 문제를 이유로 삭제의 추천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파이오니아 자격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최근 협회의 제안에 근거해서, 정말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 일을 기본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나로서는 특별히 짐작이 가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형제들과 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하의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알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의 훌륭한 판단과 여호와의 인도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사랑과 함께

회중 내에서 악령의 영향 혹은 일해에 임해서, 자주 소문이 떠돌고 있다라는 일입니다만, 실재하는 영혼자라고 하는 의미이면, 그러한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연구생이나 몇명의 원조하고 있는 자매들의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1985년 1월 1일호 파수대 31면에 있는 것 같은 의미에서는 자주 회중에서 화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사사야마 형제에게 의미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새로운 봉사연도를 맞이해 증가의 열매를 여호와께서 풍부하게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형제들은 파수대지의 다음과 같은 기사의 정신에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1984년 11월 15일호 제2 연구 기사에 근거해서, 훌륭한 행실에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중이 보다 깨끗해질 것을 고려했습니다.

1985년 1월 1일호 13 페이지 17항에 의해, 요점을 붙은 파수대의 생각에 조화를 이루도록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1985년 3월 1일호의 연구 기사에 있듯이,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사물의 속도를 빨리 할 것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1985년 4월 1일호제일 연구 기사에 근거해, 불경건과 세상의 정신을(사람은 아니고) 회중으로부터 추방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능할까를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1985년 봄 순회대회에서 격려 받은 것처럼, 마음의 레벨로 경건한 정성을 길러, 하느님의 공의와 회중을 조화시키는 것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통치 71년째에 어울리는 의의 표준을 달성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회중의 소원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1985년 7월 1일호 12 페이지의 기사에 있듯이, 인간적인 타협의 평화롭지 않게 마음의 레벨의 평화를 회중 내에서 달성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에 따라 회중의 성화에 노력해 온 결과, 형제들은 전에 없이 잘 일치하고 있어,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왕국 회관도 토지가 발견되어 구입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어울리는, 가장 좋은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파이오니아 봉사를 격려하는 모임을 열었을 때, 매우 좋은 반응이 있어서, 4~5명의 사람이 돌아오는 봉사년도부터 파이오니아 봉사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히로시마 회중의 형제들은 편지에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히로시마 회중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명

1985년 6월 17일

친애하는 형제들

하느님의 왕국과 의를 첫 째로 두도록 언제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사야마 형제를 통해 어떠한 보고가 협회에 보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은 히로시마 회중도 고려하고 있었으므로, 그것 자체는 별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만, 내용은 실로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말씀 드렸습시다만, 좀 더 형제들에게 알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A자매에 대해

바로 최근 파이오니아 봉사를 중단한 자매입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A자매가 돕고 있는 연구생(현재는 T자매)으로부터 밝혀진 일에 기인합니다. 몇 명의 자매들로부터, 최근 T씨의 표정이 어둡고 기운이 없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통지를 받아 서적연구 사회자가 다루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A자매는 가을 순회대회의 실연에 등장한 소극자매(힘담과 욕을 하여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와 같은 종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경향을 이전부터 깨닫고 있어 자매랑 몇 번 인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특히 파이오니아로서 회중과 협조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도와 나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노력한다고 했으므로 이번이야말로 진심으로

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는 것은 아닐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사정이 있어서, 5월에 자매와 파이오니아 자격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지만, 좀 더 기회를 주고 싶다고 생각해서, 6월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개선은 볼 수 없었고, 본인도 동의 했으므로 협회에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회중내의 몇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은 파이오니아를 강판 당했다고 우겨, 비판적인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마침내 자매가 연합하고 있는 서적 연구 집회가 교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중의 동요를 막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도를 고치고 집회에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에 대해, A자매는 사사야마 형제가 있는 히즈지가오카 회중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A자매가 무엇을 어떻게 형제에게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자세한 것을 모릅니다만, 이번 보고가 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자매에 대해

K자매의 고교 3학년의 전도자의 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연구생, 및 회중에게 사귀고 있는 연구생의 아이보다, 여호아의 증인으로 불량 그룹과 교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가 높아져, 물어본 결과, 그것은 K자매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K자매에게 문의했습니다만, 아이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한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몇 명의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처음에 들은 그대로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증거를 알릴 수 있습니다.) K자매는, 나쁜 교체에 관한 인식이 크게 어긋나고 있었으므로 그 점을 가르치면서 도왔습니다. 우리의 관찰에서는 여호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순수하게 도덕적으로 봐도 많이 문제가 되는 교체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후, K자매나 딸도 모두, 나쁜 교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자매의 아이는 A자매와 함께 히즈지가 오카 회중과 연합하기 시작해 자매도 몇 차례 참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사야마 형제와 처음부터 서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6월 2일, 사사야마 형제는 「가족 간에 그리고, 하느님과 의사소통」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이었고 매우 격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회중성원들도 형제의 이야기에 매우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 구축하는 평화적인 집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의 의의 싸움에 의한 긴장감이라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불화나 분쟁에 의한 긴장감이라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사야마 형제가 그 집회를 편지의 문면과 같이 보고 있었다고는 완전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사사야마 형제의 지극히 주관적 관찰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협회로부터 편지를 받기 전에 사사야마 형제와 연락을 해, 두 명의 자매들과도 서로 이야기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K자매는, 따님밖에 사사야마 형제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주로 A자매로부터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문의도 없고, 사실인가 어떤가의 확인도 없었습니다. 사사야마 형제 자신도 한편의 측에서의 정보 밖에 얻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자매는 돌연 울거나 웃거나 화내거나 정서가 불안정한 자매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협회에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 아닐까요. 라고 말해도, 아무것도 우리는 우리들이 다루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다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바쁜 형제들의 시간으로 노력을 빼앗는 것은 마음이 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명의 자매들이 사사야마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히로시마 회중과 협력해 회복하도록 도움주시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야마 형제가 이와 같이 다루는 데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도 적절히 취급하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것처럼 성서적으로 통치체의 정신에 따라, 신속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솔직하게 말해 히로시마 회중의 증가의 큰 방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을, 형제들에게 알리며, 여호와의 인도와 축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사랑과 함께

1985년 6월 18일

친애하는 형제들

가까워지는 대회의 준비에 바쁜 가운데, 걱정을 끼치고 몹시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의 신경써에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건은, 장로회끼리 협력해 그 일에 종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으면 그러한 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사야마 형제가 말씀하시는 원조와는 아무래도 그러한 이유는 아니게 받아들입니다만, 지원을 해 주실거라고 말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소원도 1개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아래 사라지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되었던 지원하는 세 명의 형제들을 가능하면 전원, 그것이 무리라면 적어도 세노 형제와 사사야마 형제의 두 명은 다른 분들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간단하지만, 부탁하는 이유입니다.

사사야마 형제

사사야마 자매는 A자매의 연구 사회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물으려고 생각하면, 혹은 문의하려고 생각하면 얼마에서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협회로부터 편지를 받기 이전에 정식적 연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사야마 형제는 히로시마 회중의 취급 방법으로 의문으로 생각하는 취지를 이야기해 주셔, 우리도 이해해 주시길 바르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제는, 「알았다」라고 말하셨지만, 어떤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또 이번 연락 중에서, 물론 겸손한가 농담으로 말씀하셨던 것 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는 반항적인 영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괴로워하며 고심했던 한 가지는 A자매의 반항적인 정신입니다.

세노 형제

세노 형제는 「히로시마 회중은 대접의 정신이 부족하다」라고 매회와 같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얼마인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말해 주셨습니다가, 선회도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연구생이 같이한 식사교제에서, 대접에 대한 불만을 입으로 나와 당황했다, 라고 어떤 자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숙소를 제공한 형제는, 조금도라고 없 그렇다고 노력했는데, 봉사의 나보다 훨씬 좋다, 라고 말해지고 놀랐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집회가 종료하면(자), 회중의 성원이 열을 만들어 답례하러 오는 것이 요구되어 히로시마 이외의 다른 회중에서는 거의 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졌습니다. 확실히 후대하는 정신은 많이 필요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우리도 생각합니다만, 이와 같이 되면 도대체 누구의 영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집회나 봉사는, 우선 누구를 찬양하기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봄의 대회의 자발 봉사로, 히로시마 회중은 대회 전날, 대회장 청소를 했습니다. 스테이지를 청소하고 있었을 때, 세노 형제가 싱글벙글 하면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원 히로시마 회중의 형제자매인 것을 알자 얼굴을 외면해 다른 편으로 가 버렸습니다. 세노 형제에게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만, 형제자매들은, 「히로시마 회중에게 세노 형제가 개인적인 반감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지와라 형제

K자매에 의하면, K자매는 후지와라 형제나 자매의(분명히 모릅니다만) 연구생이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야마 형제로부터 6월 17일 오전 10시에 히츠지가 오카의 왕국 회관에 오도록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 협회의 판단을 들이키고 싶고, 기다려 주는 일로 했습니다. 이 연락으로부터 판단하면, 모임은 단지 원조를 위한 것은 아니고 청문의 성질을 띠었지만 같게 받아들입니다. 더해 사사야마 형제로부터는, 평범치 않은 영을 느껴 방법이 없습니다. 히로시마 회중을 걱정하고 있는 것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분위기가 전해져 옵니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배후에 무엇인가 불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지나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입장도 권위도 아무것도 없고 무력하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부디 알아 주셨으면 한 것은, 우리는 진심으로 파수대지를 통해 나타나는 여호와의 예언의 싸움을 추천해 오면 이러한 진전이 되어 버려, 아직 현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숨김없는 솔직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모

임이 사범모임을 포함하고 있다면, 왕국 통치 71년째 드높여진 의로운 표준으로 다루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협회에 막대한 폐를 끼칠지도 모릅니다만, 우리의 소원을 물어보시면 다행입니다.

여호와 하느님의 과분하신 친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사랑과 함께
홋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3장 사건의 배경

(1) 사건의 계기

자매들이 장로에 관한 호소를 직접 지부에 보냈을 경우, 통상적으로, 그 편지는 순회감독자에게 돌려보내서 순회감독자가 그 문제를 취급하게 되어 있다. (순회감독자는 약 20개의 회중을 감독하고 있는 형제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처음부터 도시감독자와 순회 감독자가 승인해 직접 지부에 호소를 보내고 있다. 이런 일은, 지부의 지시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최초부터 지부가 사건에 개입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사건을 일으키는, 보다 큰 동기는 일본 지부에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러한 사건을 일으켰는지, 왜 하나의 회중을 희생하는 것 같은 일까지 해야 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생각되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도 아직 잘 모른다. 할 수 있으면 자세한 사정을 지부에게 들어보고 싶다.

1985년 8 월 초순, 도쿄 세타가야 회중 하세가와 형제로부터 카토 자매덕에 전화가 왔다. 그것에 따르면 카나자와 형제는, 3년 정도 전부터 주목할 수 있고 있어 동안들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3년 전이라고 하면, 카나자와 형제에게는 다음 일정도 밖에 짐작이 가는 것이 없는 것 같다.

1982년 3월, 카나자와 형제는 카나가와현 에비나시에 있는 일본 지부를 견학했다. 위치타 워협회는 법인단체로서 독자적인 인쇄 시설을 가지고 있어 사무동, 공장,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를 총칭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때 친구 오오코시 형제의 주선으로, 베델의 점심식사 모임에 초대되었다. 다이쇼쿠당으로 우연히나름대로 앉은 것은 오다 신지 형제였다.

「형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홋카이도의 히로시마에서 왔습니다.」

「홋카이도 출신입니까.」

「아니요, 임명받아서 히로시마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특파이신지 무엇으로」

「예, 그 때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중단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베델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게 말하면, 여쭙 봐도 좋은지 어떤지」

「아니-상관없어요.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쁠 것입니다. 빨리 새로운 성서가 나오면 좋겠네요. 큰일이 지 않습니까. 용어가 바뀐 곳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곳입니까」

「분명히...고린도 첫째 9장 27절의 “친다”가 “pummel”로 되었어요.」

「자세하게 조사했습니다. 원래는 어떤 말이었습니까.」

「네-로 뭐라고 했는지요.」

「비트(beat)입니까」

「아니 확실히, 단순히 beat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만」(browbeat가 바로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 오오코시 형제가 끊임없이 눈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맛이 없네, 맛이 없다」

그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거기서 화제를 바꾸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일본어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표현이 많이 있는 것이군요..」

「어떤 곳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역시 옹기군요. 거기는 정말로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어 번역이 나오는 것이 기다려지네요..」

이 후, 대화는 중단되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도, 오다 형제는 앉은 채로 침묵을 지켜 가만히 앞을 응시해 무슨 일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오오코시 형제는 방으로 돌아간다고 재빠르게 말했다.

「그건 안 돼..」(이 정도로 왜 「맛이 없다」의 것인지, 아마 외부의 사람은 모를 것이다)

「어제서」

「그를 모르는 거야? 베텔 1의 수완가라고 말해지고 있어」

「누군데」

「오다 형제(일본 지부의 대표자)의 동생이야」

「그런가...」

오오코시 형제에 의하면, 오다 신지 형제 눈 밖에 나면 베텔에 있는 것은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다.

(2) 문제의 편지

하세가와 형제의 전화로부터 하나 더 알았던 것은, 카나자와 형제가 통치체에 보낸 편지가 사건의 원인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증명같은 몇 개의 발언이 있다.

1985년 7월 11일의 목요일, 후지와라 형제는 카나자와 형제와 서로 이야기했을 때, 본부로부터의 대답을 봐, 「이것입니까. 이것이 문제였군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게다가 1987년 3월 아카히라 회중의 감독, 이시구로 형제는 오시키리 자매에게로의 전화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카나자와 형제가 본부에 편지를 쓴 것은 매우 나쁜 것이다」.

그러나 공식상은 그렇지 않다. 조직의 결정에서는 본부에 편지를 써도 좋다고 하는 것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의 파이오니아 봉사 강습에서 순회 감독자 카사이 형제는, 「본부에 편지를 써 질문할 수도 있어요..」라고 말해 대답을 받은 사람의 경험까지 소개하고 있다.

카나자와 형제는 거기에 격려 받고 1982년 12월, 예언과 교리에 관한 7개의 질문을 통치체 앞으로 보냈다.

<그 중의 1개 >

「다니엘12:1의 “그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12:1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때에 네 민족의 아들들을 위하여 서 있는 큰 군왕,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이래 그때까지 있었던 적이 없는 고난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바로 앞의 다니엘11:40~44에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마지막 항쟁이 예언 되고 있다. 위 치타위협회는 미카엘이 일어선 해를 1914년으로 하여, 북방왕과 남방왕과의 마지막 항쟁은 향후도 계속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라는 말이 앞의 설명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간적으로 모순되게 된다. 왜냐하면, 미카엘이 일어설 때는 북쪽의 왕이 멸망할 때여, 그것은 동시에 큰 환난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14년에는 큰 환난도 북쪽의 왕의 멸망도 생기지 않았다. 이 때의 엇갈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때의 통치체로부터의 대답에 대해 카나자와 형제는,

「상기의 다니엘서에 관해서는, 납득이 가는 설명은 얻을 수 없었지만, 일견 모순되고 있다

고 생각되는 것의 상당수는 관점이나 지점을 바꾸는 것에 의해 설명 가능하게 되는 것이 시사되고 있어 성서 이해의 시야를 넓히는 점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호의 1987년 7월 1일호에는, 다니엘서에 관한 최신 해설이 게재되었다. 그것에 따르면 다니엘 12장 1절에는 「선다」라는 말이 2회 이용되고 있으므로, 예수는 1914년에서, 한층 더 장래의 큰 환난때에 선다, 라고 하는 상태에 설명되고 있다. 이 기사가 카나자와 형제의 편지를 염두에 두고 있을지 어떨지는 확실하지 않겠지만….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덧붙이면, 카나자와 형제가 통치체로부터의 대답을 일본 지부 경유로 받았을 때, 봉투가 벌써 열리고 있어 그 표에는 빨강 연필로 체크한 흔적이 남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는 일본 지부에 질문을 보냈다. 그것은 워치타워협회 발행의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의 2개의 점에 관한 것이었다.

(1) p. 138, 16장 12항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되고 있다.

「그러면 사단은 언제 하늘에서 쫓겨나 그 “짧은 기간”에 땅에 고난을 가져오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정부는 언제 그 통치를 시작하였습니까? 성서는 대답해 줍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밀줄은 워치타워협회에서)

(번역자각주-일본어 출판물은 밀줄표시지만 한국어출판물은 이탤릭체로 표시되어있음.)

p. 138을 보면 「하나님의 정부가 그 통치를 시작한 때」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어, 거기를 읽어 가면 하나님의 통치는 기원 1914년에 시작했다고 기록되고 있다. 12항의 병행 기술로부터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1914년에 시작한 것이면, satan의 하늘로부터의 추방도 1914년에 시작한 것이 된다. 것처럼 이해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제일의 질문이었다.

(2) p. 148, 18장 1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하늘로부터 쫓아내시고 왕국 통치를 시작하셨을 때 그것은 사단과 그의 악한 제도의 끝이 가까웠음을 의미하였습니다. (계시 12:7-12)」

워치타워협회는, 예수·그리스도의 왕국 지배와 사단이 하늘로부터 내쫓아진 시간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수·그리스도는 1914년 10월 무렵에 하늘에서 왕국 통치를 시작했다. 그 최초의 일로서 하늘의 대청소를 실시해, 수개월부터 늦어도 1918년까지는, satan를 하늘로부터 추방했다. 이 설명은, 계시12: 5-12절의 기술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p. 148, 1항의 기술에서는, 우선 satan가 하늘로부터 내쫓아져 그 후 예수께서 왕국통치를 시작한 것이 되어 버린다. 이 대로 받아들여도 좋은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2번째의 질문이었다.

지부로부터의 대답은 완전히 기대 이하의 것이었다.

=====

펜실베이니아주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SE: SJ1983년 2월 12일

훗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카나자와 츠카사 형제

친애하는 형제

당신으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다」책의 설명에 관해서 문의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138 페이지, 12절에 있는, satan가 처음부터 쫓겨났을 때와 하나님의 왕국이

그 지배를 개시했던 시기를 같은 시기라고 취할 수가 있을지 어떨지에 관하여서 묻고 계십니다.

이 장은, 엄밀하게 몇년 몇월 몇일무렵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요소에 주목하는 대신에, 오히려 신의 왕국의 지배의 개시와 그것이 하늘 및 땅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붙여, 계시의 예언을 해설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2절로 「satan는 언제 처음부터 내쫓아져 쫓을 때의 사이 지상에 고난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신의 왕국은 언제 지배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성서는 이것에 대답을 주고 있을까요」라고 질문이 제기되어 141 페이지의 상단에 설명되고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1914년에 하나님의 하늘 정부의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했던 것이 대답으로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8 페이지의 제1항에 진술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하늘로부터 쫓아내시고 왕국 통치를 시작하셨을 때」라고 하는 기술도, 시간적인 요소에 주목한 것은 아니고, 계시 12장에 기록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덧붙여 계시 12장 13절 및 17절에 대한 설명은, 「회복비의」 책 21장 중 에서 자세하게 논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디조사해 주세요. 덧붙여 하늘의 왕국의 성원이 되는 제일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시기에 대해서는, 그 성서적인 근거가 「파수대」지 1979년 10월 1일호의 제3 연구 중(안)에서 해설되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조사해 주셨으면 싶다고 생각합니다. 상기대로 대답해, 여호와와의 축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당신의 형제

Watch Tower B&T Society
OF PENNSYLVANIA

이 해답에 의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책의 해설은 「시간적 요소에 주목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책의 16장 12항 에는, 「사단은 언제 하늘에서 쫓겨나…하나님의 정부는 언제 그 통치를 시작하였습니까?…」라고 나와 있어 「언제」 아래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역자각주-한국에서는 줄여서 “지상낙원책” 혹은 “원책”으로 불리운 책이다. 아마도 일본어판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는 듯하지만 한국어판에는 이탤릭체로 되어있다.)

이 언더라인은 분명하게 시간적 요소에 주목시킨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길 필요가 없다. 게다가 그 후에는 1914년의 의미와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장의 주제와 그 흐름겨자라고, 12절의 이 질문의 대답을 1914년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을 「시간적 요소에 주목한 것은 아니다」란, 대답에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완전한 궤변이었다.

그런데 본부로부터 대답을 받아 반년정도 끊었을 무렵, 카나자와 형제는 있는 친구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해졌다.

「베델에서 평판이 안 좋아.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어. 조금 조심해)」.

한층 더 순회 감독을 하고 있는 친구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받았다.

「지부는 머리 너머로 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본부에 편지를 쓰는 것은 위험하다. 그만두는 것이 좋아. 순회 감독자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회중의 기록에는 남지 않는 서류도 있다. 좋지 않는 것이 보고되면, 우선 이제 특권은 오지 않아」

그렇게 말해져 보면, 카나자와 형제도 이런 비밀의 편지에는 대단히 불쾌한 감정이 들게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다. 있을 때, 지부로부터 「긴급하게 이동하도록」하는 통지를 받아, 매우 놀랐다. 반달(정도)만큼 전의 순회 감독과의 대화로, 건강상의 이유나 회중의 상황으로부터 이동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선 순회 감독에게 직접 물어 보았는데, 「협회에는 시급하게 이동시키고 싶은 사정이 생긴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제의 상황이나 희망은 잘 알았으므로, 협회에 것처럼 전해 줍시다」라고 하는 대답이었다. 거기서 카나자와 형제도 자신의 사정을 전하는 편지를 지부에 내기로 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일의 형편이 모두 판명되었다. 협회의 편지에는, 「순회 감독은 열심히 이동을 권해 긴급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려오고 있습니다.」라고 기록되고 있

었다. 즉 그 순회 감독은 카나자와 형제에게 이야기한 일과는 완전히 다른 보고를 지부에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평상시 일본 지부는 이러한 비밀의 편지의 교환을 하고 있으므로, 「편지」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신경질적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여러가지 워치타워협회의 문제점을 알아차리면서도, 당시 카나자와 형제는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다. 「언젠가 시기가 오면 워치타워협회의 체질도 개선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든 할 때까지 우선 점잖게 하고 있자, 가만히 하고 있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아무래도 통치체에게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어, 1985년 2월, 카나자와 형제는 2번째의 편지를 본부에 보냈다. 지금까지와 같이 일본 지부 경유로 대답이 보내져 오면, 더욱 더 감시받게 되므로, 대답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파수대지면에서 대답해 준다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3월 하순, 예상에 반해 본부는 대답을 배웅하고 왔다. 조직의 결정대로 일본 지부 경유로. 아마 지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 대답은 아닐까 생각된다.

(사건부 원문에는 이 편지의 일본어 번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를 위해서 간단하게 번역합니다.)
=====

뉴욕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집필부

미국 뉴욕 브루클린 콜롬비아하이츠 11201 25번지. 전화(XXX) -XXX-XXXX

1985년 3월 21일 EF:ESA

카나자와 츠카사형제

친애하는 카나자와 형제

1985년 2월 9일자로 보내주신 친절한 편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약 2년 전의 우리 편지가, 형제께서 생각하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형제의 편지에도 있듯이, 모든 여호와의 백성은 영적으로 성장해, 우리들의 하늘의 아버지인 여호와와의 관계에 대해 계속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때, 우리의 여호와에게로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소식」의 전도와 양 같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끄는 길을 배우는 것을 돕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온 세상의 도처에도 경험되고 있는 것과 같게 일본에서도 경험되어 집에 있으면서 없다고 함 분해해 있고 진보와 증가를 봐 형제와 함께 기쁨. 여호와는, 확실히, 자신의 백성이 우리에게 맡겨진 기능에 대해 진진하는 것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형제와 친애하는 형제의 부인께서 충실히 여호와를 섬겨 여호와의 새로운 제도에서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함께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인

뉴욕 주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4장 사건의 진전

(1) 세 명의 지원자와의 회합

지부로부터 속달이 달아 이를 후의 6월 17일, 사사야마 형제로부터 수요일에 원조를 위한 모임을 열고 싶다는 연락이 있었다. 카나자와 형제는, 회합이 일중이기 때문에 일의 조정 등의 문제가 있어, 즉답 할 수 없는 취지를 전했다.

그러자(면) 다음날, 사사야마 형제는 토요일라 회중의 감독, 쿠와바라 형제를 동반해, 집회에 왔다. 사사야마 형제는 형제들한사람 한사람에 편지를 건네주었지만, 눈은 핏발이 서, 손은 희미하게 떨고 있었다. 작은 아이들조차 그 이상함을 알아차리는 만큼에서 만났다.

1985년 6월 17일

삿포로시 토요일라구 XXXXXXXXXX

왕국 회관 전교

후지와라 타케히사

친애하는 형제들

(카나자와 츠카사 형제, 야나기무라 카즈미 형제, 미야자카 마사시 형제, 오시키리 히로시 형제, 토비타 에이지 형제, 야와타 코지 형제)

6월 19일 오전 10시 삿포로시 토요일라구 XXXXXXXXXX 왕국 회관에서 회중의 사정을 먼 바다 기사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석 해 주시도록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의 형편등으로 상기의 시간에 모일 수가 없을 때는, 1~2시간 늦어도 출석 해 주시도록(듯이) 추천합니다. 또, 아무래도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사사야마 요시이치 형제(XXX-XXXX)에게 그 취지 알려 주세요.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들 위에 여호와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일부러 편지를 가져온 것일까. 정말로 지원이라면 편지로 호출할 필요는 없다. 보통, 편지로 호출의 증명을 만든다는 것은, 심리 위원회를 열 때 실시하는 방법이다. 사법 위원회(청문회)란, 조직의 성원이 중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확증 되었을 경우, 복수의 심리 위원에 의해 열리는 모임이다. 지원 이상의 목적이 없으면 호출의 증명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본 지부가 사법 위원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집회가 시작되고 나서의 두 명의 행동도, 그것을 풍길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날의 강연자는 카나자와 형제였지만, 그들은 강연의 줄거리를 가지고 와, 둘이서 머리를 맞대어 강연을 체크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마 골자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지 조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배교의 증거를 찾고 있던 것이 된다.

이러한 징후를 봐, 형제들은 모임의 의미를 한정하려고 생각했다. 성서적으로는 사법판결도 제명도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원이 그러한 광의의 의미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통 말하는 단순한 지원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회 후에 후지와라 형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전화로 말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자신은 이번 사건에 관해서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물을 공정하게 취급한다.

1시간이라도 졸으니까 출석하기 바란다.
모임은 어디까지나 지원이며 청취는 아니다
사사야마 형제의 보고가 중상이라면, 그 호소를 채택해도 괜찮다
자신은 늦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전 10 시경까지 와 준다면 좋겠다.

사법 위원회를 위한 청취는 아니라고 하는 확약을 얻었으므로, 형제들은 히츠지가 오카 회
중의 왕국 회관에 나갔다. 그러나 문을 열고 안에 들어선 순간, 「이것은 이상한, 이상하
다」라고 느꼈다고 한다. 형제들이 본 것은, 벌써 아침부터 세 명에서 면밀하게 협의를 하
고 있던 것 같은 광경이었다.

테이블의 세팅도 이상했다. 「아무래도 이상한, 이것은 청취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
면서 형제들은 착석 했다. 대화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그 인상은 더욱 더 강한 것이 되어
갔다. 실제로 모임은 우려하고 있었던 대로, 지원과는 거리가 먼 신문을 위한 것이었다. 무
엇보다, 후지와라 형제의 의식에서는, 그런데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것 같아서는 있
지만…

사법 위원회를 위한 청취는 아니라고 하는 확약을 얻었으므로, 형제들은 히츠지가 오카 회
중의 왕국 회관에 나갔다. 그러나 문을 열고 안에 들어선 순간, 「이것은 이상한, 이상하
다」라고 느꼈다고 한다. 형제들이 본 것은, 벌써 아침부터 세 명에서 면밀하게 협의를 하
고 있던 것 같은 광경이었다.

테이블의 세팅도 이상했다. 「아무래도 이상한, 이것은 청취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
면서 형제들은 착석 했다. 대화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그 인상은 더욱 더 강한 것이 되어
갔다. 실제로 모임은 우려하고 있었던 대로, 지원과는 거리가 먼 신문을 위한 것이었다. 무
엇보다, 후지와라 형제의 의식에서는, 그런데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것 같아서는 있
지만…

모임의 마지막의 (분)편으로, 카나자와 형제는 사사야마 형제에게 물었다.

「어째서 형제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사실의 확인도 하지 않고 보고를 보냈는지
요. 진실과 다른 것을 공으로 하면 중상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 집회에 갔을 때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처럼 생각했다…에서는 것처럼 생각한 것만으로 보고를 보냈습니다, 라고 카나자와 형제
가 말하려고 하자, 재빠르게 후지와라 형제가 도움배를 냈다.

「조직의 결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형제들은 모를지도 모릅니다만, 사사
야마 형제는 형제들을 걱정했습니다」

지역 감독이 감싼다면, 이미 무엇을 (들)물어도 쓸데없다.

모임의 마지막 해프닝. 돌아갈 때, 현관에서 지원자의 대표자 후지와라 형제, 카나자와 형제
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취해 가라사대,

「형제, 이것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생각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없었던 탓일 것이다.

모임이 끝나고 히로시마에 돌아오고 나서.

「조금 보았는지. 그 세노 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지, 책상아래로부터 보였어」
「그렇게 자주, 「여기는 취급하지 않아 좋습니까」라고 물어 「그것은 다음에」 후지와
라 형제에게 야단맞아, 작아지고 있었다 곳이었지」
「감시받고 있었던 것이군요-」
「그 편지, 길지 않았는지. 우리 것보다는, 어쩐지 이미 2단 정도 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워, 글썄. 틀림없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지부의 그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구나. 그들의 편지에는 무엇인가
덧붙이고 썼다」
「아마 그래. 무엇을 썼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줄거리와 같은 것이 아닐까」

다음에 안 것에 의하면, 그 일부에는 형제들의 장로·봉사의 종 자격의 삭제를 검토하도록 하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회중에게는, 장로(감독자) 외에, 장로들을 도와 회중의 여러 가지 업무를 완수하는 봉사의 종이 임명되고 있다. 위치타워협회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감독자들에게는 성경적으로 높은 표준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승배를 인도하고 그리스도인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할 심각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감독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성경적 요구 조건들을 기술하였다. 디모데 첫째 3:1-7에서 그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어떤 사람이 감독자의 직분을 얻으려고 힘쓰고 있다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자는 책잡힐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습관이 절도 있고, 정신이 건전하고, 질서 있고, 후대하고, 가르칠 자격이 있고, 술에 취하여 떠들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호전적이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안을 훌륭하게 다스리고, 자녀를 매우 진지하게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도 다스릴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회중을 돌보겠습니까?) 새로 개종한 사람은 안 됩니다. 교만으로 우쭐해져서, 마귀에게 내려진 심판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외부 사람들로로부터도 좋은 증언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난을 받지 않고 마귀의 울무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회중의 감독자보다 지역감독자나 순회감독자에게는 보다 높은 표준이 요구되고 있다. 그들은 이 면에서 모범적일 것이 기대되고 있다.

(2) 모임 그 이후

6월 21일 (금)

6월 20 일자의 지원자로부터의 편지가 도착한다.

1985년 6월 20일
삿포로시 토요히라구 XXXXXXXX
왕국 회관 전교
후지와라 타케히사, 세노 타카시남, 사사야마 키치

친애하는 카나자와 츠카사 형제

언제나 히로시마 회중이 진정한 평화 가운데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 한사람 떨어지고 떨어지는 일 없이 생명의 길을 계속 걷도록 함께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월 19일의 대화를 통해서 공통의 이해가 깊어진 것을 기꺼이 있습니다만, 더 약간의 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먼 바다 기사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세속의 일등을 조정되어 오셨으므로, 충분히 시간이 없었던 (일)것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오후 8시, 삿포로시 토요히라구 XXXXXXXX 삿포로 히츠지가 오카 회중의 왕국 회관에서 모임을 갖기 원하므로 출석 하시도록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을 알리며, 충성스러운 여호와의 백성 모두 위에 풍부한 인도와 헤이안이 있도록.

여러분의 형제

그에 대해, 「모임의 목적, 내용, 성질을 분명히 해 주시면 출석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낸

다.

1985년 6월 21일

친애하는, 후지와라, 세노, 사사야마 형제

히로시마 회중의 평화를 걱정해 주시는 형제들의 신경써에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임명된 목자의 한사람으로서 또 거기에 협력하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양이면 누구하나 떨어지고 떨어져 버리지 않게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1984년 10월 15일호p. 21, 11항에 있듯이 천군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체에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완전히 별도입니다만.

6월 19일의 대화를 통해서 공통의 이해가 깊어져 받을 수 있던 것 같아 우리도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덧붙인다면 이번 문제의 진인은 A, K 두 자매의 불평, 불만의 정신에 있어, 형제들과의 개인적 문제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면 회중은 느끼고 있어 확실히 1985년 7월 15일호p. 22의 기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대로입니다. 할 수 있으면 이러한 공통의 이해도 얻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도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말하도록(듯이) 후지와라 형제는 격려해 주셨습시다의로 우리의 6월 19일의 모임으로부터 느낀 기분을 솔직하게 말하게 해 주셨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표면은 지극히 우호적이었습니다만 마음은 전혀 몰랐습니다.
- (2) 사실 확인의 방법이나 방향이 꽤 자의적이며, 관점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3) 파수대지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드높여진 의로운 표준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한층 더 형제들과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 건설적 이유를 찾아내는 것에 곤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회중의 평화와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 받을 수 있다면 살그머니 해 두어 주시는 것이 제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6월 23일의 모임의 명확하고 구체적 사항과 목적을 알려 주시면, 그 후로 또 답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모임이 강행되는 것 같다면, 우리는 거듭 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일본 지부에 사건의 진상을 알리면 좋겠다고 말하는 다음과 같은 탄원의 편지를 보냈다.

1985년 6월 21일

친애하는 형제들

일본에서도 마침내 10만 명을 넘는 전도인이 야외에서 일하게 된 것을 알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더해지는 새로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도 일본 지부와 협력해 강대한 나라를 목표로 해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6월 15일에 편지를 받은 이래,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몇인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부디 가르쳐 주셨으면 하게 편지를 쓰는 것에 했습니다.

- (1) 이번 주의 수요일 10시부터 히츠지가 오카 회중의 왕국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 출석했습니다. 회중의 사정을 물어 주신다는 것이었지만, 도저히 지원을 위한 모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질은 청문회와 아무런 변함없으면 우리는 느껴 왔습니다. A자매는 회중을 호소한다고 선전 하고 있었으므로, 아마 그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K자매는 전에도 썼듯이, 그러한 일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호소는 다루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진전이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사사야마 형제는 우리에게 전할 수 없는 지시가 협회로부터 나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을 사사야마, 후지와라 형제에게 물었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협회의 지시대로 취급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용통 돌려줄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흐름에 이르는 지시는 모두 협회로부터 나와 있게 됩니다. 우리도 부디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일의 전체를 모르면, 여호와에 대한 증절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두 명의 자매의 정화를 진행시켜 온 결과, 회중은 전에 없이 일치하여, 기쁨과 평화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요일에 돌연, 사사야마, 쿠와바라 두 형제에게 보일 수 있었습디만, 집회 후에 인정해 주셨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바람을 물어보시면 다행입니다. 보다 풍부한 진리의 빛에 비추어져, 여호와의 의가 더 한층 더 진행되는 것을 기원 합니다.

그리스도인사랑과 함께
훗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이 편지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

(3) 지부로부터 온 2통의 편지

6월 22일, 지부로부터 2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세 명의 지원자의 변경을 신청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었다.

펜실베이니아주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SC:SD1985년 6월 21일

훗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카나자와 츠카사 형제

친애하는 형제

당신과 수명의 형제의 서명의 첨부 된 6월 18 일자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당신과 봉사의 중을 포함한 몇 사람인가의 형제들은, 협회가 지원을 의뢰한 세노 형제와 사사야마 형제를 할 수 있으면 제외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지금까지, 구멍이 대표하는 그룹으로부터 3통의 편지를 받았습디만, 그 편지의 내용은 결코 건전한 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협회가 당신에게 보낸 6월 14 일자의 편지를 한번 더 봐 주세요. 사사야마 형제는 히로시마 회중과 직접 사귄 기회를 가져, 스스로 관찰한 일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정보에 근거해, 굳이 협회에 알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판단 하셨습니다. 통상은, 이러한 문제를 회중을 방문하는 순회 감독이 취급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원숙 해 경험을 쌓은 장로서에 협회가 직접 지원을 의뢰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기의 편지 중에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에 근거해, 히로시마 회중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디만, 경험 있는 장로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기록되고 있는 대로입니다. 이러한 형제들은, 사법 위원과 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회중의 실정을 공평하게 안 다음 지원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지시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러한 형제들의 지원을 기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당신과 몇 사람인가의 형제들은, 세노 형제에 관계되어 다양한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왜 좀 더 빨리 당사자와 직접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디까. 당신과 형제들의 그룹이 순회 감독에 대해, 이러한 견해를 안고 있다고 하면, 7월 초순으로 예정되

고 있는 순회 방문으로부터 도대체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상과 같은 이유에 근거해, 협회는 히로시마 회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명한 세 명의 형제들을 변경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이 회중의 실정을 알아, 만약 아무것도 문제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모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편, 만약 무례한 상황이 발견해진다면, 이것들 형제들을 통해 주어지는 성서에 근거한 건전한 견해는, 여러분이 향후에 충절로 걷는 일을 완수해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정을 베풀어 주는 것이 되겠지요. 아무쪼록, 지명된 세 명의 형제들에게 아낌없는 협력을 나타내, 우리들의 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소유해 우리를 빙자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회중이 건전한 상태를 유지해 갈 수가 있도록 계속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상기대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Watch Tower B&T Society
OF PENNSYLVANIA

추신:이 편지를 서명한 다른 5명의 형제들과 함께 읽으시 주세요.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마자, 미야자카 형제가 돌연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역시 너구리예요」

「어째서」

「3행째의 곳. 여기 읽어 봐. “구멍이 대표하는 그룹”이 되고 있어”가 빠지고 있을 것이다」

「정말이다. 무려…」

「드디어 자신으로부터 정체를 나타냈다」

“빠지는 별개로, 주목 해야 할 것은, “구멍이 대표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표현이었다. 이것은 벌써 형제들을 배교자로 간주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룹”취급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고, “당신의 회중”이 될 것이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 형제들은 단순한 “그룹”이 아니라 “회중” 성원이었다. 편지도 “그룹”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회중”에게 보낸 것이다. 뜻밖에 지부의 본심이 나와 버렸다고 하는 것으로 있을것이다.

이 편지에 의해, 형제들은 이미 무엇을 탄원해도 쓸데없다고 느꼈다. 보낸 편지의 요지나 의도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지부가 명확하게 해야 할 조직상의 문제도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무엇보다 알고 있어, 굳이 그렇게 해서 있다고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는 있지만.

이 대답으로 보고, 탄원의 단계는 종료했다.

(4) 통치체에의 길

6월 22일, 토요일, 후지와라 형제로부터 전화가 있었다. 그들은 이번 문제를 장로와 개척자의 개인적인 트러블로서 처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 게다가 악령에 매달려져 배교한 장로와 조직에 따르려고 하는 자매들이라는 도식에서, 그 증거를 모을 수 있도록, 안들로 히로시마 회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잘 가지 않고, 궁지 상태에 빠져 있던 것 같다. 그는 순회 방문 때,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좋을지 몰랐다」라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직접 전화를 해 온 것은, 그러한 사정에 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후지와라 형제는, 그야말로 재미있지 않을 것 같은 상태로 이렇게 잘랐다.

「형제,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파수대지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지요. 거기에 천사들의 군대는 천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자형제들은, 그 자매들이 천군에 의해 회중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까」

「별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단지 그렇게 말하는 자세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대지의 가르침이나 정신에 따라 취급해, 그 결과 나가게 되었다면 천군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 파수대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었다. >

「천사들은 누가 여호와와 참된 종들이며, 누가 거짓 종들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폭로되어 참 그리스도인 연합체에서 제거되게 할 상황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1984년 10월 15일 p. 22)(번역자각주-한국어는84년8월15일호19면)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형제들은 좀 더 사랑을 나타내야 했던 것이 아닙니까. 좀 더 칭찬해 격려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단계는 벌써 끝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자매들의 문제는 일 년이나 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사랑을 나타낸다고 해도, 뭐든지 허용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해진 것은 처음이네요. 자의적과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형제들의 말은 대단히 (들)물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까요. 우리는 다만 질문에 답했을 뿐입니다만」

「그렇다면, 형제들은 이제 모임에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편지에도 썼습니다만, 모임의 목적을 확실해 주시면 참석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1개(살)과는 봐도, 의미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어긋날 뿐이지요. 그것을 하나하나 행해 가게 되면(자) 방대한 시간이 걸립니다만, 과연 거기까지 하는 필요성이 있을지 어떨지...」

그는 끊임없이, 「사실은 하고 싶지 않다. 대회의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손을 잡아 당기고 싶다. 협회의 지시이므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 또 끝나의 (분)편으로, 「나는 지금, 협회에 보내는 중간보고를 쓰고 있는 중(곳)입니다만, 아직 반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의 반을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있는 중(곳)입니다만...」 이라고 말해, 형제들의 태도 나름으로는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을 암시했다.

그 후 조금 끊고 나서, 미야자카 형제가 K자매의 위증에 관한 심리에 대해 전화를 했는데, 「나도 지역 감독이지만요 ... 형제도 그런 연락 같은 것을 하고 있으면(자) 반대로 심리 위원회에 걸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졌다. 후지와라 형제에게 있어, 상기의 전화에서의 대화는 상당히 불쾌한 것인 것 같다.

이 후지와라 형제와 카나자와 형제의 대화로 선명히 된 것은, 파수대지에 대한 인식의 상위, 및 용어에 관한 이해의 어긋나는 점이었다. 전형적인 예의 1개(살)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다.

코우지엔에 의하면, 사랑과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 배려해, 소중히 하는 것」 ...등이며, 또 다른 정의에 의하면, 「누군가(무엇인가)에 대해서 따뜻한 감정을 가지는 것」 이라고 되어 있다. 희랍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하느님의 사랑, 원칙에 근거한 사랑), 필리아(우정), 스토르게(혈육간의 애정), 에로스(낭만적 사랑)라고 하는 4개의 말이 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정한 원칙에 근거하여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정을 갖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 이며, 다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한다고 하는 점으로써 최고의 사랑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해도, 어떤 사랑을 가리키느냐에 의해 의미는 달라진다. 「사랑」을 단지, 「칭찬하고 격려」 하는 일로 한정하면, 형제들은 문제의 자매들에 대해서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규정하면, 성서의 원칙으로부터 빗나가는 사람을, 가르치고 경고해서 교정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가 되며, 회중은 두 명에게 사랑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된다.

「통찰」 책에 의한 사랑의 정의

그런데, 후지와라 형제로부터 전화가 있던 이틀 후의 6월 24일의 밤, 사사야마 형제와의 대화를 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는 형제들의 희망에 응해 열린 것이다. 그는 아무래도 모

임에는 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지만,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후지와라 형제가 재촉하여
마지못해 나가 왔다는 것이었다. 1시간 위치하면(자), 허둥지둥 돌아가 버렸다.

짧은 대화였지만, 이 모임의 최대의 의의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얻을 수 있었던 합의이다.
형제들은, 처음부터 일관해서, 두 명의 자매들 문제는 파수대지의 최신의 도리의 규준에 따
라 취급하려고 노력한 결과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사야마 형제에 의하면, 그것은 협
회의 방침에 반한다고 한다. 파수대지의 최신의 규준에 따르려고 하는 것이 협회의 방침에
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믿기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그러면 협회에 확인해 보는 것 외에는 없겠네요. 대답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
릅니다만, 협회에게 물어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와)과 카나자와 형제는 신청했다.

「자, 그렇게 해서 봐 주세요」

사사야마 형제도 그것을 승낙했다.

「나머지는 그 재정이 나오고 나서로 합시다.」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모임은 끝났다.

이 회합에 의해, 「문제의 본질이 파수대지의 의로운 표준을 어떻게 잡아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진전이었다. 이에 따라, 형제들은
통치체에 파수대지에 관한 재정을 묻는 아래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 일본 지부가 파수대지
와는 다를 방침을 내 오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상, 지부에게 물어 보았더니 완전히 무의미한
일이니까이다.

1985년 6월 25일

친애하는 통치체의 형제들

적당한 시기에 필적한 훌륭한 영적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후지와라, 세노, 사사야마 형제들과 서로 이야기한 결과, 문제의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것은
두 명의 자매의 취급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우리의 취급 방법이 의가 너
무 앞질러 해 사랑과 동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에 대한
비난을 양치질하는 것, 회중의 건전함을 지키는 것의 우선순위에 관한 생각이 충분히 통하
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의로운 표준을 잡는 방법, 즉 바꾸어 말하면 지금, 어느 레벨의 의의 표준으로 사물을
실시해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는 결론에 모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이
해로 말하면, 파수대지는 적당한 시기에 공급되는 양식이기 때문에, 「예는 예」 그대로 받
아들여, 온 힘을 다해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그
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세 명의 형제 및 일본 지부의 형제들로부터의 편지(우리는 받고 있
지 않습니다만)에 의하면 협회의 방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파수대지의 이해가 잘
못되어 있다고 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디, 형제들에게 그 판단과 지시를
부탁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사사야마 형제와의 회합으로부터 안 것 >

중요한 것은 모두 전화로 서로 이야기해,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고 있다.

협회에 보고를 보낼 때, 순회 감독자의 이름을 사용한 것 같다.

지부에 직접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만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다.

(5) 지부로부터 온 3장의 편지

6월 30일, 지부로부터 3장의 편지가 도착했다. 일본 지부로부터 온 공적인 편지로서는 이것
이 마지막 것이 되었다.

이것은 후지와라 형제의 중간보고를 받아 보내져 온 것이다. 순회 방문의 목요일의 집회에

서 스스로 「진실의 1 파편 정도는 있었겠지요. 3 페이지도 썼으니까」라고 말한 문제의 보고서이다. 무엇을 3 페이지도 썼는지는 모르지만, 협회의 편지에 진술되고 있는 범위에서는, 역시 진실은 1 파편이나 없다.

이 시기, 형제들은 「미리 짜진 줄거리에 따라 사물이 진행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는, 그들도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 의식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의 진전으로부터 하면(자), 아무래도 그렇지 않는 것 같다. 후지와라 형제에게는 그러한 자각이 없었던 것 같다.

펜실베이니아주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SC:SD1985년 6월 28일

훗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카나자와 츠카사 형제
야나기무라 카즈미 형제
미야자카 마사시 형제
오시키리 히로시 형제
토비타 에이지 형제
야와타 코지 형제

친애하는 형제들

협회는 지금, 훗카이도 히로시마 회중을 원조하기 위하여 협회가 조사를 의뢰한 후지와라 형제로부터, 중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여러분은 6월 19일로 예정된 회합에 일단은 출석을 거부했지만, 후지와라 형제들의 설득에 의해, 오전중의 모임에 출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후에 접어들고 나서 개인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려고 한 이것들 세 명의 형제들에 대해, 여러분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써 그 자리를 돌아와 그 후는 어떤 분도 출석이 요청된 회합에 오시지 않았다고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협회의 대표자인 이것들 세 명의 형제들에 대해, 극히 불경한 태도를 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고를 받은 것을 정말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취하신 이러한 태도이기 때문에, 협회는 재차 특별위원회원을 임명해, 히로시마 회중의 실정을 조사하도록(듯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사야마 형제는 특별위원회원의 한사람에 들어오고 있지 않으므로, 이것을 만약을 위해 전해 둡니다. 또, 미야자카 형제는 사사야마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 두 명의 자매들과 사사야마 형제를 각각 심리 사건으로서 고발하고 싶다는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들 특별위원회원은 심리 사건으로서 문제를 취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원으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려, 예정되는 회합에 출석해 필요라고 생각되는 증언과 자신의 변명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주의 최고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느님과 그리스도인 회중의 머리되시는 예수·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갖고 복종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상기대로 알리며, 문제 해결 후에 여호와 하느님의 풍부한 축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Watch Tower B&T Society
OF PENNSYLVANIA

이 편지의 사본:특별위원회원

지부의 편지에 의하면, 히로시마 회중의 형제들의 죄는 「불경죄」라고 하는 것 같다. 「불경죄」란, 1947년 개정 이전의 형법으로, 「천황 및 황족, 혹은 신궁, 황능에 대해서 불경행위를 이루는 것에 의해 성립하는 죄」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것에 상당하는 것 같은 죄가

크리스ტი교에도 있는 것일까. 성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의 불경죄의 정확한 정의

「이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온갖 죄와 모독을 용서받을 것이지만, 영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사물의 제도에서도, 오게 될 사물의 제도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 12:31, 32)

그리스도에 대한 불경도 용서되는데, 워치타워협회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들을 성령과 동렬에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 과거의 법률이 된 불경죄가 워치타워협회에서 유효할 줄은 전혀 몰랐다.

별로 의식도 하지 않고 거짓을 말해, 그것이 지적되면 「불경이다」라고 한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 그들의 보고는 간단하게 받아들여져 그 진실성이 문제로 된다고 하는 일도 거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더 진실하게 주위를 기울일 것이다.

순회 방문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라고 후지와라 형제에게 물어 보았다. 그러자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지시받은 대로 했으면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즉, 조직에 있어서는 진리인가 진실 한가 등이라고 하는 것 보다, 따를까 따르지 않는가, 온순 한지 온순하지 않은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적어도 협회의 대표자들에게 의문을 마주 앓음은 삼미선, 진실하게 따라서 취급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등과는, 그들의 눈에는 「극히 불경한 태도」로 비치는 것이다.

뭐라고 이 주관의 세계라고 하는지, 감각의 엇갈림은 본인에게 그 자각이 없으면 무서운 것으로 있다. 지부의 감각에서는 불경인 태도를 취하면 「특별 위원회」가 임명되게 되어 버린다. 게다가 「사법문제로 다룰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반대로 사법모임에 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러한 아무런 성서적 근거가 없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자고 하는 것은, 평상시 얼마나 무체크체인 일을 조직의 권위로 밀기와 누르고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도 별 일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편지로 드디어 사법모임은 확실한 것이 되었다. 문면에는 「사법문제로 다루게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되어있지만, 「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공식상여, 실제로는, 틀림없이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다. 감독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은 확실히 사법적 준비와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는 없다.

그즈음, 회중 내에서는 동요가 퍼지고 있었다. 거기에 많이 공헌한 것은, 감독들이 회중의 성원에게 걸쳐 온 전화나 그 조사의 방법이었다. 순회 방문을 다음주에 앞두고 「도대체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불안이 강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회중에게 상황을 알리고 개인의 믿음으로 스스로의 진행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집회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짜기로 했다.

지부가 조직의 권위 되어 있으므로, 형제들은, 성서, 진리, 진실의 권위, 하느님의 권위를 전면에 걸기로 했다. 그러면, 조직의 권위로 무릅쓰려고 하는 조직 주의는, 하느님과 진리를 적으로 돌리게 된다. 그 도식을 명확하게 한 다음, 회중에게도 지부에도 좋아하는 편을 선택해 주자고 하기로 결정했다.

7월 4일 목요일의 집회에서 카나자와 형제는 사건의 대강을 회중 성원에게 설명했다.

그는 이야기의 마지막의 (분)편으로, 「아무리 일본지부라고 해도 사람이라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분은 진실을 아시는 여호와 하느님이며, 조직의 권위를 우산에 입은 인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지부는 이 발언을 문제삼아, 「고발한다.」라고까지 분개했지만, 그는 별로 지부를 도발하기 위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몸에 기억이 없으면 화낼 필요도 또 없는 것이다. 사도5:38, 39에 근거해, 여호와와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길을 잡는지, 그렇지 않으면 권위주의라고 하는 인

간적인 길을 잡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어쩌면 여러분이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5:38, 39)

그러므로 동시에, 「이것은 의의 싸움이다」 라고도 강조했다. 지부에 꺼림칙한 동기가 없으면 이야기의 요지를 잘못 잡을 리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테이프에 놓쳐 감독들의 아래로 보내졌다. 후지와라 형제는 이 테이프의 입수에 대해, 「여호와와 지도편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순회 방문 시에 말하고 있다. 그러나 카나자와 형제는 프로그램 전부터, 자신의 이야기가 녹음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K자매와 친하게 지내고 있던 T자매가 테이프코더를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회 후, 근처에 앉아 있던 자매에게 물어보니 역시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형제들은 그것을 세우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둠의 업이면, 그것은 완성시켜 버리는 것이 여호와와 방법이니가.

5장 순회 방문

(1) 순회 방문에 앞서

히로시마 회중의 순회 방문은 7월 9일~14일의 예정이었다. 순회 방문이란, 순회 감독이 각 회중을 주 마다 방문하는 결정이다. 통상 20정도의 회중이 하나의 순회구를 구성해, 한층 더 몇개의 순회구가 모여 지역구를 구성해 있다. 히로시마 회중이 소속하는 순회구의 감독은 세노 형제이며, 지역 감독은 후지와라 형제였다.

각 회중이 거느리는 중대한 문제는, 대부분이 이 순회 방문으로 다루어지게 되어 있다. 만약 지부가 순회방문 중에 사법 위원회를 열 예정이면, 세노 형제가 혼자서 올 것은 없다. 사법 위원회는 혼자서는 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후지와라 형제도 파견되어야만 했다.

예상한 대로, 순회방문 전날이 되어 후지와라 형제가 모두 방문한다는 연락이 들어왔다. 그러나 방문의 목적이나 성질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었다. 형제들은 먼저 목요일의 집회에서,

「우리는 일본 지부아래에 있으므로 순회 방문은 받아들이지만, 불 진실하게 기초를 두어 진행되고 있는 특별 위원회의 활동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었다. (이것은 조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상대적으로 생각한 다음의 발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단지 순회방문으로 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위원회의원으로 오는지, 혹은 그 양쪽 모두로 오는지에 의해 대응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7월 9일 화요일

오후 1시무렵, 세노 형제와 후지와라 형제가 도착했다. 두 명을 마중나간 형제들은 방문의 목적, 및 통치체의 재정을 휴대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물었다. 그러나 재판은 없고, 그들 자신도 방문의 목적은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지부에 전화로 들어 보면 어떨까요.」

(와)과 후지와라 형제.

「누구에게 물으면 좋습니까.」

「후지모토 형제나 아베 형제가 담당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습니까. 그럼, 조금 상담해 봅시다.」

「자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 후지와라 형제는 세노 형제와 함께 차에 돌아왔다.

거기서 지부에 전화를 걸어 보았다.

「이쪽은 홋카이도의 히로시마 회중입니다만」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전화는 곧바로 형제로 바뀌었다. 소리로 판단하면 아베 형제다웠다.

「무엇입니까」
「지금, 돌연 후지와라 형제를 보게 되었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요.」
「지역 감독자로서 지원과 조사를 위해입니다.」
「그 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하고 있는 대로입니다만」

약간 간격을 두어 그야말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상태로 다시

「어떤 의미입니까」
「묻고 있는 대로입니다」

당분간 침묵... 그리고 결국

「지원과 조사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원과 조사뿐이라면 거절할 이유는 없다. 지부가 어디까지 그 약속을 지킬지 확실하지 않지만, 「Yes means Yes 의 정신(‘예’라는 말은 ‘예’를, ‘아니요’는 ‘아니요’를 의미하게 하십시오.-마태5:37)」로 가기로 결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후, 세노 형제와 미야자카 형제는 회중의 기록 조사를 행해, 후지와라, 카나자와, 야나기 무라 형제의 세 명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다. 주된 화제는 후지와라 형제가 보낸 중간보고에 대해에서 만났다.

「출석을 거부하는 등과 우리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시다만」
「그렇지만 나는 사사야마 형제로부터 것처럼 들었기 때문에」
「...이 편지에는 우리가 그 자리를 돌아왔다고 쓰여져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끝냅시다」라고 해 모임을 담은 것은 형제 자신이 아닙니까.」
「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남을 수 없는 사람은 손을 들어 주세요」 형제가 물었을 때, 야나기무라 형제는 손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렇습니다, 형제」라고 야나기무라 형제에게 묻는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남을 수 있습니다」와 분명히 말해 준다면 좋았었지요」야나기무라 형제, 반대로 혼난다.
「그리고 미야자카 형제는, 두 명의 자매들을 고발하고 싶다는 등 사사야마 형제에게 연락했던 적은 없지만」
「나는 사사야마 형제로부터 것처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사야마 형제에게 확인해 볼 수밖에 없겠네요.」

모든 것이 이 상태였다. 지역감독자 입장에 있는 사람이, 단지 생각하고, 느끼고, 들은 수준에서 보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후지와라 형제는 먼저 돌아가, 세노 형제가 한사람 남았다. 거기서 사사야마 형제가 협회에 보낸 보고에 대해 물어 보았다.

「사사야마 형제에게 물으면, 그 보고는 형제의 승인으로 협회에 보냈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어째서 사실을 조사하지 말고 저런 보고를 보내시지 않았나.」
「어, 아...사사야마 형제는 것처럼 말했나. 확실히...저것은 사사야마 형제가 보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사야마 형제는 「조사해 주어도 괜찮다. 나는 혼자서 보낸 것은 아니다. 순회감독자의 승인으로 보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시다만」
「으응, 그랬을지도 모르지 않습니다만...아니, 역시, 저것은, 사사야마 형제가 보냈을

것입니다. 나중에 형제에게 확인해 봅시다.」

협회의 편지에는“사사야마 형제로부터”어떤 이상, 그 최초의 보고의 책임자는 사사야마 형제에게 결정은 있다. 세노 형제가 이름이 이용된에 지나지 않는 것은 분명하겠지.

그 날의 밤, 「사랑은 그리스도인 회중을 식별케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를, 후지와라 형제가 하였다. 그 이야기의 주요점은, 두 명의 자매들의 문제는 사랑으로 가려야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3) 7월 11일 목요일

이 날, 카나자와, 후지와라, 세노 형제의 세 명에 의해, 4 여시간에 이르는 모임이 설치되었다. 카나자와 형제와 후지와라 형제가 주로 서로 이야기해, 세노 형제는 그 내용을 메모하고 있었다. 두 명의 자매들의 행실, 예언의 이해, 본부와의 편지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에 관한 최대의 포인트는 다음의 점이었다.

「과수대의 의로운 표준이라고 해도, 별로 특별한 것은 아니고, 최근호에서도 강조되고 있듯이 진심으로의 여호와와 증인으로 있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꺼림칙한 동기로부터는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자고 하는 것입니다만」

「아~, 그러한 의미였던 것입니까. 나는 무엇인가 독자적인 의의 표준을 주창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오해 했군요 형제, 그것을 일본에서 철저히 하면, 어떤 폐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럭저럭 될 수 있는 장로가 도대체 몇 사람 있을까요. 지금, 그것을 실시하는 것은 협회의 방침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수대지에서 권유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분에는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회중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협회의 방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배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협회의 생각입니까」

「그 대로입니다」

이것은 놀랄 만한 발언이었다. 과수대지에서 공언하고 있는 것을 가능한 한 모두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배교가 된다는 것이다.

본래, 과수대지의 가르침을 넓은, 그 이해를 도와 가능한 한 그것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위치타워협회 대표자의 의무일 것이다. 게다가, 후지와라 형제는 지역감독자이며, 1984 연말에 열린 감독자들을 훈련하는 천국전도학교의 강사이기도 했다. 그 때, 과수대지의 정신을 가능한 한 회중에게 반영시키도록 하라고 하는 지시를 협회는 내고 있었던 것이다. 한층 더 수개월 전에 열린 순회대회에서, 감독자들을 모아 과수대지의 어려운 곳도 가능한 한 집회에서 취급하도록, 하라고 가르친 것은 다름 아닌 후지와라 형제 자신이었다.

이것은 지부의 결정이 틀림없다고 카나자와 형제는 생각했다. 거기서 후지와라 형제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했다.

「히로시마 회중은 회중 전체가 과수대지의 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에서도 다루어 주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숨겨진 지부의 결정은, 위치타워협회의 공식적 결정으로서 공포되게 되었다. 대화는 우호적인 분위기가운데 종료하여, 후지와라 형제도, 「그러면 사법위원회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장로 해임건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 좋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기까지 되었다. 「그럼, 지부에 아무쪼록 전해 주세요.」라고 말해, 카나자와 형제는 그들과 헤어졌다.

그런데 저녁 집회에 나타난 후지와라 형제는, 마치 판사람과 같이 되어 있었다. 표정은 딱딱하고, 매달리는 섬도 없다고 하는 바람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있 것일까. 그는 지부에 전화해 보면 이야기하고 있었으므로, 아마 그 대화의 결과일 것이다.

그 집회에서의 후지와라 형제의 이야기의 주제는, 「신권적(하느님의 권위를 최우선 하는 생각)인 결정해에 정통해 온순하게 따르다」에서 만났다. 약속한 거리, 그 이야기 중에서 협회의 정식적 결정이 전해졌다.

구원은 침례로 달성되므로, 파수대지에 진술되고 있는 그 이상의 의는 개인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며, 회중 전체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요지의 이야기가 이루어졌다. 또, 형제들은 신권적 순서에 위반하는 것으로(본부와 지부에 연명으로 편지를 보낸 것을 가리킨다) 「죄에 죄를 거듭했다」라고 말해, 사법위원회를 열 방침을 명확하게 내세웠다.

(4) 7월 12일 금요일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히로시마 회중의 자매들과의 회합이 열렸다. 감독자들에게 사정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는 제의(신청)에, 후지와라 형제가 기분 좋게 응해서 열린 것이다. 그런데, 이번도 보기 좋게 그 약속은 깨어졌다.

야나기무라 자매가 모임이 시작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자), 세노 형제로부터 회중의 명부를 카피하도록 부탁받았다. 명부를 손에 넣은 세노 형제는, 출석한 자매들 전원의 이름을 체크했다.

후지와라 형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쪼록 뭐든지 말해 주세요.」라고 잘라, 모임이 시작되었다. 자매들이 발언하면, 세노 형제는 이름을 확인해, 그 내용을 메모 하고 있었다.

몇 명의 자매들은, 그 때의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로 이야기한다든가, 들어 준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근거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도, 그것은 모두 회중에게 있어 불리하게 되도록 곱혀서 받아들여 버렸다.」

그 밤, 장로와 봉사의 종 모임이 열렸다. 「화요일의 마중의 태도 캔버스 우려 구 없는, 대접의 정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이유로서 거론되어 전원이 그 입장으로부터 구제해지게 되었다.

그 후, 장로회 모임이 되자, 후지와라 형제는 그야말로 근심들 무성해에,

「형제, 오늘의 자매들과의 모임은 심했지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저런 자매들을 본 것은 처음이어요. 저것은 심하네요. 그 자매들은!」

「무엇인가 했겠지요인가」

「저것이라면, 형제가 없어도 충분히 배교 할 수 있는 자매들이예요. 그 자매들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러한 걱정이 있는 것은 어느 자매들입니까」

「우선 오가와 자매군요. 거기에 미우라 자매, 이 자매는 특히 심했어요. 그리고 카토 자매나 타다 자매도 그렇겠지요. 그 자매들이라면 형제가 없어도 배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후지와라 형제는 꽤 자존심이 손상 받은 것 같았지만, 오가와 자매는, 두 명의 자매가 무엇을 호소했는지, 지부는 어째서 두 명을 신뢰할 수 있는 자매로 간주하고 있는지, 를 물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제 쪽에서 무엇인가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오, 이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로회 모임은 이것으로 끝나, 배교로 처분한다고 하는 지부의 방침이 뚜렷한. 게다가, 그 중에는 자매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매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한다. 걱정하고 있는 모습도 전혀 없다. 아마 지부로서는, 이 때, 반조직적인 악영향을 전부로 제거해 버리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제명이 될 것 같은 멤버를 대충 세어 보면, 적어도 15명 정도 있을 것 같았다. 한 사람 한 사람 빨빨이 흩어지게 되어 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있다. 역시 회중을 조직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결론이 나오기 전에 표면화해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러면 그것은 배교의 근거가 되어 버릴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매우 어

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사도5:38, 39의 가말리엘의 말이었다. 이번 사건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물을 추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시험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한 끝에, 회중을 조직하기 위한 움직임은 일절 일으키지 않고, 순회 방문이 끝날 때까지는 감독자들의 좋아하는 대로 받자고 하기로 했다. 만약 그래서 회중이 조직 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운 회중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여 여호와의 뜻을 확인하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만, 만약 회중이 설립되었다고 해도, 조직으로부터 떨어진 채로 오랫동안 해 나가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했으므로, 어떻게든 단기간에 끝내고 싶다고 생각해, 통치체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5) 7월 13일 토요일

특별 위원회로부터 사법청취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이 도착한다.

삿포로시 니시구 XXXXXXXX
마츠우라 타카시 전교
홋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특별위원회원

1985년 7월 13일

홋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미야자카 마사시 형제
친애하는 형제

홋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특별위원회원은 위치타위 성서 책자 협회로부터 임명된 사법위원회로서 아래와 같이 당신과의 모임을 가져, 청취를 행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조정하여 참석해 주시도록 불리 하겠습니다.

- 일시 : 1985년 7월 14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삿포로시 토요히라구 XXXXXXXXXX 왕국 회관
- 청문이 행해지는 이유 : 회중내에 분열을 일으킨 것
- 근거 : 1985년 7월 4일 히로시마 회중에서 행해진 봉사회 특별 프로그램으로 카나자와 츠카사 형제가 이야기한 일

위 내용을 알려드리며, 여호와의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형제

홋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특별위원회원
후지와라 타케히사
쿠와바라 사토시
세노 타카시남
마츠우라 타카시

또 이 날 있는 자매에게, 「형제들은 이제 안 되어서 떨어지도록」 하라는 전화가 있었다고

한다. 사법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형제들의 처분은 확정되어 있던 것 같다.

(6) 7월 14일 일요일

이 날 집회에는 후지와라, 세노 형제 외에, 근처 회중으로부터 마츠우라, 쿠와바라, 출구, 오구마의 각 형제들이 참석했다. 집회는 삼엄한 분위기가운데 시작되어, 시종, 음울하고 답답한 공기가 회관 안에서 감돌고 있었다. 형제들은 의기소침해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 있어 회중의 대부분의 사람은 집회 내내, 쪽 숙인채로 있었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후지와라 형제는 기세등등하게 보였다. 아마, 이제 이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확신한 것일 것이다. 집회가 끝나면(자) 유들과 끌어올려 갔다.

이 날, 히츠지가 오카 회중의 왕국회관에서 사법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었다. 사법위원회의로부터의 편지에 의하면, 죄목은 「회중 내에 분열을 일으킨 것」이라고 되어 있어 근거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7월 4일의 집회에서의 카나자와 형제의 발언이었다.

그러나 형제들은, 회중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서 예언의 의에 따른 것이었다. 성서 예언의 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다.

성서는 하느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구원을 위해서 요구하는 특정한 의의 표준에 대해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항상 예언의 형태로 전해지므로, 성서 예언의 의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 예언의 의란, 어느 특정한 시기에 특별히 필요하게 되는 표준이며, 통상의 의에 우선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면,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구원에 필요한 특별한 의의 표준은 「마을을 나와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또 노아의 홍수 때에는 「배안에 들어가라」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예언에 의해 사람들은 시험에서 떨어져서, 그 결과, 생명을 이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히로시마 회중의 형제들은, 이사야60:22의 「강대한 나라(혹은 “강국”）」(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질에 대해서도)가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의 예언된 의라고 생각해 그 파수대지의 의의 표준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두 명의 자매의 취급에 대해서도,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도, 결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생각한 결과는 아니고, 하느님에 따르려고 한 결과였다. 따라서 사법위원회에서 얼마나 거짓의 증거에 근거해 심사를 행해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하늘의 법정 앞에서는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의 성구가 마음에 걸렸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여 있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당신이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려 있는 것입니다.」 (마태16:19)

이 성구는, 지상에서 권위가 주어지고 있는 사람의 결정은, 하늘에서도 유효하다고 말하는 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통상이면, 자칭, 하느님의 권위가 주어지고 있는 워치타워협회의 결정은, 하늘의 법정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서, 워치타워협회의 권위와 예언의 의의 권위와 어느 쪽이 위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현대의 예언의 의는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나자와 형제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보냈다.

1985년 7월 14일

특별위원회원

친애하는 형제들

나에게는 분열을 일으키려는 생각도 배교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의 목요일 가능한 한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 정말로 유감입니다. (후지와라, 세노 형제가 들어 주셨습니다.)

왕국의 말씀은 사람들을 나누는 힘이 있습니다. 성서 예언의 의도 슈로더 형제의 이야기와 같이 복권의 가족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분열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에 오를 때와 같이 지점, 관점이 변화하면 사물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것을 일치시키는 가치 기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에게, 이미 어떻게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변명하려는 기력, 체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형제들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보고 취지대로 사물을 결정해 주세요.

다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청취에 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만, 7월 14일의 상황에서는 매우 무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상황에서 7월 14일에 사법모임이 이루어져 결정이 내려져도 나로서는 어떤 이의도 없습니다.

모두 여러분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만약 결정이 이루어지면 소식 받을 수 있으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새 질서에서의 생명의 길을 나에게도 남겨 아래 사라지면 다행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의 형제

훗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카나자와 츠카사

만약, 일본 지부 혹은 사법위원회 중에서 성서 예언의 의를 이해할 수 있는 감독이 있으면, 사법모임을 강행해 억지로 제명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감독자는 한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

이 단서에는 시간을 벌고 싶다고 하는 의미도 있었다. 통치체가 움직여 준다면 전원이 제명이 되지 않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직전까지 양보해 보면, 지부에 조금이라도 연보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추방하고 싶은 것인지가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 일도 있었다.

사법위원회에 나오는 것은 처음부터 논외였다.

6장 사법위원회

(1) 결석 심리에서의 제명

사법위원회는 재판과 같은 것이며, 단순한 대화의 장소는 아니다. 후에 「어째서 사법위원회에 나와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을 말한 장로들도 있었지만, 사법위원회의 이 무슨 가가 인식 되어 있으면, 그러한 대사는 나오지 않는다.

천국 전도 학교의 교과서(유책)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법 위원회를 여는 것은 죄를 확정하는 다음이다. 따라서 사법 위원회에 불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죄인으로 정한 것을 의미한다. 죄를 범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법위원회 이전의 문제이다.

형제들에게는 사법위원회에 가야 할 죄의 자각은 없었다. 파수대지의 정신을 가능한 한 회중에게 철저하게 하려고 한 것이 배교가 되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의 증인으로서의 믿음과 양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법위원회에 불려야 할 것은, 오히려 거짓을 말해 위증을 행하고 있는 그들 편이 아닌가. 진정한 배교자는 일본지부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감독들에서는. 사법위원회의 실제적인 대표자가 진실하지 못한 보고를 보내는 것

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후지와라 형제인 것이다.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만일 감독자들이 기적적으로 진실을 옹호 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말단에서 어떻게 말하더라도 결정하는 것은 지부이다. 지부가 정리할 생각인 이상은 무엇을 하더라도 쓸데없는 것이다. 즉, 어떻게 생각해 봐도, 출석한다고 하는 선은 나오지 않았다.

이 때, 형제들이 유일하게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은, 통치체의 권고였다. 무엇보다 이것은 통치체의 선의를 믿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였지만. (이 때는 아직 통치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 그것을 이해한 것은 꽤 나중에 되고 나서이다.) 우송에 필요한 날짜를 생각하면, 권고가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일주일간부터 10일 정도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때문에 형제들은 어떻게든 시간적 여유를 만들려고 생각해 심리 위원회의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원시럽게 거절당해 버렸다.

천국 전도 학교의 교과서, p. 69, 161에는, 「반복적으로 청취모임에 나오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라고 기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직의 지시에 충실히 따른다면, 한 번의 결석으로 제명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몇 번인가는 불러 상태를 볼 것이다. 그런데, 지부는 하느님의 의와 공의뿐 아니고, 조직의 결정도 무시했던 것이다. 형제들은 1회의 결석 심리로 제명되어 버렸다. 왜일까 이유는 모르지만, 지부는 매우 서두르고 있었다. 적어도, 2, 3회는 불러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2) 2개로 분열된 회중

7월 15일 월요일의 아침, 카나자와 형제에게 세노 형제로부터 전화로 제명의 통지가 있었다.

「형제가 바라고 있던 제명이 되었습니다. 일단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상소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네-. 상소합니까...」일순간, 절구했다. 「자, 가능한 한 빨리 상소장을 보내 주세요.」

조직을 나오는 것으로 결정한 줄 알았던 것 같다.

같은 날, 세노 형제는 회중의 성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집회에 출석하면 제명이 되어, 두 번 다시 조직에 돌아올 수 없다」라고 고했다. 거기에 따라, 다른 집회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많았다.

전화에서의 반응이 그다지 생각되지 않다고 느낀 것일까. 다음날, A, K자매의 두 명은 회중의 자매들이나 연구생의 집을 방문해, 사죄해 회. 아마 다른 집회에 가는 사람을 혼자라도 줄이려고 생각한 것일 것이다. 결과를 말하자면, 이것은 역효과를 가져온 것 같다.

16일의 밤, 집회가 열렸다. 참석한 숫자는 약 60명이었다. 히로시마 회중은 두 동강이로 나누어져 버렸던 것이다. 형제들은 누구하나 유혹하지 않았는데, 왜 많은 사람이 「조직을 나오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감독자들의 위협을 뿌리치고, 스스로 제명되는 길을 선택한 것일까.

이하의 그 이유에 대해 물은 것이다.

「무엇이 진실한가를 알고 싶다고 생각했다」

「과수대에 관한 결정, 및 집회에서 말한 감독자들(후지와라 형제 등)의 이야기에 납득할 수 없었다.」

「감독자들의 태도,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의문」

(거짓을 말해, 권위를 내세우는 압박적인 태도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았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

「진실이 진실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살아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두 명의 자매들의 좋지 않은 행실」

(회중의 많은 사람이 이것을 직접 목격 하고 있으므로, 그녀들을 옳바르다고 하는 감독자들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연단으로부터 사과하라고 들을 만큼(이것은 심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죄는

범하지 않았다」 「사과한다면 거짓말하게 된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무시하고 저 편에 따르면 여호와도 성서도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2개로 나누어지기 마지막 날에 봉사에 참여해서, 거기에 왔었던 사람들의 영(정신태도)을 생각하고 결정했다. 저 편에 사람에게서는, 미움, 욕 등을 볼 수 있었다」
 「일요일부터 계속 기도했지만, 이대로 조직에 머무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다. 비록 일시 조직으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로 계신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여, 그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어딘지 모르게, 이 세상(세상이 나쁜 정신)과 같은 방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싫었다. 사랑이 없게 느꼈다. 여호와를 알고 싶다고 생각해 이쪽으로 왔다」
 (이것은 아직 침례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이러한 감독자들(후지와라 형제들)과 쪽 함께 해 나간다면, 자신을 죽이지 않는 한 무리라고 생각했다」
 「오구마 형제는, 「두 명의 자매나 감독자들이, 속임수, 위증, 도둑질 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로서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한편을 받아들이면서 한편을 부정한다는 것은...성서에는 여호와는 공정, 공평한 쪽에 계신데 어째서 어긋나는지, 진정한 여호와의 증인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다」
 (분열 당시 아직 성서를 조사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사람)
 「자신도 회중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등등.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믿음에 의해 이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3) 상소 위원회

7월 17일 (수) 아래와 같은 상소문을 제출한다.

1985년 7월 17일

특별 위원회의 형제들

7월 15일에 특별 위원회의 키의 형제를 통해 배척 결정의 전화 연락을 받았습지만, 나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해 이 건을 상소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1. 후지와라 형제는 위치타위협회를 통해 빛을 늘려 가는 성서 예언의 의에 관한 결정에 대해 저희들에게 알려 주셔, 회중에서 몇 차례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통치체의 결정이라고는 한 번도 진술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그 결정인 것입니다. 통치체 형제들에게 확인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서둘러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할 수 것은 아닐까요. (「봉사의 직무」 p. 28, 1항 사도15:1, 2)
2. 이번 취급 방법을 보고 있으면, 성서 예언의 의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문제를 충분히 취급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을 심리하는 형제들은, 그 의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서는 안 될까요. (시편19:7~11)
3. 이번의 결정은 극히 일방적인 한편 부당한 것이며, 심하게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명기1:16, 디모데 첫째5:21, 이사야32:1, 2)

이러한 점으로부터, 회개의 유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법판결의 근거 그 자체, 및 사법모임 자체가 성서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소위원회는 통치체의 결정을 받고 나서, 그것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제들로 구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잠언16:21)

만약 상기의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결정도 하늘의 최고 법정 앞에서는 무효라는 점을 선언하고 싶습니다. (아모스5:20~24,6:8)

이상을 알리며, 형제들의 동정심 많은 판단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71년째에 왕 예수의 드높여진 의로운 통치를 보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형제.

<아모스5:20~24;6:8>

5:20 여호와와 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다. 그 날에는 캄캄함이 있고, 밝은 빛은 없다. 그럴지 않느냐?

21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하고 배척하였다. 그러니 너희의 장엄한 모임들의 냄새를 즐기지 않을 것이다.

22 너희가 내게 번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너희 예물을 기뻐하지도 않고, 너희의 살진 짐승의 친교 희생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23 내게서 네 노래의 소란한 소리를 치우고 네 현악기의 선율이 내게 들리지 않게 하여라.

24 다만 공의가 물처럼, 의가 항상 흐르는 급류처럼 흘러가게 하여라.

6: 8 「주권자인 주 여호와가 자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한다.」 만군의 하느님 여호와와의 말이다. 「“내가 야곱의 교만을 가증히 여기며 그의 거주 탑들을 싫어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 도시와 거기 가득한 것을 넘겨주겠다.

7월 18일 (목) 상소위원회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삿포로시 토요일라구 XXXXXXXX
무라야마 카즈오님 전교
홋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미야자키 카즈오

1985년 7월 18일

미야자카 마사시 형제

친애하는 형제

7월 16 일자의 당신으로부터의 상소의 제의(신청)에 응해, 우리는 상소 위원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상소 위원의 구성과 상소 청문회가 행해지는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소 위원 :

데구치 타케시양(히로시마 회중)

미야자키 카즈오(히로시마 회중)

오구마 히로유키(히로시마 회중)

일시와 장소 :

7월 20일 (토) 오후 7시부터

히츠지가 오카 회중 왕국 회관

상기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미야자키 카즈오

상소위원회의 구성원을 보고서, 성실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후지와라 형제보다 훨씬 낮은 권위 밖에 가지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상소위원회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진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성원 중 한 명이었던 오구마 형제가, 하시모토씨(연구생)에게 말한 다음과 같은

말에 잘 나타나고 있다.

「특별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
(「특별위원회」는 통상, 조직의 결정에는 없다)
「후지와라 형제가 설득해도 안 된 것은, 누가 해도 안 된다.」

게다가 그는, 1년 남짓 경과하자, 자신이 상소 위원인 것조차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 도중부터 특별위원회로 옮긴 탓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1회의 결석상태 사법모임에서의 제명, 사실 조사마저 하려고 하지 않는 불성실한 상소 위원회, 조직의 이러한 사용 방법에 분개한 카나자와 형제는, 천국 전도 학교의 교과서(장로용의 텍스트) 반환 요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1985년 7월 20일
카나자와 츠카사

이번 사건의 책임자의 형제들에게
(특히 일본 지부 내)

무엇을 것처럼 서두르는 것일까요. 반복적인 청취모임이라는 천국 전도 학교의 교과서(p. 161)의 지시를 무시하고, 무엇을 위해서 성급하게 일을 진행시키자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정신을 반영하며, 누구의 지혜에 따르고 있는지를. 자 잘 아시는 바는 아닐까요. 대체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 여호와 앞에서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그렇지 않으면 조금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의 양심은 마비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히로시마 회중을 분열시키고 왕국 회관의 건설을 중지시켜 버렸고, 많은 양들에게 막대한 괴로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행해, 억지로 50명 이상의 영혼을 멸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느님 앞에서 유혈 죄를 짓고, 하늘의 법정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느님은 살아 계시며 이것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역대 둘째 19:6) 계속되는 질문이나 탄원을 반조직적 행동, 불순종으로 간주할 정도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인기를 얻는 권리입니까. 아무리 여러분이라고 해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를 하느님 위에 높이는 불법의 사람과 같은 반열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A·D·슈로더 형제는 지구 방문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는지요. 성서 예언의 의는 생존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의로운 표준이며, 큰 무리가 스스로의 옷을 희게 하기 위해서는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을. (계시 7:14) 이번에 여러분은 그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장로로서 그것을 통치체의 형제들에게 다시 질문하기로 했습니다만, 여러분이야말로 오히려 솔선해서 통치체에 확인하면 안 됩니까. (사도 15:1, 2, 22, 30~32) 나로서는, 그 통치 71년째에 의를 드높이려고 하시는 왕 예수와 싸워, 여호와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같은 신권적 순서 및, 친적 경로를 무시한 조치는 모든 것이 무효이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모스 5:5~7, 20~24; 6:8, 13) 그렇기 때문에, 천국 전도 학교의 교과서는 성령이 나를 장로에서 해임시킬 때까지는 여러분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왕의 의를 위해 일하는 형제
훗카이도 히로시마 회중의 장로
카나자와 츠카사

7월 20일 (토)밤 8시, 전화로 제명이 통지된다.

7월 21일 (일) 재차, 통치체에 도움을 의뢰한다.

(4) 자매들의 사법모임

월 24일 (수) 특별 위원회로부터 소집장이 도착한다.

삿포로시 니시구 XXXXXXXXXX
마츠우라 타카시 전교
홋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사법위원회
1985년 7월 22일

홋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야나기무라 리코 자매
친애하는 자매

홋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사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당신과의 회합을 가져, 청취를 행하고 싶습니다. 상황을 조정하여 참석해 주시도록 불러 하겠습니다.

일시 : 1985년 7월 25일 (목) AM10:00시
장소 : 삿포로시 토요히라구 XXXXXXXXXX

청문이 행해지는 이유 : 회중내에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을 지지하여, 배교에 이른 것.
근거 : 사법 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여, 배교자들의 집회에 정기적으로 연합하였다.

위 내용을 알리며, 여호와와의 인도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형제
홋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사법위원회
후지와라 타케히사
마츠우라 타카시
쿠와바라 사토시
오구마 히로유키

※ 파이오니아 신분증을 반납해 주세요.

7월 26일 (금) 제명 통지

형제들이 한사람도 사법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자매들도 불참할 것으로 생각되었는지 취급 방법은 매우 사무적이었고, 영성했다. 어떤 자매가 소집의 편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그 일자가 지난 다음이었다.

8월 1,2 히카미소위원으로부터의 소집

삿포로군 히로시마초 XXXXXXXXXXXXX
홋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미야자키 카즈오
1985년 8월 1일

친애하는 오가와 자매

당신으로부터의 상소의 제의(신청)에 대해, 우리는 상소 청취를 열기로 하겠습니다. 상소 위원회의 구성과 상소 청취가 행해지는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소 위원 :
대구치 타케시양(히로시마 회중)
미야자키 카즈오(히로시마 회중)
정사준지(토마코마이 화원 회중)

일시와 장소 :
8월 4일 오후 2시

도야마 형제택(마츠바쵸 XXXXX)

상기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야자키 카즈오

8월 3일 (토) 제명 통지

(5) 사법 위원회에의 질문

카토 자매의 남편은 가족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사정을 듣고 있었지만, 자매들에게 사법 위원회에의 소집장이 도착했을 때, 그 내용에 놀라서, 지부와 특별 위원회에 질문을 보내기로 했다.

<< 물은 점 >>

1. 배교자란 무엇인가.
2. 분파활동이란, 무슨 일을 가리키는 것인가.
3. 조직의 지도자는, 하느님의 구원을 진지하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실로 성서적인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가.
4. 인간적인 권위를 하느님의 권위와 살짝 바꾸려고 하는 그리스도교회의 역사적 교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덧붙여, 공정한 태도로 사실을 재조사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회답은 없었다.

7월 26일, 자매들에게 제명 통지를 행하고 있던 후지와라 형제와 카토씨는 1시간 이상에 걸쳐서 서로 이야기했다. 그 일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편지는 도착했지만(7월 24일에 보낸 편지), 아직 내용을 읽지 않았다. 조직(일본 지부)의 지도에 반항한 그룹에 참가하고 있으므로 처리되었다」

「왜 판결을 서둘렀는가. 성서나 출판물에는 충분한 설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전화로 1회, 전회사람들 앞에서 1회」

「그러한 회수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침묵...일방적인 정보만으로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이상하다」

「책임자 측에서 정리한 경과를 알고 싶다」

「조직 내부의 사정이므로 설명은 할 수 없다」

「판단하는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닌가.」

「...무언...아버지, 조직에 돌아오도록 호소해 주세요.」

「조직외의 인간이니까 개입은 할 수 없다. 그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책임자는 아닌 것인지」

「잘못이므로 철회한다.」

「하느님의 말씀상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직상의 문제인가」

「조직상의 의(나에게는 신학상의 용어이므로 이해할 수 없다)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이다」

「해석상의 차이는 어디서 조정되는 것인가. 조직 내에서 의문이 생겼을 경우에 충분한 대화도 하지 않고, 판결만 서두르는 규칙이 있는 것인가」

「...침묵...」

「분열이라든지 분파라고 하지만, 적어도 6월까지 왕국 회관 건설의 움직임이 있어, 한사람의 독재적, 분파적 책임자로 판정된 사람의 독단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회중의 총의라고 듣고 있다. 지난달까지 평화로운 회중이었는데, 그것을 서로 다투는 회중이라고 평가하는 것인가」

「그러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서둘러 판결을 냈는가.」

「나는 위와 아래로부터 양퇴진곡이 되어, 머리가 혼란하고 있다」

당분간 잠시 동안 묵묵부답. 전화가 끊어진 건가라고 생각해서, 「후지와라씨, 후지와라씨」

라고 몇 번이나 불렀다.

「도중에 상부가 바뀌었다. 상부에서 결정했으므로, 더 이상의 일은 상부에 들으면 좋겠다. 아버지, 나의 입장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당분간 침묵...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그가 말하는 의미를 모르겠다.)

「여호와와의 증인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배우고 있다고 듣고 있다. 세속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성서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들 지도자의 행위에 실망한다. 실로 성서적인 해결에 의해, 빨리 평화가 돌아오는 것을 희망한다.」

「우리도 것처럼 노력한다.」

「전회의 편지에 대한 대답을 기대한다.」

「...무언...」

카토씨는 이 대화의 감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버지, 우리는 여호와와의 말씀에 근거해 이와 같이 행동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한 설명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조직의 결정이라고 반복하기만 할 뿐이었다. 하느님보다 조직이 우선한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전화 후에 알고 놀랐다. 그는 훗카이도 지방의 최고 책임자였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삿포로의 하지메 장로라고 생각해, 어려운 질문을 가까이 두었다.

후지와라씨는 처음에는,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후반은 무언이라든지, 「머리가 혼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의미가 불분명한 일을 말해버리고 있었다. 「왜, 판결을 서둘렀는가」라는 외부인으로부터의 질문에 답한 것은, 「판결을 받아도 조직에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변명한다. 「문제, 대처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니, 「내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부에 들어 줘」라고 한다. 회중의 앞에서 판결을 선고한 재판관이, 「판결은 나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세속에서는 책임 회피라고 한다. 책임자로서의 권위를 기계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책임자에게는 권한이 있지만 책임도 있다. 자기의 행위를 반성도 하지 않고, 상부에 책임을 전가한다. 세속의 관리자라면 존경되지 않는 타입이다.

7장 본부에서의 방문

(1) 사건의 전망

형제들은 사건이 장기화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비록 사실이 아님이 분명해도, 배교자로 불리는 것은 기분이 좋을 리가 전혀 없었다. 그대로 상태가 계속되면 친구, 친족 등과의 관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나온다. 어떻게든 단기간에 끝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반대로, 사건은 장기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두 번에 걸친 회중의 탄원에 대해서 통치체로부터는 아무 대답도 없었기 때문이다.

의의 결정을 묻는 6월 25 일자의 편지를 본부에 보냈을 때, 형제들은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통상, 조직상의 결정에서는, 그러한 편지는 지부에 돌려주게 되어 있다. 문제는 다만 돌려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의견을 같이 보내줄지. 물론 형제들로서는, 통치체의 견해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부는 아무래도 그대로 돌려준 것 같다. 지부의 결정으로부터 판단하면 그런 것이 된다.

본부는 편지를 그대로 돌려주어도, 지부 위원 전체가 이 사건을 알게 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도 얼마 안 되어 무너졌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지부 안에서 권위를 가진 어떤 특정 그룹에 의해서,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음모와 같은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징후는 여기저기서 보였다. 만약 지부 전체가 이 사건을 알게 된다면, 그만한 자정 작용은 있을 것이므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누군가가 일어서는 것은 아닐까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

그에 더해 본부에서도 움직이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어째서 진실을 옹호 해, 문제를 바로

잡아 주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본부의 생각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향후의 전망이 서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서 확인해 볼까」라고 하게 되어, 본부 방음이 구체화됐다. 여기서 회중은 카나자와 형제와 미야자카 형제 두 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2) 뉴욕, 브루클린으로

9월 6일, 오후17:30분 노스웨스트 018편은 뉴욕에 향하여 나리타를 날아올라, 예정보다 1시간 보낼 수 있어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수속을 끝내고 택시 승강장을 찾으러 가려고 했을 때, 「트모다치, 트모다치」라고 얘기해 온 외국인이 있었다. 여행 안내소에는, 「이 손의 외국인에게는 조심해라」라고 쓰여져 있다. 폭리 택시의 운전기사나 시체가 결정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No, thank you」라고 끊었다. 그런데,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탓일까, 「cheap, cheap」(싸, 싸)이라고 외치면서, 마음대로 가방을 가지고 걷기 시작해 버렸다. 그런데도 강하게 거절하면 좋았기 때문에 있을것이다가, 어쨌든 두 명은 서두르고 있었다. 본부의 접수의 종료해 버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늦으면 뉴욕의 길거리에 해매는 위험성이 있었다. 「아무튼, 이 때 어쩔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그 폭리 택시를 타기로 했다.

워치타워협회의 선전에 의하면, 뉴욕에서는“Watchtower”라고만 해도 곧바로 안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뜻밖에도 그 택시운전기사는 몰랐다. 동료의 운전기사나 통행인에게 물어도 알지 못했고, 물어보면서 돌아 간신히 가까스로 도착했다. 버스라면 돌이서 16 달러면 될 것을 120 달러나 청구했다. 거절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졌으므로, 생명이 아까워서 110 달러 지불했다.

그러나 과연 스피드는 빨랐다. 교통 정체가 시작되어 있는 길을 60마일(약 100Km)의 속도로 차의 사이를 누비듯이 달려갔다. 그래서 날은 저물고 있었지만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기 전에 어떻게든 본부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접수를 찾으면서 타워즈호텔로 걸어가자, 도중에 백발의 형제가 두 명의 앞을 차단했다. 그는 허리에 낫춘 열쇠의 다발중에서 1개를 꺼내, 조용히 자물쇠를 열어 「Please」라고 해 중에 들어갈 수 있어 주었다. 그 후, 접수의 형제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이상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접수의 형제는 벌써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자매를 찾아 주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와 연락이 다해 전화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샤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미안합니다.」

「형제들의 용건은 어떤 일입니까」

「자매들에게 이야기해도 좋은 것인지 아무쪼록...조금 판단하기 힘듭니다만」

「그러면 조금 기다려 주세요.」

...뒤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린다. 남편과 상담하고 있는 것 같다. 「Maybe apostates」(아마 배교자)라고 하는 자매의 말이 분명히 들려 왔다.

「여보세요...」

「자매, 아무래도 아시는 같네요.」

「...(5초 정도 침묵)」

「뒤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가 우연히 들려 왔기 때문에」

여기서 자매의 어조가 드르르 바뀐다.

「형제들의 목적이 몰라. 도대체 무엇이 목적이야」

「하, 아니오, 저기 목적이라고 해도, 특별히 무엇인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우리만으로는 어쩔 수 없게 되었으므로, 어떻게든 도와주실 수 없을까. 단지 그것뿐입니다만」

「그러면 결국, 책임이 있는 형제들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미 늦기 때문에, 내일 또 와 주세요. 타워즈호텔 알고 있어? 곧 나오겠지만.」

「하, 죄송합니다만 잘 모릅니다. 여기서 접수해 해주면 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형제들 호텔이 괜찮아. 베델에는 묵게 할 수 없어. 순회감독자 베델 봉사자가 아니면 안 되고 있으니」

「오늘 밤은 루즈벨트 호텔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내일 아침 9시경, 접수하러 올 것을 약속해 전화는 끝났다.

택시를 불러 주게 되었으므로, 당분간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 택시가 도착하는 무렵, 안쪽에서, 보기 좋게 머리가 벗겨진 상당한 연배의 형제가 나왔다. 공축해 끊었는데 가방을 택시까지지 옮겨주고, 꺼리는 접수형제를 동반하여, 일부러 전송해 주었다. 제명 후에, 여호와와의 증인으로부터 받은 얼마 안 되는 친절의 하나였다.

(3) 9월 7일 토요일 본부와의 교섭

여러가지 엑시던트가 있어, 예정보다 30분 정도 늦어 본부에 도착했다. 그 날은 연 1회의 방을 바꾸는 날이었기 때문에, 근처는 방을 찾아 걷는 형제들로 뒤끓고 있었다. 접수로 용건을 고했지만 요령부득이다. 연락이 붙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형제들은 다시 최초부터 다시 하기로 했다.

「형제들은 무엇을 해 주었으면 합니까.」
「문제를 바로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어떤 문제입니까」
「판결의 문제입니다」
「OK, 조금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와이 출신의 형제들이 얘기해 왔다. 3세이므로 일본어는 이제 거의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텔에 들어갔던 바로 직후로, 지금부터 방을 결정하러 가는 중입니다. 베델 봉사의 연수에 따라, 점점 새롭고 좋은 방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것저것 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일본계 3세의 후르야 형제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도 방 바꾸는 것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별써) 잠시 기다리게 되었다. 그 때 프런트의 형제로부터 다시 소리가 나돌았다.

「형제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판결의 문제입니다」
「사법 위원회는 열렸습니까.」
「네」
「그러면 상소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상소 위원회는 벌써 끝났습니다.」
「그것은 정말입니까.」
「네」
「그렇다면 “보다 높은 판결”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군요.」
「그 대로입니다」
「OK,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후르야 형제가 돌아왔다. 프런트의 형제와 이야기한 뒤 감독자들에게 연락을 해 주었지만, 「만날 수 없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다.

「그것은 이상하다. 어제는 확실히 책임이 있는 형제들을 만나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약속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 것은 누구입니까」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자매입니다」
「이름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와 누구였는지, 응, 그렇게, 확실히...아트자입니다. 아트자 자매라고 했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자매에게 연락하자, 타워즈호텔의 로비에서 만나 준다고 하는 것이 되었다.

아트자 자매는 딱딱한 표정으로 로비에 왔다. 웬 지 모르게 마지못해 왔다고 하는 느낌이었

다. 소파에 허리를 대자 다음과 같이 잘랐다.

「형제, 일 년 정도 기다리세요.」
(일년...그것은 곤란하다, 어떻게든 단기간으로 끝내고 싶다고 생각해 본부까지 왔는데)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자

「복귀할 수 있기도 하고」라며 복귀를 권해 왔다.

(복귀는 제명된 사람이 회개해서 조직으로 돌아오는 것,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 되어, 일본 지부의 사법조치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복귀! 터무니없다!

「그런 일을 하면 죄를 인정해 버리게 되겠지요.」
「자 형제들은 무엇을 해 주었으면 한 거야.」
「과에 쓰는 것으로 무릎. 우리는 진정한 배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배교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 주지 않겠습니까.」
「일본 지부에서는 아무것도 듣지 않아. 형제들의 정보만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째서? 취급할 생각이면 조사할 수가 있을 것인데. 본부이니까 그 정도의 권한은 있겠지요)
「거기에 형제, 비록 진실해도 일본인은 말투에 따라서는 오해 하겠지요.」
(그런 일은 알고 있다. 일본 지부가 이상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저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진실하다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든 해 주어도 좋은 것 같은 것인데)
「조직은요, 형제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커」
「예, 그것은 이쪽에 와서 보고 잘 알게 되었습니다만」
(조직이 크다는 이유로 하느님의 법을 굽혀도 좋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것도 입 다물고 있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 때 아트자 자매는 무슨 일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지 성서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일본 지부의 이상한 그룹에 의하는 것 토바 빌리고 생각하고 있던 우리는, 자매의 이 말을 듣고서 의외로 느꼈다.

어째서. 어디가 어려운 것일까. 거짓이나 위증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취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잘라 보았다.

「과수대지는 「네, 는, 네」의 잡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대로 회중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배교가 됩니까.」
「형제, 그런 일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소리로 나무랐다. 그런데도 낮 하지않고서

「밖에 해군요. 지역 감독자가 확실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배교자로 되었습니까들”이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화제를 바꿀 수 있어 버렸다.

「지금, 통치체는 다른 일로 임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직접 취급하지 않아. 지부에 모두 맡겨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통치체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권고할 수 있어요」

여기서 미야자카 형제가 갑자기 대답한 질문을 했다.

「지부가 문제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구 방문에서 취급합니다.」
(지구방문은 본부의 대표자가 정기적으로 각국의 지부를 방문하는 결정)
「그 옅의 드라마는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가 만들어도 실제로 것처럼은 하지 않습니까」

까.]

(1985년의 지역 대회에서 행해진 드라마로 읍이 고통가운데 곤란한 상황을 도와 공정한 판결을 행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다)

「.....」

아트자 자매도 대답이 곤란한 것 같았다.

「지부는 대회의 프로그램을 이제(벌써) 마음대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배교의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요, 최근 미국에서도 상당한 배교가 있었으므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짚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에요」

「.....」

아트자 자매가 침묵해 버렸으므로, 여기서 회화는 일단과 직물이라고 끝냈다. 그 때쯤 되자, 아마 이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책임 있는 형제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자매의 이야기로부터 판단하면, 통치체에는 금방 이 문제를 취급할 생각은 전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조금 시간을 두어, 아트자 자매는 미야자카 형제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권했다.

「그러면, 형제가, 편지를 써 꾸준히」

「.....」

「어쨌든 편지를 계속 쓰는 것. 일본 지부에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반드시 있을 것. 거기에 형제들이 편지를 계속 쓰면 무엇인가 문제가 밝혀질지도 모르기도 하고」

일본 지부에는 그 밖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적어도 통치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취급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얻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유감이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서비스·디파트먼트(봉사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분명히 쓰지 않으면 무엇을 해 주었으면 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쓰는 것. 우리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면 일 년 정도 편지를 계속 써 노력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잡지는 오지 않게 되고...」

「그것은 예약하면 좋을 것입니다」

「문서도 오지 않게 되고...」

「주문하면 좋을 것입니다」

「왕국 봉사도 오지 않게 되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나와 버렸다. 요컨대, 편지를 계속 써 일 년 정도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말로 취급해 주는지 어떤지의 보장도 전혀 없고. 그러나 어떻게든 모두 단념할 수는 없었고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자매, 법정에는 하늘의 법정과 지상의 법정이 있겠지요」

“어쨌서 통치체는 하늘의 법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늘의 법정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려고 했지만, 자매는 이야기를 차단해 버렸다.

「형제들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므로 이미 물어봐도 무의미하다.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취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유감이네요. 회중은 두 동강이가 된 것입니까」

「그래요. 왕국 회관도 세우기로 말했었는데」

「.....」

「그러면 대회의 주제 밖에 없겠네요..」

「.....」

「Integrity Keeper」(충절 고수자)

대화는 끝났다. 순식간에 1시간 반이 지나 시각은 12시 반이 되었다. 아트자 자매는 남편이라는 약속의 시간이라고 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엘리베이터의 근처까지 보내 가면 마지막으로, 「형제 노력해요」라고 하며 떠나갔다.

후르야 형제는 대화를 듣고서, 어떻게든 해 주고 싶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몇 번이나 책임이 있는 형제들에게 연락을 해 주었던 듯하다. 가끔 자리를 비워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전화가 끝나자 그의 표정은 일변해 버렸다.

「내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가지면 형제의 조직에 대한 충성이 시험 받습니다.』라고. 몇 번 시도해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마 안 되겠지요.」. 그는 떨고 있었다. 확실히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한 모습으로, 뉴욕 방문 가운데 한층 더, 강렬한 인상으로서 남았다. 후르야 형제는 정말로 충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성의가 넘치고 있었다. 그런 사람을 단 한마디로, 저렇게까지 바꾸어 버리는. 조직이라는 말에는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대단해”라고 생각했다.

아마 이 때의 강렬한 인상이 “조직 바알”을 생각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본부의 결론이 나와 버린 이상, 이제 뉴욕에 있을 필요는 없다. 비행기의 예약을 변경해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해, 그 교섭을 후르야 형제에게 부탁했다. 그는 매우 곤란해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런데도 예약 변경을 시도하고, 택시, 호텔의 준비 등의 친절을 나타내 주었다. 결국, 예약의 변경은 안 되었다.

「정말로 이것으로 마지막일까, 이것으로 끝나 버릴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타워즈호텔을 뒤로 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붙은 것은 모터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 체크·인을 끝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자 공연히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왠지 이상해지지만, 이때는 온전히 일본에 돌아갈 수 있을까하고 진심으로 걱정했다. 어쨌든 뉴욕의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고, 하루에 500달러(12만 엔)나 사용해 버렸기 때문이다.

어쨌든 점심식사를 배달시키려고 밖으로 나왔다. 장소를 확인해 보니 42 번가의 웨스트사이드였다. 일식점을 찾아 대로를 4블럭 정도 걸어가니까, 「소천」이라고 하는 가게가 발견되었다. 거기서 케네디 공항에 가는 방법을 물어 호텔의 근처에 버스 센터가 있다는 것을 듣고서 우선 안심했다.

(4) 국제연합, 매트ropolis·박물관

결국 예약의 변경은 하지 못하고, 형제들은 뉴욕 견학을 즐기기로 했다. 최초로 물은 것은 국제연합이었다.

유엔은 가까운 장래, 종교와의 관련으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 성서 예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불과에서도 그러한 징후가 있을지 어떨지를 형제들은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월요일의 오후에 견학했지만, 우연히 월 2회 밖에 없는 일본어 안내가 시작되는 15분전에 유엔 빌딩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 견학 코스를 돌면서, 성서 예언과의 관련으로부터 상임이사국에 대해 자세하게 물었다.

「상임이사회는 결정할 수 있었을 때에 밖에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상임 이사의 한사람이 소집하면, 언제라도 열 수가 있습니다」

「최근, 그러한 일은 있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상임이사회의 결의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일까요」

「상임이사회와 국제연합총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등과 끈질기게 물은 탓일까, 가이드양은 「자료를 드릴까요」라고 말하며, 자료실로 안내해 주었다. 여러 가지 자료(1년간의 결의사항, 주요 기관 명부등)를 입수하고서, 유엔을 뒤로 했다.

둘이서 유엔의 빌딩을 바라보면서

「형제, 아직도 때가 안 된 것 같구나」

「응응, 이것은 당분간 없어」

다음날, 매트ropolis 박물관에 나갔다. 건물은 매우 큰 것으로,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 각국의 유리 세공, 명화, 중세 유럽의 무기의 전시 등, 진열물이 많음과 그 규모에 압도되어 전부를 보려면 완전히 지쳐 버릴 정도였다.

특히 인상에 남은 것은 종교그림의 수가 많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종교가 사람들의 사상에 깊게 관계해 왔는지를 느끼게 할 수 있었다. 미국, 유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이미지로부터 멀어져, 반대한다고 해도 찬성 한다고 해도, 백지로 그리스도교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통감했다.

무심코 멈춰 서 버린 것은, 프리바 샘에서의 모세를 그린 그림 앞에서였다. 격노해 바위를 깨뜨리는 모세, 쾌락에 빠진 이스라엘사람들, 그것을 위로부터 서늘하게 응시하는 천사들.

「아니, 모세도 큰 일 이었었어.」

「응, 그렇다. 그렇다 치더라도 현대의 백성에 대해서도 바뀌지 않아」

9월 13일, 오전 8시, 버스 스테이션에서 케네디 공항으로 향한다. 오전 11시 10분 노스웨스트 017편으로 귀국.

9월 14일, 오후 19시 40분 치토세 공항 도착.

8장 Legal Case

(1) 사법문제(법적 소송)

여호와와의 증인은, 법적 순서를 밟아 다루는 문제를 사법문제라고 부르고 있다. 본부에서의 대화를 기초로, 이번 사건을 사법문제로서 상정하면, 3가지 해결 패턴이 생각되었다.

- I. 일본 지부 안에 누군가 진실을 사랑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해결에 나선다.
 - II. 지구감독자의 방문에서 다루어진다.
 - III. 통치체가 결정하여 직접 다룬다.
-
- I. 대화의 프로그램등으로 판단하면, 현실적인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었다. 단지 단계를 밟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 II. 회중이 가장 기대하고 있던 것은 이 코스로 모아졌다. 다만 지부가 문제로, 통치체와 본부는 정상적이라는 조건부였다.
 - III. 이 가능성은 적었다. 본부와 통치체는 조직상으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직 전체가 부패하고 있다고 하는 최악의 케이스를 상정했을 경우, 통치체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므로, 그 때에 필요한 법적 순서였다.

형제들이 귀국하자 회중은 즉시 이 작업을 개시했다.

(2) 순서를 밟는다

<1985년 9월 중순~11월 중순 대화의 신청 >

카나자와 형제는 일본 지부, 히로시마 회중의 대표자 오구마 형제, 순회 감독 미야자키 형제에게 대화를 신청했다.

일본 지부에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보았다.

1985년 11월 10일

친애하는 형제들

말할 필요도 없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 전도인 이전의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명확한 거짓을 수락 위증을 용인한다면, 하늘의 법정에 대해서 부실한 사람이 되어, 죄를 범하게 되어 버립니다. (사도1:1~5) 우리는, 그러한 의미로 인간적인 것을 나타내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부에서는, 일본 지부 안에도 알아주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의 편지에도 기록했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권위와 그 지상통로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화의 길을 열어 주실 수 없을까요. 서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해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인도를 빌면서
카나자와 츠카사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친애하는 형제들

성서 교육을 위해 귀중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것에,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층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여호와를 섬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불행하게도 이와 같이 된 것은, 본부에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적지 않은 오해나 부정확한 정보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소에서도 지금부터 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토쿄 세타가야 회중 하세가와 형제로부터의 연락에 의하면, 내가 본부에 쓴 편지가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사실일까요. 본부에 편지를 써 질문해도 좋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들은 것은, 파이오니아 봉사 강습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그 때, 순회 감독자 카사이 형제에게 몇 번인가 다짐해 물었습니다만, 문제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후 83년 12월에, 그때까지 의문을 갖고 있던 교리상의 7가지 점에 대해 질문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본부로부터 받은 대답은 지극히 계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아무래도 한마디 전하고 싶어서, 금년의 2월에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대답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만, 친절하게도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 본부에 편지를 쓰는 것이 조직상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순회 감독이 인정할 것은 아니고, 본부가 대답을 보내는 일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나에게서는 모르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또 진리의 백성으로서 그 하느님 여호와와 어울리게 거짓을 미워하고, 위증을 피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표준도 또 일반 사회보다 훨씬 높고, 사도5:1-6의 성구나 「연합된 승배」 책 p. 53에 기록되고 있는 레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이 위증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거짓에 참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면, 그 죄에 참여하게 되어 버립니다. 비록 그것이 도시감독자나 지역감독자라도, 또 다른 누구라 해도 그 원칙에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특권이나 입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면, 확실히 하느님의 생각은 아니고 인간의 생각을 안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마태16:23) 거짓의 아버지는 사탄이고, 모든 문제는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어, 거짓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주권쟁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인간적」이라고 가정된 것에 불과하며, 인간적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법정의 앞에 관련된 사람 모두가 자신의 믿음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는 편이,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우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심과 신앙은 인간 및 조직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본질적 identity가 관련된 경우에는, 하늘의 법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편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더해 우리에게서 동기어 어떤 부끄러움도 없었기 때문에, 테이프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놔두었

습니다. 우리의 진실을 요구하는 절규는 모두 무시되었으므로, 지부도 인간은 아닐까 생각 본부에 부탁하는 것 외에 없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9월에 본부에 갔을 때 생각이 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반항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실과 공정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것인지는 요한3:19-21에 따르면 시험해 보면 당장이라도 밝혀지는 것은 아닐까요.

거듭해서 형제께 부탁드립니다만, 거짓에 참가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로운 표준을 제대로 옹호하는 형제들을 보내서, 한 번 더 조사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하여 하늘의 법정 앞에서, 인간적결정이 아니었음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 점이 있다면 아무쪼록 가르쳐 주실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아래 사라지면, 기쁘게 조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도와 은혜를 빌면서
카나자와 츠카사

상소 위원회의 대표자, 미야자키 형제에게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친애하는 미야자키 형제

순회 감독자로서 충실한 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늘어나 더해진 특권과 동시에, 양에 대한 책임도 통감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7월의 그 사법판결로부터 4개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우리는 변함없이 계속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작지만, 로마8:38, 39를 실감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형제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며 계속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 진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음의 점을 한 번 더 잘 고려해 봐 주실 수 없을까요.

- (1) 사법결정의 근거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증거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왜 제명 되었는지, 어째서 배교자 취급이 되었는지, 아직껏 이해할 수 없는 채로 있습니다)
- (2) 한쪽의 일방적인 견해로 결론을 내려 버렸다. (우리에게는 한 번도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 (3) 제출된 질문이나 소원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답하지 않고, 착각의 대답을 해, 정직하고 성의있는 태도를 전혀 가리키지 않았다.

상소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 되는 만큼, 하늘의 법정에 대할 책임도 그 만큼 무거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진실과 진리에 근거해 사법모임이 진행되었다면, 과연 이러한 사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꼭 하늘의 법정에 대해서 무엇을 내던져 버렸는지를 잘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우리는 형제의 순회구안에 있습니다. 순회감독자는 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계실 것이므로, 우리와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형제는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 법정에서 나타내는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것을 진실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풍부하게 일하기바라며

카나자와츠카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도록 가르쳐 주셨으면 한다.」고까지 전해 보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일본지부가 처음부터 정리할 생각이었다는 것은, 이것으로 의문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 시기에, 거짓이나 위증은 우리가 날조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므로, 다음의 성구를 선물 해 보았다.

「19 그런데 심판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20 사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책망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21 그러나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옵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어 행하여졌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요한3:19~21)

우리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조사를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할 필요는 없다. 빛을 피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꺼림칙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각이 있는 증거이다.

<1985년 11월 중순~12월 회개의 권유 >

요즘, 사건의 발단이 된 A, K 두 명의 자매가 회개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갔다. 그래서 지부에 보낸 위증에 관해서도 회개하도록 권했다. 「여호와와 모든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면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말해 주세요. 회개가 진짜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요지의 편지를 두 명에게 보냈다. 그에 더해, 이미 두 명의 당사자 사사야마, 후지와라 형제에게도 마찬가지로 진실을 옹호하라는 편지를 썼다.

친애하는 사사야마 형제

역시 이번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꽤 전부터 그것도 다른 차원에서 시작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그 보고, 고발이 모든 기점이 되어 있습니다.

순회 방문 때, 세노 형제에게 질문했는데, 「자신은 잘 기억하지 않았다. 사사야마 형제였다고 생각하지만 확실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졌습니다. 또 협회의 편지에도, 히로시마 회중을 걱정해 협회에 보고한 것은 세노 형제는 아니고, 사사야마 형제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본래 회중을 걱정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확실히 순회감독자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initiative를 취했다고 하면, 상기의 반응이나 협회의 편지의 내용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어떻든지, 실제 상으로는 역시 형제가 그 보고에 관한 법적 책임자라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 initiative를 취한 본인이 아니면, 피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데, 법적 레벨로 게다가 조직적으로 사물을 취급할 때에는, 특히, fact (단순한 행위나 사실)와 truth (진리, 입증된 사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제도 생각하신 일이지요. 그러나, 부디 한번 더 고려해 봐 주실 수 없을까요. A자매, K자매, 사사야마 형제가 느낀 것, 생각한 것, 생각한 것, 그것은 확실히 fact인 것으로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명이 fact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으로 사물 전체의 truth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확증, 입증의 process가 필요하게 됩니다. 형제 자신, 몇번인가 명확하게 그 순서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고는, 단순한 형제들의 차원에서 사실이라도, 사물 그 자체 및 회중의 레벨에서는, 결코 truth는 아니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의 시점에서 그 확신이 있다면, 그 후에 열심히 증거를 찾을 필요는 이미 없을테니까요. 그렇다면 하면, truth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게다가, 방법이 빛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빛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것이 됩니다.

거기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보고가 사법문제(legal case)로서 다루어졌을 경우, 그것은 단지 보고로 끝날까 하는 점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legal case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증이 됩니다. 형제도 그것을 잘 아시는 바 이유, 도저히 평소의 사사야마 형제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 같은 이상한 일을 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진행시켜서, 지상의 법정에 대해서 만이 아니고, 하늘의 법정에 대한 책임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권 쟁점에 의하면, 일상의 걸어 모든 것이 legal case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상의 법정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하늘의 법정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윽고 뒤집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19:18;잠언19:5,9;21:6;25:18;26:28;사도5:1-5)

지원에 관해서는, 형제도 여호와와 명령에 대해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으므로, 회중에게 반항적, 비협조적인 자매들의 이기적인 호소에 의해서, 하나의 회중을 희생

했다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면 안 될까요.

우리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카나자와 츠카사

※ 참고

(1) 영과 영혼은 그 사람이 변화하면,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고, 떼어낼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조정을 완고하게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불경건한 세상의 정신을 차단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권유받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 변화는 무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호와께 말하는 것이 됩니다.

(2)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부모의 일이며, 친구의 의무가 아닙니다. 양식 공급은 우정의 표시가 아니라, 스토르게의 증명입니다. 필리아는 역시 confidential talk(친밀한 회화) 및 그 이해가 특징이 됩니다. 필리아와 스토르게를 혼동하면, 벗에 대한 이해가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사사야마 형제의 주장에 대한 코멘트이다)

파수대지, 1985년 11월 1일호에는 「그리스도인 성품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연구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 22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번역자각주-한국어는85년12월15일호)

「하나님의 남자는 권세욕이나 명예욕에 더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지위가 주는 이점으로 그를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의지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는 겸손의 특성을 사랑하며,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대한 건전한 두려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잠언 22:4)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남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몇 가지 특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남자는 양심, 선한 마음 및 합당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 1:5; 잠언 4:23) 그는 양심을 범하고 의로운 원칙들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마음과 합당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 13:18) 그는 더러운 행실과 행위가 자기의 선한 동기를 침식하게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세아 4:11) 그는 계속 자신을 징계하여, 자신의 마음이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행에서 원칙을 준수하는 남자로 두드러집니다.-시 15:1, 2.」

(밑줄은 히로시마 회중)

후지와라 형제에게는 「부디 이 잡지에 그려져 있는 대로 모범을 나타내 주세요」라고 전했다. 이하에 그 편지의 1개를 게재하기로 한다.

친애하는 형제에게

드디어 추위가 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만, 공사 모두 바쁜 매일을 잘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히로시마 회중이 형제들에 의해 2개로 되고 나서 이미 5개월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한데 합쳐 전도와 집회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조직에 반항하거나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조직에 충성하고 있었을 때, 나와 버렸습니다.

형제는 주인(남편)과의 전화때, 「나는 위와 아래가 양퇴진곡에 빠지고 있다. 용서해 주세요」(이)라고 말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기억도 새로운 1985년 11월 1일호의 파수대 연구 기사에는 그리스도인 남자로서의 아름다움은 무언가에 붙어 자세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형제는 입장 상 이 기사는 몇 번이나 읽으셨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의 10항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특히 하나님께 속한 남자라는 증거인 것, 또 한번 더 반복해 19항에는, 「우리가 실수를 인정할 때, 겸허와 겸손이라는 귀중한 특성들을 배양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와는, 이러한 마음에 한 조각의 흐림도 없는 그리스도인 남자를 환영하시는 것이 아

닐까요. 아무쪼록 용기를 내, 하느님께 속한 남자라는 증거를 나타내 주실 수 없을까요. 히로시마 회중에게 오셔서 이번이야말로 진실에 기초를 둔 공정한 재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명이 될 만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았습니다. 60명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부디 아무쪼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12 월 초순이 되자, 오구마 형제로부터 회개를 권한 몇 통인가의 편지가 반환되어 왔다. 그때 그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왔다.

1985년 12월 6일

전략 카나자와 츠카사님

종종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나로서는, 회중 하지메 장로로서 전면적으로 그 조직의 결정에 따라 걸을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제명자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조직에 머무르고 있는 이상, 이 건에 관한 여호와 하느님과 조직의 결정을 밝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절의 교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용기라든지 개인적인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조직」책 p. 149, 150의 경우 뿐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상기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구마 히로유키

(번역자각주-“우리의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됨”책 149,150면에서는 제명자가 복귀탄원을 할 경우 평가를 위해 만날 수 있음이 나온다. 그러나 장로가 먼저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과거의 이러한 규정은 1991년 4월 15일 호 「과수대」 21-3면에 주어진 교훈에 따라서 배교자를 제외하고는 장로들이 술선하여 만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그 기사에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화” “탕자”에 관한 새로운 시각의 해설이 실렸다.)

이것에 의해, 당사자들에게는 진실을 옹호 할 생각도, 여호와 앞에서 회개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그들의 마음의 사이는 조직인 것, 실제로는 여호와보다 조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1985년 12월 하순 감독자들에게로의 탄원 >

감독자들에게로의 탄원을 시작하기 전에, A, K 두 자매, 사사야마, 후지와라 형제 각자의 위증의 서신을 작성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더해 그들에게 보냈다.

친애하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정직하게 고백해서 사물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시다만, 것처럼 해 주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이와 같게 하고 싶지 않았습시다, 여호와의 이름과 진리를 위해서 이러한 통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거짓, 위증에 관해서 의의가 있으시다면, 도착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통지해 주십시오. 만약 아무 통지도 없다면, 히로시마 회중으로서 이러한 고발문을 승인하신 것으로 간주하도록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산출의 표준으로 생각하면(10월 15일호 과수대 첫 번째 연구 기사) 여지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실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을, 하늘의 법정 앞에서 스스로 가리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왕의 의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히로시마 회중

전원이 수취를 거부해, 어떤 연락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서신을 소장으로서 특별, 상소위원회 양 위원회의 감독자들(후지와라 형제를 생각한다)에게 보내, 동시에 회중 전체

가 탄원을 개시했다.

<1986년 1월~3월 10일 일본 지부에의 탄원과 확인 >

「특별, 상소 양위원회가 진실을 옹호하여 공정한 판결을 행하도록, 일본지부 차원에서 지도해 주세요」라는 탄원을 7명의 지부 위원, 오다 쇼우타로우, 스기우라 유우, 후지모토 료스케, 혼마년웅, 이케하타 시게오, 제임스·만트, 파시·이즈 러브 및 아베 타카시의 각 형제에게 보낸다.

특별, 상소 양위원회에 아무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2월 16일, 일본 지부에 4명의 속임수, 위증에 관한 소장을 보낸다.

1986년 2월 16일

위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친애하는 형제들

영적 낙원의 왕 예수·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성취되고 있는 예언 가운데 이사야 11:1~5절이 있습니다. 그 성구는 예수·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단지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낮은 자들을 의로 재판하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예스의 재판을 보고 모방해 영적낙원의 왕께서 인정하시는 재판을 행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하에 적는 점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요.

- <1> 치우친 보고만으로 재판을 행하지 않고, 양쪽 모두의 정보에 귀를 기울인다.
- <2> 선입관으로 재판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사물이 있는 대로 상태를 받아들인다.
- <3> 재판의 결정은 진리의 말씀, 성서에 근거해 내려진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이번 문제를 취급한 특별위원회원, 및 상소 위원의 감독들은 예수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으로 판결을 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부의 형제들에게 부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의로운 의에 입각한 하느님의 심판을 행해 주셨으면 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적어도 제명에 적합한 일은 결코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는, 동봉한 속임수, 위증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신다면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이와 같이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선 문제의 발단이 된 두 명의 자매들, 한층 더 사사야마 형제, 후지와라 형제에게, 거짓을 바로잡아 진실을 위해서 행동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만, 형제자매들은 것처럼 해 주십시오 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속임, 위증」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적어, 각각의 형제자매에게 보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도록 전했습니다만, 무슨 연락도 없었습니다. 암묵의 승낙으로 간주해, 그 내용을 특별위원회원, 상소 위원의 감독들에게 보내, 거짓으로 왜곡할 수 있었던 판결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부탁했습니다만, 2개월 정도가 지나버린 지금, 어떠한 응답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부의 형제들에게 공정한 판결의 부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리의 하느님, 여호와는 속임수가 없으며, 거짓을 미워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독생자 예수께서는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결코 입술만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하느님 여호와와 예수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지상조직이라면 반드시 진실과, 진리를 위해서 행동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느님의 이름에 어울리게 일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을 전합니다.

훗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2월 27일, 지부에 최종적인 확인을 행한다.

위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친애하는 형제들

먼저 2월 16 날짜의 편지를 보내, 진리에 근거하는 공의로운 의에 근거한 판결을 행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아무런 연락도 없습시다만, 취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인가요. 이쪽에서는 이미 끝난 문제이므로 지부가 다시 다루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전달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형제들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가르쳐 주시면 다행입니다.

「성경을 사용하여 추리함」 책 297 페이지에는 하느님의 조직을 분별하는 7가지 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처음 3개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번역자각주-한국어는 “조직”제하 355면)

<1> 그 조직은 진실로 여호와를 오직 한 분의 참 하느님으로 드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미한다.-마태 4:10; 요한 17:3.

<2> 그 조직은 여호와의 목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여호와의 주권의 입증자, 생명의 으뜸 행위자, 그리스도인 회중의 머리, 통치하는 메시아 왕이라는 역할-을 인정한다.-게시 19:11-13; 12:10; 사도 5:31; 에베소 1:22, 23.

<3> 그 조직은 하느님의 영감받은 말씀에 밀접히 고착하며, 모든 가르침과 행실의 표준은 성서에 근거를 둔 것이다.-디모데 둘째 3:16, 17.

진리로 가득 차 있어 속이는 것 등 결코 할 수 없는 여호와 하느님을 유일하신 하느님으로 숭배하여, 다른 어떤 것이라도(비록 그것이 개념화 된 조직이라도) 상대적인 숭배를 드리지 않는, 확실히 하느님의 조직이라면 「속임, 위증」(그것이 어떤 입장의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해도)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진 상태를 그대로 놔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 하셔서 하늘왕국을 통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의 지도자, 회중의 머리, 왕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모범을 보고 본받도록, 진심으로 노력해야 하지 아닐까요.

더군다나 「영원히 살 수 있다.」 책 187 페이지 10항에도 진술되고 있듯이, 결정의 표준은 단순히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사람의 생명이 관련된 재판의 문제에서는 특히...최종적인 권위로서 성서에 호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느님의 법을 공의롭게 시행하는 것에 특별한 주위를 기울여야 할 영적 낙원의 감독자라면(이사야32:1, 2) 반드시 그처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진리의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에 어울리게 일을 바로잡아서, 그처럼 해 천적 권위의 신권 조직이라는 것을, 일본 지부의 형제들이 보여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986년 3월 11일까지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가 지나도, 아무런 통지가 없고, 아무것도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 지부로서의 최종결정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하느님의 조직의 identity를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물론 한정된 의미에 대해서입니다만)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결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부면에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분의 이름이 입증되기를 기도하면서
훗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히로시마 회중은 3월 10일까지 600통 이상에 이르는 탄원의 편지를 보냈다. 형제자매들이 쓴 편지의 일부를 이하에 소개하자.

훗카이도 히로시마 회중에서 생겼던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부탁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열심 있는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심을 나도 집회, 봉사, 또 나날의 생활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간직하며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조직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며,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거짓과, 불공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명되어 버렸습니다. (시편26:4)

그래서 어떠한 사법판결이 히로시마에서 행해졌는지 조사해 주실 수 없을까요.

진리의 조직은, 진실에 기초를 두어 사물을 취급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불공정한 재판이 여호와의 이름 아래에서, 또 조직의 이름 아래에서 행해진 것을 나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가르쳐 주신다면 기쁘게 조정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제명이 될 정도로 완고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이번 사건에서는 무엇이 옳바르며 무엇이 실수인지, 또 옳은 일을 바란 사람들이 제명되어, 여호와의 이름에 비난을 가져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으므로,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출판물에서 배운 결정에 따르는 것이 조직에 대해 순종하는 것인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 따르는 것이 조직에 대해 순종하는 것인지, 그 때 자신의 양심이나 믿음은 어떠한 자리 매김이 되는지 표준을 어디에 두어야 좋은 것인지, 향후의 삶의 방법에도 관련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가르쳐 주세요.

상소 위원회는 17명의 자매들을 1985년 8월 4일14:00부터 호출했습니다. 상소 위원 테구치 형제는 「같은 장소에 호출했다고 해도 모두 함께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 줄 생각에서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사람에 5분에서 10분 만에 생명이 관련된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사람 당 30분이라고 해도 마지막 사람은 22:30분에 끝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자매들을 심리하는 시간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상소 위원회 형제들에게 마태18:12~14의 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했습니다.

<1986년 3월 12일~12월 7 일본부에의 탄원과 확인 >

3월 12일부로 일본 지부에 관한 소장을 본부의 봉사부에 보냈다.

1986년 3월 12일

친애하는 형제들

사탄의 세상의 어둠이 깊어감에 따라, 사람들의 정신도 점차 황폐 해 가는 가운데, 과수대지가 하느님의 의로운 표준을 확고한 태도로 옹호 해, 영적으로 상쾌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편지로 보내 드렸으므로, 이미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난번에는 사법적으로(legal case 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러한 형태로 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을 보려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 보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모든 시도는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여지는 남아 있는지도 모릅니다만, 주위의 상황도 꽤 압박해 왔으므로, 어쩔수 없이 동봉의 소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본부의 형제들이 「하느님의 의와 공의와 진리에 근거한, 보다 높은 재판」을 행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것처럼 해서 영적 낙원에 어울리게 일

이 바로잡혀서(스가랴8:16, 17) 여호와와 이름이 순결하게 입증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우리의 구원도 고려해 주신다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이하는 1985년 9월 중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간단한 경과입니다.

일본에 돌아가고 나서, 우선 어떻게든 해결을 목표로 해 서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고 그 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성서도 그 조직도 믿고 있으며, 배교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것, 다만 여호와 하느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 진리를 옹호해 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기꺼이 회개할 점을 성서를 통해서 그 점을 가르쳐 우리를 도와 주셨으면 하고 부탁했습니다만, 일본 지부로부터도 다른 누군가에게서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을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 판단해, 우리의 발언이나 행동 중에 문제로 여겨진 부분의 진심을 전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계속되어 문제의 발단이 된 두 명의 자매에게는, 한층 더 사사야마 형제, 후지와라 형제에게 정직하게 진실을 고백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용기를 가져 행동해 주시도록 계속 부탁했습니다만, 히로시마 회중의 장로가 그러한 편지의 일부를 반환하는데 이르러 쓸데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속임수, 위증」의 소장을 작성해, 우선 각각의 당사자에게 그것을 보내,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신청해 주실 것을 전했습니다. 기한이 지나가 버려, 아무 통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 위원회, 및 상소 위원회에 제출해서, 거것을 바로잡아 진리를 분명히 해 주시도록 신청했습니다. 일본 지부 그리고 지부 위원의 형제에게, 한층 더 양위원회의 감독들에게 회중 전체가 탄원을 계속하면서 2개월 정도 기다렸습지만 끝내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일본 지부에 문제를 제소하는 것에 결정 2월 17일에 별지 A의 편지(전술 2월 16 일자의 편지)를 더해 직접 지부에 보냈습니다.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2월 28일에 확인의 편지 별지 B(전술 2월 27일의 편지)를 냈습니다. 3월 11일이 지났으므로 우리로서는 일본 지부가 최종적으로 일을 바로잡아 주실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부의 여러분에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 하느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생각이 없습니다. (요한3:19~21) 진실은 조사해 보시면 저절로 밝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안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발생한 사건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이름과 참 숭배가 훼손되어 하느님의 조직이 나쁜 평판을 받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Yes means Yes 의 원칙대로, 성서와 위치타워 출판물을 통해서 권유받고 있는 것은 진실하게 행해야 할 것임을 일본에서도, 또 여기 히로시마에서도 증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우리는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여호와와 행사를 진실하게 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과분하신 친절과 자비를 나타내어 우리의 소원을 받아주시기를, 여호와 하느님이 이 일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천군을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형제들로부터의 연락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사랑을 전합니다.

그 후 11월까지 탄원의 계속 편지를 보냈다. 이하는 회중에서 보낸 편지의 아주 일부이다.

출판물을 통해 본부의 형제들은 큰 무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1986년 7월 1일호에서는 권위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이와 같이 써 있었습니다.

「만일 어떤 정부 관리가 불공평하고 자신의 권위를 남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개인들이나 인기없는 소수 민족 집단을 차별 대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서는 이렇게 교훈한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불찌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전도 5:8)…」

(번역자각주-한국어는86년8월15일호 “상대적 권위로부터의 해방”소제목 제하 6면)

가르치기는 하면서 써 있는 대로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법정에서 형제들을 위선자로 보지 않을까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점을 숙고하여 반드시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수대지로부터의 교육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요. 우리는 지금도 여호와께서 출판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제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배운 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켜 가는 것으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누구나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뿐 만인 교육은 아닐 것입니다.

과수대지에는 재판을 행하는 감독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훈계가 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연로자들에게 훈계를 주어 다음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편파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똑같이 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신명기1:17)(86, 6/1p. 21)

(역자각주-해당기사의 한국어판은 확인 못했음. 한국어잡지에는 비슷한 내용이 92년7월1일호에 실렸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이러하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한 이러한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 공정히[“의로”, 「신세」] 판결할 것이[라] …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라.]”(신명 1:16, 17)」(과92.7/1 “장로 여러분, 의로 판결하시오.”기사 11항)

우리의 문제를 취급하는 형제들도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독자들은 그 책임을 여호와 하느님 앞에서 이행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와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느님께서 그 책임을 물겠지요. (나훔 1:3)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지 말아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여호와와 이름 지닌 백성 중에 한 명이라면 에스겔 3:2~16에 진술되어 있는, 「없어진 것을 묻고 요구하고 해산시켜진 것을 데리고 돌아와, 처부수어진 것에 봉대를 해, 병들고 있는 것을 강하게 한다」갈게 실제로 행동해, 사태를 일각이라도 빨리 바로잡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사야61:3에 나오듯이, 머지않아 하늘에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전지를 지배하는 말하자면 「의의 큰 나무, 영적 거인」으로 불리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 정신을 나타내 땅의 한쪽 구석의 작은 존재의 우리에게도 주위를 기울여 해 주셔, 의와 공의와 진실에 기초를 두어 불공정한 재판에 관한 호소를 채택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코끼리의 귀는 너무 커서, 개미의 소리는 닿지 않는 것일까요. 코끼리는 개미를 밟아 부수어도 아픈 것도 가려운 것도 아닌 것일까요. 진리의 조직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는, 여호와와 증인은 유일한 진리의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든지 불완전하여 많은 잘못을 범합니다만, 진리의 조직이라면 적어도 입장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제시된 진실 앞에서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물며, 아무 근거도 없이 재판해 버리다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또 누구를 위한 재판인지, 나로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역대기둘째19:6, 7) 게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감독자 형제들에게 「우리에게 나쁜 점이 있다면 고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도 어떤 도움도 베풀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이 진실을 갖고 있다면, 그 진실을 우리들 앞에 제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8개월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화」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평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하느님도 인류의 평화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은 단지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 문제도 관계있는 것은 아닐까요.

(번역자각주-1986년에 “하나님의 평화” 지역대회가 있었음.)

하느님은 우리가 항상 평화로울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마태5:9) 그러나 이러한 알 수 있는 개가 있어 좋은 것일까요. 게다가, 죄가 없는 저희가 왜, 제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신명기1:17에는, 「재판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일본 지부가 마음대로 또는 일방적으로 다루어 버리는 것일까요. 나는 그런 것이 이상해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에 왜일까 응과 풀음들은 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전의 신명기1:17의 전반에는 「여러분은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똑같이 들어 주어야 합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황 구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일까요. 나는 그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저희는 충고를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와, 예수를 본받아서, 공정한 재판을 실행해 주세요. (시편 37:28, 30) 정말로 저희가 나쁘다면, 곧바로 고치겠습니다.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도 해결해, 이사야60:22의 「그 작은 자가 천이 되고, 그 보잘것없는 자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는 예언을 완수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37:29의 「의로운 자들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그 위에 영원히 거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평화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고, 공의로운 심판을 실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6일 마침내 확인의 편지를 워치타워협회에 보냈다. 이것은 히로시마 회중에 있어서도 하나의 전환기가 되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직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6년 11월 6일

친애하는 형제들

본부의 여러분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질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986년 3월 12 날짜의 소장을 보내고 나서, 벌써 8개월 가까이 경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제 채택해 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취급하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도,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를 결정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5:37;7:16~20)

1986년 12월 7일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연락이 없는 경우는 호소를 치운 것이라고 받겠습니다. 다만...이번 문제의 내용, 및 그 성질로부터 해, 본부가 소장을 취급하지 않고, 한층 더 어떤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호와와 하늘의 법정」 앞에서, 이하에 적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고 판단하기로 하겠습니다.

(II역대19:6,7;시편82:1)

워치타워협회에 관계되어 하늘의 법정 앞에서 입증되는 것

1. 여호와와 이름과 그 신성을 증거 하는 것보다도, 「조직의 입장」을 우선 시켰다.
2. 「조직」을 「Concept Baal」로 해, 스스로 「조직 바알」의 숭배자임을 폭로했다.
3. 하느님의 유일한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identity를 나타내려고 하지는 않았다.
4. 진리, 진실보다 「조직논리」를 존중해 진정한 숭배의 identity를 나타내려 하지 않았다.
5. 위증, 거짓을 용인하는 것으로써, 진리의 길인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지 않았다.
6. 영적 낙원의 감독자로서 「공의」에 특별한 주위를 기울이려고 하지는 않고 하느님의 의를 뒤로 치웠다.
7. 출판물에서는 몇 번이나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는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행하려 하지 않았다.
8. 특권의 유무, 및 그 격차에 의해 차별을 두어, 공평한 취급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9. 진정한 실패는 양을 섬기는 조직이 아니라, 양이 섬기게 하려고 하는 조직이었다.

10. 입장이 안 좋으면, 성의를 나타내는 점에서는, 이 세상의 양심적인 조직보다 훨씬 뒤쳐져 있었다.

물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만, 본부의 여러분이 하느님의 조직, 진리의 조직으로서의 identity를 나타내 주신다면, 이 편지는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치타워협회에 관련하여, 앞에 올린 점이 입증된다고 하면 정말로 곤란한 일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잘못해도, 「성서의 권위」에서 「조직의 권위」가 우수한 등이라고 하는 성령을 경시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실 리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워치타워협회를 하느님의 조직으로서 순수하게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부디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하느님, 여호와와 이름이
높이 숭상받기를 바라며

<1986. 12.8. ~1987.3. 15. 통치체로 보낸 탄원과 확인 >

통치체의 성원 13명, F·W·프렌즈(회장), W·L·배리(부회장), A·D·슈로더, C·W·바버, J·E·바, D·시들릭, G·갱거스, J·C·부스, C·재라스, M·G·헨첼, M·포에트가, C·F·클라인, L·A·스윙글, 의 각자에 탄원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

우선 통치체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1986년 12월 9일

친애하는 통치체의 형제들

이번 사건, 및 거기에 따라 생긴 조직 승배의 문제에 대해, 형제들의 견해와 최종적인 결정을 알리고 있던 만이고 싶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여호와와 증인과 마찬가지로, 워치타워협회의 기능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얻고 있는 이해나 지식의 대부분은 형제들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느님 여호와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형제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역시 여호와 하느님과 참 승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유태 민 족중에서 진정한 승배가 돋보여 여호와와 이름이 모든 것을 이기고 높여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워치타워협회야말로, 그러한 하느님의 조직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워치타워협회 상태를...형제들로부터 배운 진정한 승배의 identity와 도대체 어떻게 조화시키면 좋은 것일까요.

작년 6월에 사건이 시작된 이래 우리가 탄원 해 왔던 것은, 하느님의 의에 진실하게 기초를 두어 공정하게 취급해 주셨으면 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서로부터, 그리고 워치타워협회의 출판물로부터 잘못이 증명된다면, 기꺼이 회개할 것이므로 부디 가르쳐 주셨으면 하고 반복해 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연락도 없었고,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조직의 힘으로 진실을 덮어 가리려고 하는 일본 지부의 태도는, 이 일 년과 수개월 끝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를 악취와 마찬가지로 피하는 것 같으며, 현재는 더럽혀진 사람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조직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확장은 여호와와 축복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부는 옳바릅니다.」라고 하는 요지의 일본 지부의 주장이 반복해서 전해졌습니다. 모아들여지고 있는 사람들의 질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확대와 우리의 재판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요. 확대하고 있다고 해도 재판을 굽혀도 좋다는 것이 아니며, 확대가 바알 승배를 정당화 할 수도 없지 않습니다.

본부의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물론 모릅니다만, 결과적으로 아

무것도 하지 않고, 진실을 곡해하여, 하늘 법정의 권위조차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가슴이 비는 것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교국의 위선을 규탄해 온 워치타워협회가, 어째서 거짓이나 위증, 바알 숭배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일본 지부라면 별로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본부는 설마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회중의 모든 성원들이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워치타워협회가 출판물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고 진실하게 기초를 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여호와와 증인의 교리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워치타워협회의 행위는 Yes means Yes 가 아닙니다. 조직을 높이는 것은 여호와를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고 믿고 있을지 어떨지는 모릅니다만, 조직 숭배라고 하는 바알 숭배를 멈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그러한 결론에 이릅니다.

워치타워협회는 Caesar의 인가에 의한 법인체 조직이기 때문에, 워치타워협회의 성서적 필연성은 슬기로운 종반열의 대표인 통치체에 의존하고 있게 됩니다. 여호와와 백성을 대하는 워치타워협회의 권위와 권력이 통치체로부터 오는 이상, 이 사건과 바알 숭배의 문제의 최종결정은 통치체의 형제들 앞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와 조직이라고 하는 identity를 하늘의 법정의 앞에서 가리키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부디 알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체로서의 워치타워협회의 이번 사건에 관계하는 행위나 태도가 승인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것인지, 그 점을 분명히해 주실 수 없을까요. Yes인가 No인가 그 정도 만으로 괜찮습니다의로, 어떠한 대답을 부탁할 수 있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의 결정을 소식하 사라지면 다행입니다.

참 숭배를 촉진하기 위해서 영혼을 다하고 계시는 형제들 위에, 계속 여호와와 영의 은혜와 인도가 풍부하게 있도록.

그리스도인사랑과 함께
훗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계속해서 형제, 자매들이 보낸 편지 중 몇 개를 뒤이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들은, 몇 번이나 편지를 썼습니다만, 대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통치체의 형제들이라면 다루어 줄 것이라고 믿고, 이 편지를 씁니다.

여호와와 조직은 일치해 배워, 격려가, 지금의 보통 문체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조직으로서는 이상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들은 이미에 돌아오고 싶기 때문에, 언제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형제에게 부탁 하고 싶습니다. 제발 간단한 정도만이라도 인도해 주세요.

나는 유일하신 참 하느님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장래의 희망, 그리고 자신의 일상생활에 조금씩 빛이 보여 온 것처럼 느껴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도 여호와와 증인과의 성서 연구를 통해 가르침 받아, 자신도 이 조직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서 불공정과, 거짓 등을 보거나 듣고 나서 실망해 버렸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느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직 안에서 인도하는 직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계속 하고 있다면, 여호와와 조직은 더러워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또, 기록하신 분 여호와께 모여 오는 많은 비둘기와 같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해 갈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사야60:8, 9) 나는 정말로 여호와와 조직이 참 숭배로 일치할 것을 바라고 있고, 그 중 한 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에 관해서 의회에서 거짓말 했던 것이 밝혀진 사건이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제도에서조차 일국의 지도자의 도덕적인 죄가 큰 문제가 되는데도, 진리의 조직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조직 내에서 이번 같은 불공정한 재판이 행해졌다는 것은, 하늘법정 앞에서는, 훨씬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아닐까요. 반드시 여러분도 마음 아파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신권 조직이 행하는 것은 모두 옳바르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통치체가 무류가 아니라고 배운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일까요. (승배 책 p. 120, 8항) 실수를 범했을 경우에는, 진실에 따라서 일을 바로잡는 편이 훨씬 진리의 조직에 어울리고, 또 협회가 가르쳐 왔던 것과 조화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쪼록 가르치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에 의해 여호와의 증인의 조직이 진리의 조직, 사랑의 조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충실한 여호와의 증인은, 이 조직이 구원을 위한 계시를 줄 수 있도록 「하느님이 이용하고 계시는」 유일한 통로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목자가 올바른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백성의 생명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승배는 부패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손상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한에 두고, 일본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야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도, 결코 호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이유는, 많은 경우 「나쁜 행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의 현상에 몹시 강한 위기감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본부의 형제들에게 호소해 왔습니다.

통치체 성원인 형제들,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침례 받은 형제들, 아무쪼록 그 증명으로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에 관심을 가져 영적낙원의 확립을 위해서 사태를 바로잡아 주세요.

1987년 1월 25일부로 일본지부, 및 본부의 감독자에 관한 소장을 통치체에 보낸다. 이것을 가져 워치타워협회, 통치체에 대한 절충의 모든 것은 종료하게 되었다.

1987년 1월 25일

친애하는 통치체의 형제들

여러분의 결정을 질문하는 1986년 12월 9 날짜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1개월 남짓 지났습니다만, 결론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본지부의 감독자들, 및 본부의 감독자들(봉사 위원회의 감독자들, 및 관련된 모든 감독자들)에 관한 소장을 보내는 것에 합니다.

우리는 통치체가 이 소장을 취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통치체가 하느님의 조직의 대표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느님의 조직의 identity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나타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여호와와 속일 수 없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조직에 불리하더라도, 거짓이나 위증이 용인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통치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상에서 여호와를 대표하는 분들로서 여호와의 신성을 증명해 주실까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교의 실체와 그 힘을 나타내 주실까요. 꼭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도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적절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연락을 위한 최종 기한을 명시해 두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기한은 「1987년 3월 15일」입니다.

이 날을 지나 덧붙여 아무 연락도 없으면, 여러분도 이 사건을 바로잡는 것을 방치한 것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 년 반에 걸쳐서 증거를 제출하고 호소해 왔습니다. 탄원을 위해서 보낸 편지는 천통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지부, 및 본부의 감독들은 이 모든 편지를 치웠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나 위증이 단순한 오해나 착각에 의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하게 의도적인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증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식적으로 거짓이나 위증을 계속 묵인할 수 있는 신앙과 그 양심을 생각하면, 이 사태는 이미 참 그리스도교로부터의 배교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체도, 30명의 제명을 포함한 일본 지부의 속임수, 위증을 용인한다고 하면, 하늘 법정에 있어 이하의 7개의 점이 통치체에 관해서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겠습니다.

- (1) 조직 바알을 선택하는 것으로, 유일하신 참 하느님 여호와와의 참 숭배를 버렸다.
- (2) 여호와와 신성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아들 예수의 영을 부인했다.
- (3) 예수·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예수를 따르는 침례를 부정했다.
- (4) 슬기로운 중 반열이라는 증명을 버렸다.
- (5) 왕의 법을 지키는 무리라는 증명을 버렸다.
- (6) 진실을 사랑한다는 것과, 빛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버렸다.
- (7) 성서논리와 조직논리를 조직의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위선자라는 것을 폭로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느님의 의와 공의와 자비에 근거해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상의 점이 「하늘의 법정」 앞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판단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남은자들 이라고 해도 성령이 제거돼 버리면 단순한 사람에 불과하며, 아무리 통치체라고 해도 성령이 거두어지면 단순한 인간조직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서 예언에 관한 우리의 이해에 의하면, 「여호와 앞에서 일을 바로잡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무래도 남은자를 대표하는 통치체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15)

그러나 굳이 여러분이 타작기가 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남은자, 진정한 아들 예수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갈을 시험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될까요. 아무래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그 때에는 여호와께서 필요한 힘과 이해와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 숭배의 번영과 그 승리를 빌면서
훗카이도 히로시마 회중

본부의 감독에 관한 호소

(봉사 위원회의 감독자, 및 관계할 책임이 있는 모든 감독자에 관해서)

[I] 속임수, 위증

일본 지부의 속임수, 위증을 용인했다.

[II] 유혈 죄

일본 지부에 의한 30명의 살인을 용인했다.

[III] 배교

(1) 일본 지부의 배교를 용인하는 것 뿐 아니라, 그것을 지지했다. 1987년 연감 p. 8에는, 그것이 반영되고 있다.

(2) 조직 바알을 창도 했다. 참조:1986년 3월~12월까지의 히로시마 회중으로부터의 모든 편지

- (3) 특권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느님의 의에 근거한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을 스스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히로시마 회중으로부터의 호소를 버리고 탄원을 계속 무시했다.
- (4) 진리의 책인 영감 받은 성서에 대해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를 취했다. 신세계역 성서 일본어판의 오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해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을 보내지 않았다.
(1986년 7월 21일 및 동년 11월 6 일자의 편지 1987년연감 p. 8 참조)

일본지부의 감독에 관한 고발

[I] 속임수, 위증

그 기준 : 사도5:1~6; 「연합된 숭배」 p. 53

- (1) SC:SD1985년 6월 14 날짜의 편지의 끝에는 「이 편지의 사본:제79 순회구 후지와라 타케히사 형제」라고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사본이 아니었다는 것은 후지와라 형제가 1985년 7월 11일의 집회에 대해 회중의 앞에서 그 편지를 낭독했을 때에 밝혀졌다.
- (2) 1985년 7월 9일, 후지와라 형제는 돌연 히로시마 회중을 방문했다. 그 때, 형제의 제안에 의해 방문목적은 일본 지부에 전화로 문의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화했는데, 「지역 감독자로서의 조사와 지원입니다」라는 대답을 얻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사법모임도 제명도 돕는 마련이 될 수 있다. 순회 방문 전, 세 명의 지원자, 및 특별 위원회가 사법 위원회를 열기 위한 근거를 찾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지만, 지원의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그뿐입니까」라고 물어 보았다. 좀처럼 대답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조사와 지원 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말은 불과3일 후에 뒤집어져 버렸다.
- (3) 사사야마, 후지와라 형제는 반복하여, 「우리는 일본 지부의 지시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부는 거짓이나 위증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이 된다. 사사야마 형제는, 「지부와 전화로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 가능성은 지극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에 더해 일본 지부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A, K자매, 사사야마, 후지와라 형제의 속임수, 위증을 승인했다.
- (4) 1985년 삿포로, 야토 지역 대회, 및 그 후의 순회 대회에 대해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진실을 왜곡해서 전한 모든 발언.
- (5) 각 회중의 장로회에 보낸 거짓된 편지.

[II] 살인

그 성서적 근거 : 요한 첫째3:15;

[증거]

- (1) 1985년 7월 12일에 일본 지부의 대표자 후지와라 형제는, 히로시마 회중에게 적의와 미움의 정신을 뿌리기 시작했다. 그 후 감독들은 현재에 이를 때까지 그 정신을 많이 조장 해 왔다.
- (2) 1985년 7월 15일 특별 위원회의 세노 형제는 「카나자와 형제들과 행동을 같이 한다면 조직에는 이제 영구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라고 자매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일본 지부가 처음부터 살의를 의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3) 공의로운 의에 근거한 판결을 요구하는 모든 소리를 무시하고 30명의 제명을 결정했다.

- (4) 근절 선언, 멸종 선언을 냈다.
- (5) 출판물, 잡지를 중단하여, 영적 양식을 끊으려고 했다.
- (6) 전근의 가능성이 있는 자매들이 복귀 방법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답도 보내지 않았다.
- (7) 천통을 넘는 탄원을 무시했다.

[III] 배교

정의 : 여호와에 대한 참 숭배(영과 진리에 의한) 혹은 여호와께서 그 헌신한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질서에 거역해서 취하는 행동
(KS81Jp. 166)

(번역자각주-KS81Jp는 '자신과 온 양 때에 유의하라'책 81년 일본어판을 가리킨다. 한국어 91년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 "배교에는 여호와에 대한 참 숭배 혹은 그분의 헌신한 백성 가운데 확립된 질서를 반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 증거]

(1) 파수대지의 의로운 결정에 대해 1985년 7월 9일~14일의 순회 방문에서, 후지와라 형제는 「파수대지의 의로운 표준」에 관한 일본 지부의 결정을 히로시마 회중에게 전했다. 요약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지막을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원의 표준은 침례의 규정이다. 따라서 높은 위치타위의 의로운 표준은 새 질서에 들어가고 나서 행하면 좋은 것이며, 현재는 반드시 그것을 행하도록 요구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개인의 임의에 맡기는 것이며 회중 전체에 철저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협회의 방침에 반하는 것이며, 배교행위가 된다.」 이 결정은 이하의 이유로써 통치체의 지시에 위반하고 있다.

- (a) 1984년에 천국 전도 강습에 있어서의 파수대 연구의 감독에 대한 지시: 「파수대 연구의 감독은 가능한 한 파수대지의 정신을 회중에게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지시에 반하고 있다.
- (b) A.D. 슈로더 형제가 1985년 5월에 지구 감독자로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 말한, 왕의 도리, 예언의 도리의 이야기에 반하고 있다.
- (c) 1985년 봄 순회 대회에 대해 장로회에게 주어진 지침 「파수대지의 늘어나 더해지는 빛을 회중에게 이해시키도록」하라고 하는 지시에 반하고 있다.
- (d) 파수대지는 그 이름처럼 마지막 날을 지키는 잡지라고 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기사에는 마지막 날을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르침이 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임의로 행하면 좋다고 하는 것은, 파수대지의 목적과 방침에 반하고 있다.

(2) 사법모임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성서의 지침, 및 조직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

- (a) 특별 사법 위원회는 일방적인 조사만으로 진실을 왜곡한 판결을 행했다.
- (b) 1985년 7월14일 오전집회에서 후지와라 형제는 「형제들의 동기는 좋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사법 위원회는 그 날 중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 (c) 특별 사법 위원회는 한 번의 호출만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 (d) 복귀방법을 가르쳐 그것을 권하기는커녕, 많은 자매들에게 「영구히 돌아올 수 없다,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했다.
- (e) 사법모임의 성경적 근거 자체를 부정하여 상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소 위원회는 전혀 조사하려고 하지 않았다.
- (f) 특별 사법 위원회, 상소 위원회의 감독들 중에는 제명 사유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 (g) 제명 결정의 성경적 근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다.
- (h) 몇 사람의 친족이나 연구생을 배교자와 같이 취급하도록 지시했다.

(i) 사교적 교제 이상의 부모와 자식, 친족의 교제마저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 일본 지부는 이상과 같은 비성서적, 및 여호와의 조직의 결정에 반하는 심리를 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한편 그것을 승인했다.

(3) 조직 승배를 만들었으며, 참 승배를 버렸다.

(a) 조직을 바알화 했다.

(b) 조직의 이름에 대해 부당한 심리를 정당화 하려고 했다.

(c) 조직의 이름에 대해 천통에 이르는 탄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d) 「비록 거짓이든 아니든 조직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좋다」라고 가르쳐 성서의 권위를 조직의 권위아래에 두었다.

(e) 「진실을 말하면 나도 배교자로 간주된다。」라고 히로시마 회중 장로에게 말하게 할 정도로, 조직이라는 이름아래 진실을 덮고 가리려 했다.

(4) 속임, 위증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불건전한 영으로 회중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자매들의 문제를, 사랑으로 가려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후지와라 형제의 속임, 위증

그 기준 : 사도행전5:1~6; 「연합된 승배」 p. 53

[I] 지부에 보낸 중간보고에 관한 속임, 위증

(1) 출석을 거부했다.

우리는 출석을 거부 하고 있지는 않다. 모임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것은 이틀 전이며, 게다가 그 날은 평일이었으므로 일의 조정을 재고 있었던 것이다. 후지와라 형제는, 사사야마 형제로부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사야마 형제의 위증이 되며, 후지와라 형제는 그것을 알 수 있었던 단계에서 수정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죄가 된다.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후지와라 형제는 이중의 위증을 행한 것이 된다.

(2)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써 끌어올렸다.

회합의 시간에 대해서는, 그 전날 후지와라 형제 자신이 1시간이라도 좋기 때문에 오도록 권해 그 시간 내에 모이는 것이 약속되고 있었다. 또 오후의 모임에 대해서는 전원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한 사실에 반해 상기의 증언을 하는 것에 의해 진실을 구부렸다.

(3) 그 후, 어떤 분도 회합에 오시지 않았다.

회합의 전날에 사사야마, 쿠와바라 형제가 돌연 히로시마 회중을 방문한 것이나 1회째의 회합에 지극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던 것 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이라면, 그 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해 주세요. 그러면 참석합니다。」라고 서면에서 통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아무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전의 경위를 밝히지 않고, 모임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하지 못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지극히 불경인 태도를 취했다.

전원 기억이 없다. 후지와라 형제는 우리가 이 회합의 목적과 성질을 확인하려고 한 것을 불경한 행위로 간주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그것을 불경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5) 사사야마 형제를 심리 사건으로서 고발하고 싶으면 연락을 했다.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다. 우리는, 사사야마 형제에게는 중상의 의혹이 있으므로, 할 수 있으면 취급했으면 좋겠다고 고했다. 중상은 2단계를 밟지 않으면 사법문제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사사야마 형제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후지와라 형제에게 진지하게 다룰 의사가 있다면, 마태18:15~17의 순서를 밟도록 지시했을 것이다.

- (6) 1985년 7월 9일의 오후, 상기의 건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지만, 그 때 그는 자신의 보고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점은 7월 17일, 목요일의 집회에서의 「진실의 1 과편 정도는 있었겠지요. 3 페이지나 썼으니까」 라는 발언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공공연히, 게다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전혀 정정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II] 그 외의 속임, 위증

(1) 제일처음 모임이 있기 전날에(1985년 6월 18일) 후지와라 형제는 1985년 6월 18일, 카나자와, 야나기무라 형제와의 전화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굳이 듣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후지와라 형제는 모임이 있기 이틀 전에 A, K 자매를 호출해서, 벌써 문제의 조사를 행하고 있었다. K자매에 의하면 그것은 3 시간에 달할 정도였으므로, 그는 상당한 정보를 얻고 있었을 것이다.

(2) 제일처음 모임이 있기 전날에 히로시마 회중에서는, 모임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사사야마 형제를 중상의 의혹으로 취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망을 후지와라 형제에게 제출했다. 그에 대한 후지와라 형제는 기분 좋게 응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거짓이었다. I. (5)번 항목대로, 중상은 2단계를 밟지 않으면, 다룰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모임에서 사사야마 형제에게 질문해, 그가 대답에 물리면 후지와라 형제는 즉시 사사야마 형제를 변호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조금도 다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나타냈다.

(3) 후지와라 형제는 1회째의 모임에 대해, 출석한 형제들에게 악령의 소문이 있는지 어떤지 질문했다. 전원이 「있다」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해, 그 후 자매들을 몇 번이나 호출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해, 히로시마에서 악귀의 소문이 있다고 하는 것의 증명을 취하려고 했다. 그러나 순회 방문의 기록 조사 때, 우리가 후지와라 형제에게 직접 질문하면, 「형제들은 긍정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조 한 일의 수정을 공식적으로 행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4) 순회방문 중 금요일에 자매들과의 특별한 모임이 열린 내려 방문의 첫날에 히로시마 회중의 형제들이 「야쿠자처럼 맞이해서 후지와라, 세노 형제를 차안에 집어넣었다」라고 발언했다. 실체는, 경의를 가져 마중 후지와라 형제들의 방문의 목적과 통치체의 결정에 대해 물었을 뿐이다. 후지와라 형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부의 아베 형제에게 물어볼 하라」고 지시했다. 그 사이, 「우리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말했을 뿐이며, 형제들이 집어넣었다는 것은 심각한 거짓이다.

(5) 금요일에 자매들을 위한 특별한 모임을 마련할 무렵에, 「마음을 열어 자매들의 말을 모두 들겠습니다。」라고 말해 두면서, 참석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체크하거나 또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자매들은 불리하게 됩니다。」라고 말하고 압력을 가했다. 것처럼 해서 진실을 들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냈다.

(6) 후지와라 형제는 방문 중 목요일에, 사법모임, 및 삭제의 추천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나절도 지나지 않는 동안에 그 발언을 뒤집었다.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할 말이 없었다.

사사야마 형제의 속임, 위증

그 기준 : 사도5:1~6; 「연합된 승배」 p. 53

(1) 히로시마 회중의 상황에 관해서,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많은 거짓을 포함한 보고를 일본 지부에 보냈다.

(2) A, K자매가 사사야마 형제에게 상담하러 갈 것이라는 점은, 회중으로서도 충분히 예측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사사야마 형제가 주재 감독으로서 신권적 순서에 따라 행동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형제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A자매가 연구생에게 히로시마 회중을 호소한다고 선전하기 시작했으므로, 미야자카 형제가 사사야마 형제에게 전화로 그 확인을 했다. 그에 대한 형제는 「호소한다든가 호소하지 않는다든가 말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해, 벌써 일본 지부에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했다.

(3) 협회에 보고한 것 같은 사실이 있는지 아닌지 히로시마 회중을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재산의 요청에 대해 「자신에게는 그 권한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으면서, A, K자매에게 테이프나 메모를 취하는 것, 회중을 이동하는 것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벌써 일방적인 조사를 하고 있었다.

(4) 사사야마 형제는 1985년 6월 18일 화요일의 집회에 쿠와바라 형제를 동반해 돌연 나타났다. 방문의 목적을 물었을 때, 「미야자카 형제에게 초대받았다」라고 해, 강연의 취급 방법이나 A, K자매에 대해서 회중이 대하는 방법에 대해 관찰하러 온 것을 속였다. 미야자카 형제가 그 날의 집회에 초대했다고 하는 사실은 없다.

(5) 동 집회 후, 미야자카 형제가 「오늘 집회의 모습으로부터 긴장한 분위기가 느껴 집니까.」라고 사사야마 형제에게 묻자, 「여러분이 활발하게 해설하시니까 좋네요. 일부 사람을 빼고는 긴장하고 있지 않는 것 같네요」라고 대답해 회중 전체가 이상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지부에 보낸 보고에 관한 정정, 혹은 철회를 행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6) 「G형제가 오시키리 형제만은 신뢰할 수 있는 형제라고 했어요.」 등과 목적 불명을 전화로 오시키리 자매에게 말했다. 사실인지 어떤지를 G형제에게 확인했는데, 그러한 일은 말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7) 1985년 6월 30일의 사사야마 형제가 행한 증상에 관한 모임 때, 같은 형제는, 「이제, 더 이상 이상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명언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는 동안에 깨졌다.

(8) 히로시마 회중에서는, A자매의 문제를 사법문제로서 다룰지 어떨지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A자매는 히츠지가 오카 회중과 연합하게 되어, 사사야마 형제는 긴급 피난이라고 칭해, 두 명(A자매, H씨)의 전도인 카드를 히츠지가 오카 회중으로 옮겨 버렸다. 그 때문에, 히로시마 회중에서는 A자매의 문제를 취급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사사야마 형제와 그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그 때, 사사야마 형제는 「증거를 제출해 주신다면 히츠지가 오카 회중에서 다루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A자매에 관해서는 한 번도 증거를 요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H씨에 대해서는 도둑질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9) K자매는 A자매와 함께 고발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사야마 형제는 K자매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말하도록 지시했다. K자매는 그것에 대해 감독자들 앞에서 증언해도 괜찮다고 단언했다.

통치체로부터의 연락은 역시 없었다. 이것으로 지상에 있어서의 법적 계쟁의 모든 것은 종료했다. 남고는 천적 레벨에 있어서의 법률 케이스만 남았다.

9장 이 사건에 의해서 밝혀진 일

약2년간에 이르는 이번 사건을 통해, 통치체와 위치타위협회에 관해서 밝혀진 점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된다.

1. 지극히 뿌리깊은 위선적인 체질
2. 조직 바알, 신권 파시즘
3. 교리상의 여러 문제
4. 신세계역 성서에 관한 여러 문제

(1) 위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교국을 위선적인 큰 집단으로 비난해 온 위치타위협회로서는, 이것이 최대의 세일즈 포인트였다. 그 점과 관련하여 「이십세기 여호와의 증인」 팸플렛은, <본을 보임으로써 전파함>이라는 소제목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며, 종교적 위선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서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성서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은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즉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그리스도인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권하려고 합니다.」(p. 21)

또한, 「깨어라!」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외부의 평가로서 가톨릭 간행물 「문도 에레」로부터 다음의 일문을 인용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이 전파하는 신앙과 일치한 생활을 하는 데 단연 으뜸인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87 3/22호 p. 6)(번역자각주-한국어는87년4/1. 6면)

이 평가는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그 대로이지만, 통치체나 워치타워 협회의 간부에게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것 같다. 책을 집필해 가르치고 있는 본인이 제일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종교상은 자주 있는 것으로 조금도 드문 것은 아니겠지만.

워치타워협회의 현 집행부는 죄다 그 공약을 찢었다. 위선의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건 그 자체이다. 만약에 조직 안에 위선적인 체질이 없으면, 이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2가지 사례를 덧붙이기로 한다.

(I). 카토씨는, 「판결의 근거를 알면 좋겠다.」라고 지부에 신청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일본 지부는 오구마 형제를 통해, 「알 권리가 없다」라고 회답해 왔다. 이 크리스찬등 꾸짖지 않는 회답에 아연하게로 한 카토씨는, 11월 1일부로 지부에 질문장을 보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보내져 왔다.

펜실베이니아주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1985년 11월 4일

훗카이도 삿포로군 XXXXXXXX 카토세이지님 앞

당신은 최근, 당 협회의 봉사자 혼마년 유우씨에게 질문의 편지를 전송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당신으로부터 같은 편지를 받고 있었으므로, 여기에 당 협회의 견해를 알리기로 하겠습니다.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의 직원도 또 그리스도인 회중내에 있어 성직자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로들도 우리들의 직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성서에 정해져 있는 하느님의 율법 및 법률이 정한 여러 가지의 요구에 대해 따르는 것을 굳건하게 결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직자에 대한 형법상의 하나의 규정은, 형법 제2편 제 13장 제 134조에 있는 비밀 누설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일부를 여기에 인용하겠습니다. 「종교...노직니 재르자 또 하차등 노직니 재리시자 고 나크기업무상 취급 히타르코트니부키 지득탈인노 비밀누설 시타르트키역 동시」

따라서, 장로의 직분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회중내에서의 특정의 업무를 취급한 결과, 당사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뿐만 아니라, 추리나 조사등에 의해 파악한 비밀의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고지하는 것은, 누설죄에 상당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의해 당신이 질문이 되어 있는 건에 관해서는, 당 협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회중내에 성직자의 입장에서 섬기는 어떠한 장로라도 당신의 요구에 응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양해 바랍니다.

성서 교육에 힘쓰는

Watch Tower B&T Society
OF PENNSYLVANIA

이 회답 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장로들을 「성직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것이다가, 「성직자」란 거짓종교 제국, 큰 바빌론(워치타워협회는 우리들 이외의 종교 조직을 모두 큰 바빌론이라고 부르고 있다)의 교직자의 대명사로서 사용되고 있는 말이다. 「성직자」 「교직자」계급은 큰 환난 때, 맨 먼저 멸망한다고 워치타워협회는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성직자」라고 말한다고는! 설마 우리들의 가르침을 잊은 것이지 않은 지에.

(II). 「사랑은 그리스도인 회중을 식별하는 열쇠입니다. 이 조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부디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파수대지는 일 있을 때마다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후지와라 형제는 1985년 7월 11일, 공식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버렸다.

「그럼, 그 지부 조직을 통해 나는 돌연, 놀랄 만큼 갑자기 임명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지 않으면 되지 않는 처지가 된 것은...별로 여러분을 비난 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쪼록 별별 하시지 말아 주세요..」

후지와라 형제도 무심코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와 버린 것이든지, 이 발언에 대해, 카토씨는 다음과 같은 감상을 지부와 본부에 보냈다.

「동노자인 강연자와 회중과의 사이에, 감독자가 「벌벌」한다고 하는 공포심을 안게 하는 현실. 이것은 여호와의 권위,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권위 그 어느 쪽입니까. 적어도 여호와의 증인 중에서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리스도인 동료간의 교제 중에서 조심성없게 발 다투어진 말이어도, 무신경하게 태연하게 이러한 일이 강연자의 입에서 뱉어나온다는 것은, 대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조직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는 아니고 순종을 요구하는 「통제의 원리」이다. 위에 가면 갈수록, 이 경향은 강해진다. 이것이 결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떨어진 본부의 후르야 형제를 생각하면 일목 요연하겠지.

(2) 조직 바알·신권 파시즘

<<조직 바알 >>

1986년 12월, 워치타워협회의 부회장, 로이드·배리 형제는 일본을 방문해서 강연을 했다. 그 때의 모습을 테이프로 들은 카나자와 형제는,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이 조직 숭배, 조직 바알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약 일 년 후,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본부에 보냈다.

1986년 11월 15일

친애하는 본부의 형제들

이 편지에 의해 나는 우선, 이번 사건을 통해 표면화한 숭배의 문제와 그것을 길러 온 배후에 있는 상황에 대해 알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의 여러분이 신의 조직, 진리의 조직으로서 그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 하실까를 부디 묻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참 숭배는 영과 진리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만약 표면상 진리에 따르고 있다고 해도 그들에서 행하는 것이 완전히 차이가 나거나 게다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면, 그것은 이미 참 숭배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숭배의 형태를 여호와 대 바알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대 이스라엘과 같이 어떠한 형태의 바알 숭배가 비집고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사건의 마지막에 맞닥뜨린 것은, 실로 이러한 숭배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이며, 그것은 감독자들이 가리킨 다음과 같은 반응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성서에는 따릅니다.」라고 하므로 「그러면 여호와에 어울리게 일을 바로잡읍시다. 참 숭배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진리, 진실에 따라서 사물을 취급합시다. 꺼림칙한 일이 없으면 빛을 쬐는 것을 유익등충분해 거절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신청하면 마지막에 되돌아오는 것은 「조직의 지시입니다. 비록 진실이 어떻게 있을것이든 우리는 조직에 따릅니다.」라고 하는 대답이었다. 그 후는 어떻게 움직여도 다만 오로지 침묵이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몇 번이나 반복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입으로는 여호와와 성서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것처럼 하지 않고, 바라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면 요한4:23, 24로부터 해, 이것은 이미 참 숭배를 뒤로 치워 그 identity를 잃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이름으로

그런 것을 행하고 있으니, 참 숭배 안으로 비집고 들어온 Baal의 이름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 Baal」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만, 그들이 말하는 이 「조직」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직의 정의는 「동일한 결정에 따르는 지적 집단」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면(자), 결정인가, 지적 집단이라는 것이 되지만, 감독들의 반응은 이 머지않아도 아닌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정이라고 하면(자) 적어도 「과수대지」나 「천국 전도 학교의 교과서」의 지시에는 따를 것입니다만, 우리가 그 요점을 지적해도 그들은 창시 같다고는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럼 지적 집단으로서 눈에 보이는 인간...이것은 그 징후조차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직」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건물, 사람, 결정해 스태프등의 조직의 요소의 머지않아에서도, 또 그 집합체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감독들이 「조직, 조직」이라고 말 하는 장면을 몇번이나 봐 왔습니다만, 우선, 그 의미의 의미 혹은 그 실태가 의식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우 일부의 예외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로부터 본다면, 이 「조직」이라는 말은 명확하게 의미가 규정되어 그 실태가 식별된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막연히 개념화 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이 됩니다. 아마, 그것은 aion, mode, system, administration, 등의 레벨에 상당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Concept는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Baal는 Concept Baal라고 부르는 것에 해 둡니다.

그런데 Concept는 통상, 의미들(Meaning Field)을 형성해, 중심을 이루는 핵과 그 주변 영역으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감독들이 자주 말하는 「그것은 협회의 지시입니다. 협회로부터의 연락에 의하면..., 협회의 생각에서는...」 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부터 판단하면(자), 의미들의 핵은 위치타위협회이며, 그 주변 영역에는 위치타위협회와의 접촉의 모든 것이 포함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이 「조직」이라고 하는 이름의 Concept Baal는, 위치타위협회에 상징되고 그리고 위치타위협회에 집약되어 가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먼저 말한 대로 이 의미들은 그 핵도 주변 영역도, 바알의 이미지라도 바알 그 자체로서 의식되지는 않고, 실제 바알이 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숭배되고 있는 것, 실제 바알은 다른 곳에, 즉 Concept Baal의 배후에 숨어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 배후에 숨어 있는 것이야말로 바알의 실체이며 Concept Baal을 조종해, 교묘하게 바알 숭배를 행하게 하는 정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Concept Baal의 정체를 생각하자, 우선 생각나는 것은, 리처드·나코우 형제가 아키타현 노우다이 회중을 1977년에 방문했을 때 형제들 앞에서 말한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개는 먹이로 훈련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렇다면 진보하겠지요. 똑같이 형제들도 특권으로 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특권을 목표로 하세요.」 그는 하와이 출신의 선교인으로 긴 세월 순회, 지역 감독자로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은 조금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의식으로 본다면, 형제들은 개, 특권은 먹이, 그리고 조직은 그 먹이를 주는 주인이라는 것이 되어, 조직의 개가 되면 과연 특권에의 길은 가깝다고 하는 것이 될까요. 물론 이것은 농담으로서가 아니고 공적인 장소에서, 게다가 진지하게 한 말입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특권을 바라고 있을까는 정말 야비할 정도로, 이 조직에 들어가자마자 목격한 예를 1개 적습니다. 1973년의 오사카국제 대회에서의 일, 교토의 여관에 들어가 목욕하고 있을 때, 바로 근처에서 「저 녀석이 출세하려면, 저런 방식으로는 무리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출세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여호와의 증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다음날 대회장에서 만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있는 자발 봉사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보좌의 형제의 혼자서 했다.

이렇게 해 여호와의 증인중에도 특권 코스라고 하는 출세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만, 장로로 임명되고 나서는 한층 더 특권을 둘러싼 추악한 경쟁을 볼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감독들도 많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대회의 프로그램 갖고 싶음에 무리해도 개척 봉사를 하려고 하는 장로는 적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특권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을 부조로 했던 것이, 이번 사건으로 감독들이 가리킨 태도지요. 그들이 마지막에 신경쓰고 있던 것은 여호와의 영광도 회중의 유익도 아니고, 자신의 특권이었기 때문에. 특

권을 잃는 것을 얼마나 무서워했는가는 짐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 지부가 이 사건에 관여한 대부분의 감독들의 특권을 늘려 더한 것도, 지부의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답은 분명하지 않을까요. Concept Baal의 정체는 특권욕구 이외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 「특권, 특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조직, 조직」이라고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보물 되는 특권을 주는 것은 「조직」이고, 특권을 빼앗는 무서운 것도 또한 「조직」인 이유이기 때문에. 따라서 특권욕구라고 하는 자기 현시욕구, 특권을 잃는 것에 대한 우려, 이것들이 Concept Baal의 뿌리 또 트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강대한 힘 앞에서는, 진리도 진실도 성의도 실로 약한 것입니다. 「당신의 조직에 대한 충성이 시험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다만 다만 무서워하고 떨립니다. 무슨 것은 없는 자신의 명령에 따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조직」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면, 이제 손이나 다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Concept Baal의 위력의 대단함입니다. 이것은 실로 강력합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고 건전했던 것도, 금세 변질, 변용 당해 버립니다. 과연 공중의 권위의 지배자라고 절실히 감심 당합니다. 조직이 거대하게 되면 과연 한 개인은 안보이게 된다고 하는 면도 있고...

그러나 Concept Baal의 무서움은 그 힘만이 아닙니다. 그 성질, 특징에도 매우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점은 Concept와 실체가 마음의 계층 안에서 따로 따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Concept는 마음의 표층에 놓여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 Concept는, 거의 무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조직은 조직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조직을 섬기는 것, 여호와와 조직은 단 하나뿐이며 그 외에는 모두 사탄의 조직, 조직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사탄의 일꾼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 속임수, 위증을 범해도, 그것은 조직을 위한 신권적 전술, 영적 살인을 범하더라도 조직의 암의 수술이 되어 버립니다. 한편, 실체는 마음의 계층의 가장 아래쪽 중에서도 가장 안쪽 깊은 곳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광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불리한 곳의 실제적 바알은 의식과의 Feed Back를 switch off로 해서 마음속 깊이 숨어 Concept를 사이로서 틀어박혀 버립니다.

그러한 이유로 Baal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항상 여호와를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진실을 버려도, 그 후지와라 형제와 같이, 「진심으로의 여호와와의 증인으로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어떤 망설임도 느끼지 않고, 우선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에는 꽤 양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도 있던 것 같습니다만. 탄원의 편지를 박해라고 말하는, 사사야마 형제와 같은 사람도 있었으므로. 우리로부터 하면 대단히 제멋대로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도 조직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나는 일도 이야기하는 일도. 「여호와보다, 도대체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조직의 하느님은 여호와이십니다.」라고 다가서면, 마지막에는 조정자 오다 형제가 작년의 12월의 지구 방문 때 기도 중에서 칭찬 「만물의 근원인 조직」으로, 사회자의 형제가 소리를 높여 강조한 「충성을 유지해야 할 조직」안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온 감독자는 지금까지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Concept Baal에는 마음의 계층 구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무서운 성질이 있습니다만, 한층 더 경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레벨에 이르면 Concept 자체가 한사람 걸음을 시작해 버린다고 하는 점입니다. 어느 대뇌 생리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언어계의 폭주」라고 불려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획일화된 일원적 환경, 조직체 안에서 생기기 쉬운 현상이며, 조건 반사적으로 되어 있는 언어계와 앵그램(engram)의 축적에 의해 발생의 조건이 형성되어 간다. 이 현상을 일으키려면, 우선 동물계의 욕구를 누르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정당하게 채울 수 있는 Concept를 설정한다. 계속되어 그 Concept를 신성해 무릅쓰서는 안 될 것으로 해, 조건 반사의 레벨까지 높인다. 그렇다면, 이윽고 언어계의 폭주가 시작된다.」

폭주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미, 그 언어계 Concept를 이용하고 있던 사람에 있어서도 제어

불능이 되어 갑니다.

지금의 조직의 실정을 보고 있으면, Concept Baal이 폭주를 개시하기 위한 기초는 충분히 계속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미 벌써 일부에서는 시작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그것을 기를만한 배경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하에 그 몇 가지 상황을 적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최근 회중을 방문한 순회 감독자 대부분은 우선 접대에, 그리고 성적과 숫자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장 상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회구의 평균과 회중의 평균을 비교하여, 평균이 뒤쳐져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격려하게 됩니다. 숨겨 순회 감독은 전국 평균과 장로들은 순회구의 평균과 비교해, 숫자의 상하에 오로지 일회일비 하게 됩니다. 「형제들도 싫겠지만, 우리들도 위에서 똑같이 당합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한 있는 순회 감독자는, 4년 후에 강관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또라고 이루면 영성이 좋은 회중, 인기없음 없으면(마음에 드는 정도로) 영성이 나쁜 불건전한 회중으로 간주해지는 것은, 매우 보통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 참가한 순회 감독은 칭찬하고 말을 요구해, 명백하게도라고 없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오른쪽이라면 의타입이기 때문에 예외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인도 「어디에서라도 하고 있는 것 이에요」라고 말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은 전체적인 경향이어도 생각합니다.

어느 협회로부터 특별파이오니아 앞으로 온 편지에 「협회는 지금의 치료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 일본의 특파의 치료는 정부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의 약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무리한 이야기로, 실제로는 부모, 친족, 회중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느님 여호와와 돌보심이라는 것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모는 걱정합니다. 젊은 동안은 좋아도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하는지. 「걱정하고 반대하면 사탄의 편이라고 하지만 곤란했을 때에는 부모로 된다.」라고 하는 한탄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는 반대를 받고 회중의 돌봄도 없고, 순회 감독자에게는 괴롭힘을 당하는 파이오니아는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기적적인 생활을 계속하다가 이윽고 건강을 깨뜨려, 한층 더 「조직은 차가운, 여호와는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았다」라고 말해 영성까지 깨뜨려 버리는지, 오로지 배포에 힘써, 구역의 사람들사구도 상관하지 않고 노력할까의 어딘가에 되어 버립니다. 때로는 불명예스러운 실종 사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본은 국민의 9할 이상이 중류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물질적으로는 풍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천하고 완만한이라고 하는(분)편이 무리여, 뒤의 세계에서는 야비한 광경이 전개되는 것도 어쩔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은 공식상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뒤의 본심의 세계에서 말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진실을 모르는 감독자들도 증가해 갑니다. 사실을 알리려고 해도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또 아무것도 굳이 꿈을 깨뜨릴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조직에 대한 반항이라고 생각되겠지요. 배교로 간주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멈추세요.」라고 하는 친절한 조언을 받거나 「누가 당신에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습니까」라고 하는 엄숙한 물음을 듣고서 그만두게 된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후의 상황과 거기에 출몰하는 실체 Baal의 본심의 세계를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특권욕구의 세계이기도 하다고 하는 감을 강하게 합니다. 특권과 통하는 숫자 논리, 후대와, 감사, 격려라고 하는 접대 논리가 그것을 지탱하며 기르고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이름의 Concept Baal는 거기로부터 힘을 얻으며 동시에 그러한 상황을 강화해 가, 모든 것은 여호와의 일, 여호와의 축복이라고 믿게 돼 버립니다. 무언가 교묘한 계략입니다. 그리고 내부가 추악해지면 과연「그 흰색나무벽」“상아의 탑”과 같이, 베델을 호화롭게 성장해 칭찬하고 말, 찬사로 조직을 장식하게 되겠지요. 또 「구원」 「멸망」이라고 하는 주문으로 사람들을 위협해 가게도 됩니다.

이러한 조직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노멘크라트라와 같이 특권의 혜택에 욕바알 승배자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낙원이지요. 그러나 참 승배자가 볼 때, 그것은 마치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벌써, 파수대지, 깨어라 잡지의 조직 예찬의 기사와는 정반대로 「성서도 좋고, 진리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조직은 싫다」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나는 바알 승배가 여호와의 백성 중에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 그 바알의 이름과 실체, 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위치타워협

회는, 이 바알 숭배를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숭배를 금하고 싫어하신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알 숭배에 어떻게 대응할까에 의해 위치타워협회의 실체도 밝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oncept Baal는 마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소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요. 명칭을 바꾸거나 결정을 조정하거나 하는 정도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알 숭배를 근절 하려면 막대한 희생이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Pet. 4:17; Isa. 30:25) 그러나, 그런데도, 어떤 희생을 지불해도 진리의 조직으로서의 identity를 하늘과 땅의 앞에서 가리켜 주실까요. 위치타워협회야말로 이사야32:15~18을 성취시키는 조직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여호와와 영이 풍성하게 부어지고
참 숭배가 이 땅에 확립되기를 바라면서

또 미야자카 형제는 조직 바알의 구체적인 사례를 올려 본부에 보냈다.

1986년 11월 21일

친애하는 형제들

나는, 위치타워협회의 조직 안에서 바알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그것에 관한 본부에 계신 여러분의 견해를 묻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 위치타워협회 내에서 확실히 바알 숭배를 하고 있다는 증거 여호와와 조직 내에 있어서의 바알 숭배의 경향은, 이번 사건을 취급한 감독자들의 태도에 매우 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발생에 관련한 사사야마 형제의 태도

사건의 발단이 되는, 히로시마 회중에 관한 보고를 보낸 사사야마 형제는 여호와와의 증인으로서 한편, 감독자로서 오랜 경험을 가진 형제입니다. 또 직업상, 법률상의 수속이나 순서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감독자라면, 또 법률 사건에 자세하면 더욱더 사실 확인이 없는 보고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적합하지 않은지를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만약 그러한 일을 행한다면 사회적 신용을 잃는 결과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하물며, 여호와와의 증인이라면, 속임, 위증에는 세심한 주위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고를 고의로 보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야마 형제는,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보고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조사, 확인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점이 지적되어도, 태연하게 짓고 있는 형제의 태도를 우리는 불신(마마)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후일, 밝혀진 것입니다만, 사사야마 형제는, 사건 발생 전부터 일본 지부의 형제와 개인적으로 전화로 밀접한 서로 연락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관한 지시는, 사사야마 형제를 통해 지역 감독이나 순회 감독에게 전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사사야마 형제가, 사실 확인이 없는 보고를 보내, 또 그 점이 지적되면서도 태연하게 있을 수 있던 것은 이 배후 관계에 의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하면, 사사야마 형제는, 하느님 앞에서 진리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양심의 평화보다 조직과의 관계로 얻을 수 있는 평화를 발견하고 있던 일이 됩니다. 그것은 즉, 여호와보다, 조직을 중시하고 있던 것이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여호와보다, 조직을 숭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로) 지역 감독 후지와라 형제는 순회 방문때, 카나자와 형제와 서로 이야기해, 동 형제가 근면하게 성서 연구를 해, 또,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회중 형제들의 동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지와라 형제는 야나기무라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아니지요. 조직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카나자와 형제도 야나기무

라 형제도 조직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합니다」

여호와와 백성에게 있어, 영과 진리에 의한 숭배보다, 조직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른바 조직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후지와라 형제가 남아, 영과 진리에 의한 숭배를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명된다. 이것이 실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취급한 상소 위원회는, 우리를 사법 위원회에 한 번 소집한 것 말고는, 본인에 대한 조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제명을 통지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이것은 지부의 결정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 말을 증명하는 것으로 상소 위원회 안에는 제명의 이유마저 정확하게는 모르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상소 위원회는 언제부터 지부의 결정을 통지하는 위원회가 되었습니까. (「봉사의 직무」 p. 145~148)

「봉사의 직무」와는 다른 행위를 지부 조직의 이름 아래에서 태연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확실히 조직을 신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사건 후에, 히로시마 회중에서 장로로 임명된 오구마 형제는 연구생과의 대화 중 에서, 협회를 이상하게 의식해, 「더 이상 이야기하면 지부에서 화낸다.」든지 「진실을 말하면 지부에서 제명시킨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대화중에서 오구마 형제가 제일 무서워하고 있던 것은 조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엇에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상과 같은 사실을 냉정하게 고려하면, 워치타워협회 내에 있어서 조직이 꽤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런데 형제 서, 파수대지의 몇 개의 기사가, 이 조직 바알적 생각을 조장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셨습니까. 다음 2개의 기사를 검토해 주세요.

(이) 일본어'79,6/1호 첫 번째 연구 기사 「여호와와의 승리의 조직에 대한 믿음」 안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번역자각주-한국어는 파수대 79년7월호29면)

「신권 조직에 대한 불굴의 충성 때문에 그분(예수)은 기원 33년 유월절 날 순교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p. 14.8항) (역자각주-괄호 안은 “사건부” 저자가 삽입, 한국어는파-79/7 39면8항)

예수께서 신권 조직에 헌신하고 있었다는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82,2/15호 첫 번째 연구 기사 「헌신-누구에게? 왜?」라고 하는 기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상호간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한 백성이며, 본래부터 이스라엘 사람으로 탄생하신 예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2개의 기사는 모순되는 것은 아닐까요. 헌신의 대상으로서 여호와 이외에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상 숭배자들은, 물질이나 부나 명예, 욕망에 헌신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백성이, 하물며 예수께서 여호와 이외의 사람에게 헌신한다는 등의 표현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조직 바알적인 생각을 조장 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번역자각주-위와 동일한 한국어 기사에서는 위와 같이 한 문장으로 된 내용이 없으며 대체로 동일한 취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올 뿐이다. “그들은 여호와와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 ‘유대’인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처럼 헌신한 나라에 속하게 되고...그분이 출생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었음...그분은 이미 헌신한 백성의 일원이었으며”)

(로)86,1/15호 두 번째 연구 기사

「지치는 일 없이 새 힘을 얻음」이라고 하는 기사의 P. 18,14항에 인용된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조직에 고착하라고 힘주어 말하곤 하였습니다. ...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 후에는 명확해지리

이 형제가 말하고 싶은 것, 또 기사를 다룬 목적은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하면, 어떤 오해가 생길까요. 이러한 표현을 이용하면, 항상 조직이 말하는 것에 온순하게 따라, 의문이나 의심, 또 이해할 수 없는 점에서도, 어쨌든 지시에 따르고 있으면 좋다고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은, 항상 조직이 올바르다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이 진리로부터 그것 충분히 지부 레벨에서 배교가 생기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경우에서도 조직에 따르기만 하면 좋은 것일까요. 지상의 피조물 중에서 무류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과오를 범하고 오도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권하는 것 같은 쓰는 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에 중대한 결점을 만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필요이상으로 조직에 신뢰를 안게 하는 결과, 조직 바알에 도와주게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이 특히, 감독자들이 영과 진리에 의한 승배를 옆으로 밀어 내고, 조직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바꾸어 말하면 조직 바알 승배에 잡혀 있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러한 사태가 해결되어 여호와께 진정한 영광이 돌아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본부의 형제가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일본 지부와 마찬가지로 바알 승배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본부의 형제의 견해를 가르쳐 주세요. 편지를 통해서도 좋고, 실제 행동으로도 좋습니다. 형제들이 영과 진리에 의한 승배의 본을 나타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에 의한 승배가 확립될 것을 바라면서

성서 안에서 「바알」은 다음의 8개의 것에 관해서 이용되고 있다.

- (1) 아내의 주인인 남편(창세20:3)
- (2) 토지 소유자들(여호수아24:11)
- (3) 「나라들의 주인들」(이사야16:8)
- (4) 동맹자들(문자적으로는 「계약의 주인들」 창세14:13)
- (5) 유형 자산의 주인 또는 소유주(탈출기21:28,34;22:8;열왕기둘째1:8)
- (6) 본래의 특질이나 방식, 직업 등을 특징으로 하는 어떤 것을 소유한 사람이나 사물. 예를 들면, 활을 쏘아 맞는 사람(문자적으로는 「화살을 소유한 사람」 창세기 49:23)
「부채에 대한 채권자」(문자적으로는 「부채를 소유한 사람」 신명15:2),
「분노에 찬사람」(문자적으로는 「분노를 소유한 사람」 잠22:24),
「나의 소송상대」(문자적으로는 「나의 재판을 소유한 사람」 이사야50:8),...
- (7) 여호와(호세아2:16)
- (8) 거짓 신들(재판관기(사사기)2:11, 13)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 p. 171에서)

(번역자각주-위에 나오는 8가지 항목은 “성경통찰”책에서도 거의 동일하다.)

「통찰」책에 있어서의 바알의 정의

고대 이스라엘 후기에 있어서, 바알은 주로 여호와와 대항한 거짓 신들을 나타내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인을 의미하고 있다.

고대 가나안에 대해, 다산, 풍요의 신으로서 많은 승배자를 모은 바알, 오로지 확대와 증가를 목표로 하여 폭주하는 조직, 위치타위협회에 있어서 현대의 바알은 조직 그 자체이다. 그리고 조직의 성원에게 있어서는 「특권」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되어 있다. 이 바알 승배를 멈추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위치타위협회의 체질에서는, 조직 바알을 버리는 것은 조직의 붕괴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알화한 코끼리는 위치타워협회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종교에 항상 따라다니는 본질적인 문제일 것이다. 아마 개념과 실질적 의미와의 관계를 한없이 애매하게 한 계층 구조를 만들어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람을 조종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종교 이외의 조직에도 공통되는 1가지 측면은 아닐까 생각된다.

<<신권 파시즘 >>

파시즘은 절대 주의적, 독재주의적인 정치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파시즘 체제하에서는, 치안 유지의 명목아래에, 언론, 집회, 결사의 권리 등이 규제되어 사상, 신조의 자유가 빼앗긴다.

위치타워협회의 경우는 스스로를 신권 조직이라고 칭하고 있으므로, 그 체제는 신권 파시즘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파시즘의 특징은 위치타워협회에도 모두 들어맞는다. 예를 들면, 조직이 결정한 이외의 집회를 여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유시가 모여 개인적인 스터디 그룹을 열거나 아이들을 위한 집회를 결정하거나 하면, 즉시 회보(왕국 봉사)에 적절치 못한 행위로서 실린다. 영문판 서적(위치타워협회 발행)을 번역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면, 조직을 앞서가는 주제넘은 행위로서 금지하는 상태이다. 또, 출판권은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을 대표하는 통치체의 독점하에 놓여져 있으며 그들이 가진 그러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은 배교 행위로 여겨진다.

현재의 이러한 파시즘적인 체제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정보 통제이다. 이전으로부터 위치타워협회는 진리 옹호, 성원을 보호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정보의 통제를 재어 왔지만, 우리의 사건 후 이 경향은 한층 강해져, 파수대지면에 그러한 기사가 실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하에 그 예를 몇 가지 올리기로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디모데에게 경고하였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디모데 전 6:20, 21.

…호기심에서 세상 철학을 조사하는 것 역시 해로울 수 있다. … 인간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이 제시하는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제어되지 않는 병적인 호기심은, 진정한 믿음과 경건한 정성이 발붙일 곳이 없는 억측과 인간의 이론의 혼란 상태로 우리를 빠지게 만들 수 있다.」 (1987년 2월 1일 호p. 28, 29)

(번역자각주-한국어도 페이지 동일. 위 인용은 “당신은 탐구 정신을 갖고 있는가?”기사제하)

이와 같이 타당해 보이는 말을 하지만, 본심은 위치타워협회가 출판하고 있는 이외의 책을 읽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조직의 대표자들은, 그것을 자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형제는 대단히 여유가 있습니다.」
「봉사 준비에는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십니까.」
「벌써 성서 전권을 읽으셨습니까.」
「다른 책을 읽고서 영성이 약화되는 일은 없습니까.」
「독서를 좋아하시네요.」

와 같은 정도이다.

조직의 이상으로서는 외로부터의 정보를 일체 거두어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일 것이다. 한층 더 최근호 파수대지를 보면, 파시즘화의 경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안다. 마침내, 엄치없고 「조직이 말하는 것에는 입다물고 따르게 하고」라고 하는 것 같은 주지까지 말하게 되었다.

「의문(영문에서는 unquestioning)을 품지 않고, 하느님께 순종을 나타내는 것도, 믿음의 중요한 한 부면입니다.」 (87년 1월 15일호, p. 13)

(번역자각주-한국어역시1/15일호 13면 그 실제 전체문장은 다음과 같다⇒“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은 믿음의 한 가지 중요한 면입니다. (히브리서 11:17-19을 읽을 것.) 아브라함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에...”)

「높은 망대 위에 서 있는 파수꾼이 허리를 굽히고, 낮에는 멀리 지평선을 응시하며 밤에는 신경을 곤두세워 캄캄한 주위를 꿰뚫어 보며, 항상 경계 태세에 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사야 21:8에 사용된 “파수대”(미즈페)라는 히브리 말의 주된 뜻입니다. 파수꾼이 방심하지 않고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데,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분명하게 전하는 그의 보고를 의심하겠습니까? ... 「파수대」와 「깽 때이다」 잡지에 나오는 모든 기사는 삽화를 포함해서 모든 면이 인쇄되기 전에 통치체의 선택된 위원들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됩니다. 더우기 「파수대」 기사를 집필하는 일을 돕는 보조원들은 그들의 임명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 장로들입니다. (비교 역대하 19:7.) 그들은 집필된 내용이 진리이며 성경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서와 기타 참고 서적을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 그러므로 독자는 확신을 가지고 「파수대」와 「깽 때이다」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밀줄은 히로시마 회중)(1987년 3월 1일호, p. 12, 15)

(번역자각주-한국어도 동일하지만 당시에는 제5공화국의 언론통제법의 영향으로 한국어 “깨어라!”잡지 이름이 “파수대-지금도 깽 때이다!”라는 이름으로 “파수대”지의 별책부록이라는 형식으로 발행되었다.)

하느님의 소리는 항상 통치체를 통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하느님에 대한 순종은 통치체에 온순하게 된다. 통치체로 대표되는 「슬기로운 중」 반열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해, 조직에 있어 형편이 나쁜 정보는 일절 차단해, 일반의 신자들에게 조직은 높은 수준의 정보를 주고 있다고 믿어 버리게 한다. 이러한 기사에서 의미하는 것은, 결국, 「중」 반열이 제공하는 이외의 정보를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통치체」가, 이와 같이 위치타위협회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털 수가 있는 것은, 서서히 변경된 「배교」의 정의 에 의해서이다.

1981년에 나온 「천국 전도 학교」의 교과서 166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되고 있다.

「여호와와의 진정한 숭배(영과 진리에 의한)나, 여호와께서 그 헌신한 백성의 사이에 세우신 질서에 거역하는 행동」

(번역자각주-현재 “천국전도학교”는 한국어로 “왕국봉사학교”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그 교재로 사용되는 것은 ‘자신과 온 양 떼에 유의하라’-“Pay Attention to Yourselves and to All the Flock”라는 이름의 책이다. 일부 설명이지만 이 부분의 한국어 내용은 이러하다. ⇒ “배교에는 여호와에 대한 참 숭배 혹은 그분의 헌신한 백성 가운데 확립된 질서를 반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질서의 본래의 의미로부터 말하면, 여호와께서 세운 질서란, 하느님이 정한 원칙, 결정된 규범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이라도, 지상의 조직이 하느님이 정하신 「질서」와 일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직이 하느님의 결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것이 되어, 위치타위협회에 있어서는 매우 상황이 불리한 교리가 된다. 또 어디에서 쫓려도 괜찮다고 할 확신이 없으면, 이 정의에서는 이윽고 불충분하게 된다.

거기서 수년간운데, 서서히 변경을 더해 이 「질서」의 적용을 좁혀, 마침내 85년에는, 그것이 조직, 즉 위치타위협회에 들어맞기로 해 버렸다. 파수대지 1986년 4월 1일호(p. 31)에는, 배교에 관한 뭐라고 말씨의 나쁜 기사가 실리고 있지만,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 일이다.

「하느님, 그리스도, 성서를 믿고 있다고 해도, 「오늘날 지상에는 「예수의 지상 관심사 모두를 맡게 되」 있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 있으며 그 중 반열은 여호와의 증인의 통치체와 결부되고 있다고 하는 신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 그리스도이며, 배교자로 간주한다」 (번역자각주-한국어번역은 찾지 못했음.)

즉, 통치체에 거역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반역, 위치타위협회의 대표자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배교자로 간주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에게 무례한 말을 하는 분자는 모두 배교자로서 정리할 수가 있으며 게다가 배교자와의 교섭을 금지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조금의 정보도 전해지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1986년 3월 15일호의 파수대지는, 배교자로부터의 문서에 관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알려 주고 계신 분은 **여호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배교자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에게서 떠나라” (로마 16:17, 18), 그들과 “사귀지도 말”며 (고린도 전 5:11),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요한 2서 9, 10)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단호하면서도 명백한 지침입니다. 만일 우리가 호기심에서 배교자로 알려진 사람의 서적을 읽으려 한다면, 그것은 이 참 송배의 적을 우리 집안으로 초대하여 함께 앉아서 그의 배교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p. 12)

(번역자각주-한국어는5월1일호 “마음이 쉽게 동요되”게 하지 말라”기사의 소제목 ‘배교자들과 상대하지 말라’제하 12-13면.)

여호와와 그의 지시라고 하는 대의 명문을 내걸어 배교자와의 교섭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진정한 배교자에 대한 것이라면 이런 지시도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무서운 것은 정보 통제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성원들은 간부가 적당하게 조종하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내부와의 교섭을 일절 끊는 것으로, 진실이 전해지지 않게 하고 있다. 배교자로서 정리해 버리면 확실히 「죽은 사람에게 입없음」이다. 대화를 위한 면회 신청, 집회, 대회에의 참석 등, 그 일절이 거부되어 보통 배교자에 대한 취급보다 한층 더 어려운 지령이 나와 있다. 그 모든 것은 특례라고 하는 구실에 의해 행해졌던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배교자라고 하는 것은 위치타위협회도 곤란한 것일 것이다.

한 번 특례를 시행해 버리면, 그 후는 이제 간단하다. 우리들의 결정 위반은 모두 특례로 정리하면 좋은 것이다. 향후,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특례가 증가해 가는 것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밝혀진 것은 「통치체」의 독재 지배이며, 위치타위협회에 의한 신권 파시즘의 체질이었다. 우려할 만한 것은 이것이 더욱 더 강화되려 한다는 것이다.

(3) 신세계역 성서의 여러 문제

1986년 7월 21일, 신세계역 성서 일본어판의 번역상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지부와 본부에 보냈다. 회답이 없었기 때문에 동년 11월 6일, 창세기의 번역에 대해 분석한 편지를 한층 더 본부에 보냈다. 그 때, 문제로서 올린 것은 다음의 점이다.

1. 오역이 많다.
2. 지극히 상황하다.
3. 대명사의 사용법이 무신경하다.
4. 난해, 애매, 불투명해 매우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다.
5. 일반적으로 악역, 표현이 나쁜 글의 조건으로서 올릴 수 있어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의 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올려 개역의 필요성을 전했지만 아무 회답도 없었다. 신세계역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결함 번역-신세계역」(히로시마 회중 발행)중에서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

(4) 교리상의 여러 문제

이 사건이 시작되었을 무렵, 교의에 관한 의문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쁜 것은 위치타위협회의 체질이며 교리는 아니니까, 가르침은 올바른 것이니까, 조만간 위치타위협회는 여호와에 의해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가을경부터, 점차 교리도 이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전환기가 된 것은, 위치타위협회에 대한 규탄을 개시하고 나서이다. 이 정도로 위선적이며 부패한 조직에, 과연 진리가 계시 된다고 하는 일이 있는 것일까, 위선은 여호와와 신성이나 그리스도의 정신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가. 교리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교리도 많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예수·그리스도는 하느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는 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 제가 당신을 공개적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이 이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마태11:25)

위선자에게 진리가 계시 되는 건지...천지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워치타워협회의 교리도 어딘가 잘못되어 있을 것이다. 이 추측은 빗나가지는 않았다. 이윽고 워치타워협회의 모드로부터 나옴에 따라, 교리상의 결함이 서서히 보이게 되었다.

아마 조직이 위선적인 체질이 되고 나서 만들어진 교리나 밝혀진 예언은, 한번 더 철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는 잘라 잘못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교리의 주된 항목을 올리면 다음과 같이 된다.

1. 의인(義認)
2. 하느님의 조직, 사탄의 조직
3. 큰 바빌론
4.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
5. 믿음과 무류성
6. 통치체
7. 천적 권위와 조직의 권위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금지사항에도 문제가 있는 교리는 많이 있다. 이러한 교리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히로시마 회중에서 검토 중이다.

향후 이 사건이 진전해 가면, 한층 더 많은 일이 밝혀질 것이다.

10장 사건의 의미와 향후의 전망

<< 워치타워협회에는 구원이 없다 >>

1987년 5월 1일호의 파수대지에는, 협회의 회장 F·W·프렌즈 형제의 경향이 실리고 있다. 읽은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위선자가 쓴 기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내용이다. 하느님의 축복과 보호에 대한 확신, 조직에 대한 자신으로 가득 차 넘치고 있다. 조직의 실태, 진실 상태를 알고 있다면 도저히 그와 같은 기사를 쓸 수 없을 것이다. 역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쩌면 통치체 성원 중에서도,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조직의 실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태가 여기까지 진전해 버리면, 조직의 최고 지도 기관인 「통치체」로서, 「몰랐다, 보고가 없었다.」라고 끝낼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현시점에서 조직을 실제로 지도해,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 진실한 행위를 완전하게 의식해 행하고 있다. 그들은 성공, 단련된 위선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 지부의 감독자들이 가리키는 위선적인 정신이, 이 정도로 조직 내에 만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히로시마 회중이 보낸 천통을 넘는 편지를 일절 무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 역시 최종적인 책임은 통치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선이 입증된 지금, 통치체 및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에 대해, 이하가 들어맞는다.

- I. 통치체, 워치타워협회는 큰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다.
- II. 하느님과 그리스도는 워치타워협회와 함께하지 않는다.
- III. 조직으로서의 영적낙원은 부정되었다.

I. 이것은 당연하겠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위선자”는“맹인의 안내인”이며, 이끄는 사람도 이끌리는 사람도 모두 구멍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위선은 「영과 진리」에 의한 진정한 숭배와 정면으로부터 대립한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는 게헨나의 심판(영원한 멸망)에 적합하다고 진술되어 있다.

II.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속임, 위증은 하느님의 특성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며, 공약 위반은 여호와와 가장 미워하시는 일 중 1개이다.

III. 영적낙원 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성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호와와의 증인은 이 말을“회복된 하느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용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 내면에 설립된 낙원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 될까.

여호와와의 증인은 오랫동안, 「온 땅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서, 곧 낙원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선전해 왔다. 이 통신의 진위는 영적낙원에 의해서 증명되게 되므로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낙원과 같이 아름다운 곳을 만나더라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추악하다면, 조만간 황폐해 버린다. 낙원이 만들어질지 어떨지는, 환경 그 자체보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온 땅이 낙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영적낙원을 만들 수 없으면, 온 땅의 낙원이라는 이야기 등은 완전한 넌센스에 지나지 않는다. 위선자가 영적낙원을 건설하는…상태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지극히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것에 임해, 참 그리스도교의 증명을 세우려고 해도 무의미하겠지. 정말로 봉사 시간을 많이 하더라도, 정말 훌륭한 베델이나 왕국 회관을 짓더라도, 그것으로 하느님의 법에 대한 위반이나 위선을 속죄 받을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여호와와의 견해는, 아모스 5장 22, 24절 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내게 번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너희 예물을 기뻐하지도 않고, 너희의 살진 짐승의 친교 희생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공의가 물처럼, 의가 항상 흐르는 급류처럼 흘러가게 하여라.」

따라서 「그들이 (조직)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니, 나를 계속 숭배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 「먼저 잔과 접시의 속을 깨끗이 하시오.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오.」라고 하는 말씀이, 위치타워협회에 들어맞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통치체, 위치타워협회의 실태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넘는 것이었다. 이 정도로 간부가 위선적이고 거만하다라고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역시 외부의 지적은 올바랐던 것이다.

「내가 설명한 「객관적인 입장에 선 취재와 집필」이라고 하는 태도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섭외 담당자는 나에게 「(교단의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증명을 갖고 싶다」라고 요구했다. 나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로운 검열을 인정한다든가, 신자가 되어, 비판적인 표현을 일절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고 하는 의미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했다. 이야기는 결렬에 끝났다.

그 담당자의 요구에는, 보통의 교단이 벌써 옛날에 방패하고 있는 것 같은 강한 폐쇄성과 외부에 비판은 커녕, 객관적인 어프로치마저 허락하려고 하지 않는“완고함”이 있었다.

「좀 더 사회에 교단을 열면 어떻습니까. 급성장하고 있는 교단이라면 더욱더, 그 내부를 공개해서, 사회에 교단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또 그 의무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나의 주장에 대해서, 그 담당자는 교과서를 암송하는 것 같은, 감정을 눌러 참은, 그래서 있어 묘하게 타인을 대고 붙이지 않는 음성으로 갱의 있고는 되었다.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될 생각도 없는 당신이나) 일반 사회로부터, 이해 받으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일본 지부의 섭외 담당자의 말을 하면서, 나는 혐오감을 기억했다. 상당히 취재를 그만둘까하고 생각했다. (「젊은이들은 왜 신·신종교로 가는 것인가」 p. 28, 29 무로우 타다시著)

간부가 부패하고 있는 교단에는 하나의 명확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종교의 시대-2 신은 당신의 머리의“강정제”」라고 하는 책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끌어 들여진 뒤, 교단이 어떠한 모습으로 거기에 응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도 변함없이 포교를 위한 기관지의 확대, 신자의 증가라는 일상 활동을 부과하는 것만 남는다. 이 경우, 간부가 사치하여 흥분하고 있다면, 신자는 불쌍하게 된다. 행복하게 되려는 생각으로 교단에 들어갔지만, 반대로 괴로움을 맛보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매일, 간부로부터 엉덩이를 얻어맞아 활동에 돌진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그때는 이미 비참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p. 168 오다 스스무著)

이것도 보기 좋게 워치타워협회에 들어맞는다. 이대로는 향후 더욱 더, 성원에 대한 「잡지 배포, 문서 배포, 예약의 획득」의 압력은 강해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간부의 위선은 철저하게 규탄되어 마땅하다.

아직은 모든 사람들 앞에 통치체, 워치타워협회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 더해 결착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문제도 몇 가지 남아 있다. 그 중에는 워치타워협회의 토대가 되는 것 같은 교리나 예언 연도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려면, 향후 적어도 3개의 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하느님이 살아 활동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방법이 선택되든, 이윽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상되는 3개의 단계 >>

(1)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태와 부수되는 교리

통치체의 실태에 대해서는, 뚜렷하다. 유감스럽지만 그들에게는, 진실을 옹호하여 비성서적인 조직의 체질을 고칠 생각은 없었다. 통치체가 하느님이 사용하고 있는 그릇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말은 동시에,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의 교리도 또한 부정하는 것이 된다. 하느님의 말씀을 옹호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이 아니며, 하느님의 권위보다 조직의 권위가 위라고 생각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슬기롭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치체의 각 성원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태이다. 왜냐하면, 이 장의 첫머리에서도 접한 것처럼, 통치체의 모든 성원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성원 각자의 실태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 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치체는, 「지상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호와와의 신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통치체를 보면서, 전 세계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난다면, 확실히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을 무서워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틀림없이 “가짜”이다. 그렇게 되면 14만 4천명의 교리가 부정되게 될 것이다.

14만 4천명이란, 지상으로부터 선택되어 하늘에 올라, 영자가 되어 지상의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들이라고 배우고 있다. 진리, 진실하게 기초를 두어 행동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는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정하게 통치할 수 있을까? 무리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및 「14만 4천명」의 교리는 워치타워협회의 골격을 이루는 교리이다.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의 남은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마지막은 가까웠다고 예언하고 있고, 하느님의 왕국은 14만 4천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성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증인은, 이 「아마겟돈 임박설」과 「하느님의 천년왕국 도래설」을 최대의 세일즈 포인트로 해서, 조직 내부의 사람에게는 봉사를 강요하며, 조직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워치타워로의 입회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만약, 하느님의 아들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교리가 부정된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천년왕국 그 자체도 부정되어 여호와와의 증인이

전하는 통신은 그 실체를 잃게 된다.

워치타워협회의 교리와 예언 연도가 붕괴해 버리는 것이다.

(2) 개개의 여호와와의 증인

통치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여호와와의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된다. 사태가 여기까지 진행되면 「워치타워협회는 파수대가 아니라 거짓의 탑」이 되어 있을 것이다. 즉 스스로 그들이 비난해온 큰 바빌론으로 완성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의 성구가 들어맞게 될 것이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그 여자의 죄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함께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리 하여라.」(계시록 18:4)

그 때, 진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해매는 일 없이 워치타워협회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다. 여호와와의 증인이 여호와를 증거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이상, 여호와와의 신성과 관련 없는 조직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충실이 되기 때문이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법의 사람을 따르는 것은, 멸망을 의미하고 있다.

(3) 여호와와의 존재와 그 신성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는 우리들을 별명 「여호와와의 증인」이라고 불러,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유일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워치타워」가 「거짓의 탑」으로 변질했을 때, 「여호와와의 조직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언제까지나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그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소산인 영적낙원이 생길 리도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반드시 통치체와 워치타워협회를 재판할 것이다. 영적낙원을 진심으로 만들 생각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실현시킬 것이다.

그러나 워치타워도 재판하지 않고 영적낙원도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신의 말씀이라고 명언하는 성서 안에서 말한 것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 신이라면, 비록 존재하고 있다고는 해도, 인류에게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여호와와의 존재와 그 신성은, 워치타워협회에 하늘의 심판이 내리는지 아닌지, 영적낙원이 실현되는지 아닌지에 의해 밝혀진다.

통치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하늘의 법정은,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일까.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면, 다음의 성구가 성취될 것이다.

「그 희망은 창조물 자신도 부패의 종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8:21(신세)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8:21(개역한글판)

쇼와(昭和) 62년 10월 8일 인쇄(1987년 인쇄)

쇼와 62년 10월 12일 발행(1987년 발행)

편집: 金沢司(카나자와 츠카사)

발행: 히로시마 회중

[사건부] 후기

●게재의 경위와 「그 이후」

「사건부」는 말단 회중에 대한 협회의 취급을 극명하게 그린 희귀한 문서입니다. 파묻히기 전에 공공화 해, 많은 분들에게 읽어 주셨으면 하고 바라 왔습니다. 전문을 공개하고 싶다고 생각해 편자의 카나자와씨의 허가를 취할 수 있도록, 소식을 묻고 있던 참, 어느 친절하신 분으로부터, 친가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 우선 카나자와씨의 아버님과 이야기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버님은, 아무도 카나자와씨에게 전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어려운 자세로 임해졌습니다. 그러나 대화중에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고, 다행히도 예외적으로 「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례)답장을 쓸지 어떨지도 모릅니다만, 편지를 보내 아래 사라지면 전송 합니다。」라고 사정다만 구일이 생겼습니다.

99년의 봄, 친가에 편지를 드린 후, 카나자와 산호 본인으로부터 엽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카나자와씨는 간략히 2가지를 진술했습니다. 1가지는, 모든 저작은 나의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좀 더는 「모든 사건은 이제 먼 옛 일」이라고 하는 현재의 심경이었습니다.

공개 후, 메일링리스트상에서 감사의 소리가 다수 올랐으므로, 이것을 짧게 정리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쪽으로부터 카나자와씨를 메일링리스트에 권하거나 「그 이후」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이 카나자와 츠카사님과 나와의 접촉방법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히로시마 회중의 「그 후」에 대해서 나로서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1985~87년이라고 말하면, 조직의 확대에 가장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시기로, 제명자에 대한 눈은 차갑고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과를 생각한다고 해도, 「그 후」의 히로시마 회중 여러분의 수고는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분도 보통 사회에 돌아와 각각의 생활을 지키고 계시겠지요.

● 「사건부」가 의미하는 것

그러나, 아무도 「그 이후」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충분히 좋은 일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 아마 최초의 대량 제명을, 냉정한 눈으로 적은 선구적인 역할은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이것을 읽는 분들이, 「히로시마 회중의 사건은 예외적인 일이었다。」라고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에 남겨진, 지부가 사건을 진행시키는 방법이나 반영된 정신 등은 히로시마 회중에 대한 취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일본적,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 회중에서 일어난, 단순한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웹상에 게재하는 의미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증언은 레이몬드·V·프렌즈의 「양심의 위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의 위기」와 「사건부」는 「워치타워」라고 하는 인공의 구조물을, 정확히 그 정상(통치체)과 토대(말단의 회중)라고 하는 다른 지점으로부터 본 독립적인 기록입니다. 그 주장과 분석이 일치하고 있다면, 그러지는 구조물의 윤곽은 한층 더 신뢰하기에 충분한 것이 됩니다.

집단 제명은 1980년에 브루클린 베델 상층부에서도 일어났으며 이 사건에 대한 관찰은 「사건부」의 그것과 잘 닮았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친절함은 볼 수 없었다. 따뜻한 우정이나, 그 기초가 되는 진심으로의 이해도 없었고, 다만 차가운 조직의 방식이 있다는 것만 보였다. 항상 최악의 해석을 해서, 의심스러운 것은 모두 처벌하며,……그것은 마치 거대한 재판 기계가 스윙치를 넣고 움직이기 시작해, 전혀 감정도 용서도 없고, 다만 최종 목표를 향해 신음소리를 지르면서 회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양심의 위기」 p347)

사실 일본에서도 많은 제명은, 권력을 잡는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만」으로, 혹은 단순한 「착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명하는 측은 「제명에 이르기까지는 결정할 수 있던 수속이 있다」라고 반론하겠지요. 그러나 나무터 보면, 마음으로 빈 제명을 「정당화 해, 완료하기 위한 수속」이 있을 뿐입니다. 설령, 제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도, 비슷한 취급은 개개의 회중의 개인 레벨에 대해, 소규모로,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직을 가리는 이 반 우애적인 정신의 영향은, 개인이 형식적으로는 제명에까지 도달하느냐 하지 않느냐와는 별개로, 많은 인생에 깊은 상처를 입게 하는 것이 되어 왔습니다. 「현역의 봉사의 중」씨가 「사건부」를 충격과 함께 수취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역시 사건에 공통되는 조직의 정신을, 현지의 회중이나 순회구 안에서 엿보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 레이는, 일련의 집단 제명에 뒤이어서 일어난 자신의 제명 경위를 말하면서, 그것이 드문 방식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다지 내가 경험했던 것이 특별히 뒤엎히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특수하기 때문도 아니다. 다른 사람도 경험한 것이나, 이런 종류의 사례는 항상 여호와와 증인의 장로들이 행하는 것이며, 실로 전형적인 것이다. 중앙 권위로부터 철저히 가르침 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방식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양심의 위기」 p398)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조직을 그만두어 가는 기록을 극명하게 남기는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로시마 회중의 일의 가치는, 여기 일본에 있어서의, 보통 회중에서 일어난 「실로 전형적인」 「중앙 권위로부터 철저히 가르쳐진 사람들의 생각·방식을 잘 가리킨다.」는 실례를, 책의 형태로 기록해서, 여호와와 증인의 역사에 남긴 것입니다. 히로시마 회중의 정규는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것은 히로시마 회중 자신의 것인 것과 동시에, 신산을 잃은 이름도 없는 많은 형제들의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의 경제 기반을 쌓는 것과 바꾸어, 오랜 세월동안 조직과 사람들을 섬기다가 사라져 버린 분들의 「그 이후」는 얼마나 일까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에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중 노년을 지나고(또, 그만큼 나이를 먹지 않았다고 해도), 본래의 능력에 알맞은 일을 타고나지 않고, 마차를 끄는 말과 같이 일해 돌아볼 수 있을리가 없는, 조직이 낳은 "히로시마회중성원"은, 이 일본에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고립 당한 채로 방치되지 않게, 또 「사건부」가 향후 이러한 사람들을 낳지 않기 위한 억제력으로 기능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향후 STOPOVER는, 「사건부」 「결함 번역 신세계역」에 이어서 「워치타워의 임종」 「워치타워협회의 오도로부터 여호와와 증인을 해방하기 위해서」 등의 나머지 저작도 공개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회중사건을 넘어서, 알려지지 않은 형제들의, 말로 다하기 어려운 경험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직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매장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STOPOVER의 동료들은, 카나자와씨와 히로시마 회중 여러분의 용기와 자기희생의 역할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함께, 공식적으로 칭송합니다.

2001년 2월 22일. [손빈](#)

「사건부」 등 저작에 기록된 주소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전화 번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다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도 가끔 걸리는 전화 때문에 피해가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들 원 저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전화번호로 연락 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운영계 孫 濱 의 간단한 소개

고교시절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 이윽고 해 모든 집회에 참석하여, 비공식에 증언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대학에는 가지 않고, 합중국이 있는 주에서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귀국후, 눈이 쌓일 필요의 큰 지방에서 파이오니아로서 3번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나는, 10년간에 백 수십 명의 분들의 연구를 사회하여, 적어도 다섯 명을 전도인으로, 그 중 세 명은 침례까지 이끌었으며, 또한 몇 명의 경우는, 침례에 이를 때까지의 중간에 연구를 사회했습니다. 조직을 떠났을 때 나는 봉사의 종으로, 현지의 회중과 연합하면서 출장 다니고 다른 회중에서도 강연을 하는 「자격 있는 형제」였으며, 내가 사회해서, 침례까지 바친 사람이 봉사의 종으로서 벌써 서적 연구 집단 사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간, 누구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부탁하거나 기대하거나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봉사하면서, 스스로 회사를 일으켰고, 회중의 파이오니아들이나 연구생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어 부모님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임명되고 있는 회중의 장로들과 함께 「장로」대열로 불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아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심사숙고 후, 여호와의 증인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이 조직을 멀어지기 전 해부터, 왕국 회관에 초대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회중내의 너저분함에 알려들게 하는 것에 진절머리 나고 있어 양심적으로 전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출판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협회의 견해에 많은 모순이 있는 것에는, 그 이전부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직을 떨어지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 것은 요즘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조직을 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 것은, 항상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10년간 끊임없이 계속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조직에서 멀어진 후에는, 적지 않게 새지 않고, 제명자 같은 취급을 받아 악의적인 소문이 인근회중으로 퍼졌습니다. 나는 투병생활을 하시던 아버지가 계신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일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일을 하면서 수험 공부를 시작한 이래 몇 개의 대학에서 정규학생으로 배웠습니다. 학비는 모두 자신의 활동과 대학으로부터의 장학금으로 조달했습니다. 내가 배운 대학가운데에는 신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직을 떨어진 것을 가장 기뻐해 준 어머니도, 일 년의 투병 끝에, 금년 2월에 호스피스에 들어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춘 시대에 걱정만을 끼쳐 충분한 효도도 할 수 없는 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내 일생의 후회입니다. 현재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ML를 통해서, 어떤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이 조직에서 멀어지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조직 안에서 나처럼 괴로워하면서 나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ML를 활용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Feb. 28. '01 손빈